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23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도시인의 우정과 환대

- 2010년대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심 소 정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시인의 우정과 환대

- 2010년대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urban friendship and hospitality

2023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심소정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시인의 우정과 환대

- 2010년대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승 우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심 소 정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심소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김희정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이승우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김형중 (인)

2022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 목적 및 연구사검토 ····· 1
2.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 6

Ⅱ. 본론 ····· 11
1. 도시인의 거리두기 ····· 11
1) 화폐경제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의 탄생 ····· 11
2) 新 엔클로저 운동과 출입제한 공동체의 탄생 ····· 19
3) 거리두기와 신경과민 ····· 30

2. 도시 여성의 삶 ····· 49
1) 현대인의 ‘일’ ····· 49
2) 이중 억압의 탄생 ····· 66
3) 우리시대의 돌봄 노동 ····· 74

3. 도시인의 환대 ····· 88
1) 도시적 환대 ····· 88
2) 도시인의 이웃관계 ····· 101
3) 순수한 환대의 가능성 ····· 112

Ⅲ. 결론 ····· 12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 12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urban friendship and hospitality

Sim So-Jung
Advisor : Prof. Lee Seung-woo
Department of Literature and Cre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friendship and hospitality of urbanites living in modern times targeting Korean novels in the 2010s. This is deeply related to the dissolution of family relations caused by urbanization.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derive urban features through literary works by focusing on the lives of urban women. Recently, female writers in the spotlight are presenting works dealing with the work and friendship of urban women.

In recent Korean literature, there are many stories of individuals facing caring labor as female writers emerge and focus on individual's inner daily life. In these works, the speaker recognizes others entering the home as intruders and shows excessive neurotic reactions to others. This paper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why modern people who enjoy the most "free" lives in history suffer from such excessive nervousness and paranoid anxiety in their daily lives.

The modern city dwellers are obviously free. Due to the rise of the monetary economy, the personality of the individual who belonged to the land was liberated. Individuals who were fixed on the patriarchy and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olid society gained freedom in the process. In particular, women became independent from the patriarchy that subordinated them. But in modern society, they have taken on a new burden. The absence of a care worker due to the dissolution of family relations was imposed on each woman as it was. Now they suffer from the double repression of wage labor and care work.

There are many papers on urbanity, but the literary work analyzed in those paper mainly deal with the confusion of residents from villages who have moved to unfamiliar and heterogeneous spaces with the subject of recognizing the city as "unfamiliar land." In the case of works studied until recently, the story is produced by focusing on the process of migrants from the provinces struggling to adapt to large cities in their living space.

There is a contradictory character in the identity of modern people. Modern people have been able to acquire personal freedom away from the existing traditional and social order, but identity cannot be formed regardless of society or others. Modern subjects experience a division between the 'social self' given by identifying socially given roles or subordinating to professional coercion, and the 'unique subject' separated from it. In pre-modern society, where individual independence did not exist, this division did not exist. This is because in the past, individuals were reverted to a group tradition. However, modern people, who can no longer expect this return, and who do not expect it, are forced to endure the division of identity, and thus suffer from various psychopathological pain.

This paper aims to analyze how the neighborhood relationship of metropolitan people, which the most recent works are paying attention to, affects the formation of the identity of modern subjects and to pay attention to their new urban sensitivity. We will see the city as a social space that is constantly interacting with social processes, creating,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hanging, and disappearing, understanding the city as a daily space containing people's breath and desire, and looking at the subjects in the work through cultural analysis of urban spac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0년대 한국소설을 대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인의 우정과 환대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고자 한다. 이는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가족 관계의 해체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여성 작가들이 조망하는 도시 여성의 삶에 집중하여 그들의 일과 우정을 다룬 작품들을 통해 도시적 특징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최근의 한국문학은 여성 작가가 대두되고 개인의 내밀한 일상에 집중하면서 돌봄 노동을 마주하는 개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 작품들 속 화자는 가정에 들어오는 타인을 침입자로 인식하고 타자에 대해 과도한 신경증적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 논문은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는 현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왜 이런 과도한 신경증과 편집증적 불안에 시달리는지 의문을 가지는 데서 출발했다.

현대 도시인들은 분명 자유롭다. 화폐경제의 대두로 인해 토지에 속해있던 개인의 인격은 해방되었다. 가부장제와 고체사회에 고정되어 있던 개인은 그 과정에서 자유를 얻었다. 특히 여성들은 본인들을 종속했던 가부장제로부터 독립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그들은 새로운 부담을 떠안았다.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돌봄 노동 수행자의 부재는 그대로 여성 개개인에게 부과되었다. 이제 그들은 임금노동과 돌봄 노동이라는 이중 억압에 시달린다.

도시성에 관한 많은 논문이 나와 있지만 대상 논문에서 분석한 작품들은 주로 도시를 '낯선 땅'으로 인지하는 주체가 등장하고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에 이주한 촌락 출신 거주자의 혼란을 다루고 있다. 최근까지 연구된 작품들의 경우에도 지방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이 거주공간에서 대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생산해내고 있다.

현대인의 정체성에는 모순적 성격이 있다. 현대인은 기존의 전통 및 신분적 질서로부터 벗어나 개인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체성은 사회 혹은 타자와 무관하여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적 주체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에 동일화하거나 직업적 강제에 종속함으로써 주어지는 '사회적 자아'와, 이것으로부터 분리된 '고유한 주체' 사이의 분열을 경험한다. 개인의 고유한 주체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전근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열이 존재하지 않았다. 과거에 개인은 집단의 전통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복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기대하지도 않는 현대인들은 정체성의 분열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다양한 정신 병리적 고통에 시달린다.

본고는 가장 최근의 작품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도시인들의 이웃관계가 현대적 주체들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고 그들의 새로운 도시적 감수성을 주목하고자 한다. 도시를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생성, 변천, 소멸해가는 사회공간으로 보고, 사람들의 숨결과 욕망이 담긴 일상공간으로서 도시를 이해함과 동시에 도시공간에 대한 문화적 분석을 통해 작품 속 주체들을 조망해보겠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연구사 검토

최근의 한국 문학은 거대 담론이 사라지고 개인의 내밀한 일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여성 작가의 약진으로 출근하고 아이를 돌보는, 도시 속 일상을 체험하는 여성 인물들이 주로 등장하는 경향도 있다. 최근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타인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 그들을 침입자로 인식하거나 이웃에 대해 과도한 신경증적 반응을 보이는 화자들이 유독 많이 등장한다. 이 논문은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는 도시인이 일상 속에서 왜 이런 과도한 신경증과 편집증적 불안에 시달리는지 의문을 가지는 데서 출발했다.

행정구역기준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90%가 넘은 현재 시점[1]에 도시성에 대한 탐구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고도의 압축 성장을 했고 서구가 3세기에 걸쳐 일군 산업화를 30여년 만에 이루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사회담론은 경제성장이라는 기조 아래서 획일적이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자원의 집중과 분산, 효율성과 평등, 경제적 성장과 환경 등의 여러 선택지에서 전자를 택하며 발전해왔다. 빠른 성장은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켰고 이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로 남아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점들 중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가족관계의 해체와 이로 인해 마주하게 되는 타자에 대한 환대와 우정의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나아가 최근 주목받는 여성 작가들이 조망하는 도시 여성의 삶에 집중하여 그들의 일과 우정을 다룬 작품들을 통해 도시적 특징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는 여성에게 공간이 좀 더 복잡한 의미로 다가가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집은 아늑한 가정이기도 하지만 일터이기도 하고 자신의 기동성을 제한하는 덫

1)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2020년 통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기도 하다.

린다 맥도웰에 따르면 모든 공간은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성에게 가족은 억압적인 사회관계와 가사노동의 장소이기도 하고 자녀 및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낭만적 사랑과 관계를 통해 개인적으로 충만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2] 도시라는 공간도 그렇다. 자유와 기회로 가득 찬 도시라는 공간은 누군가에게는 공포스럽고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다.

최근의 한국 소설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과도한 신경증과 타인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 이러한 장소의 이중성과 관련되어 있다. 현대 도시인들은 분명 자유롭다. 화폐경제의 대두로 토지에 속해있던 개인의 인격은 해방되었다. 가부장제와 고체사회[3]에 고정되어 있던 개인은 그 과정에서 자유를 얻었다. 특히 가부장제에 종속되어 있던 여성들은 가부장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임금노동을 통해 가부장의 권위에 의존하여 생존을 담보하는 일에서 자유로워졌다. 교육 수준이 올라갔고 보편적인 피임 방법이 보급되었으며, 개별 여성 당 태어나는 아이 수의 감소로 상대적으로 육아에도 자유롭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그들은 새로운 부담을 떠안았다.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돌봄 노동 수행자의 부재는 그대로 여성 개개인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부과되었다. 이제 그들은 임금노동과 돌봄 노동이라는 이중 억압에 시달린다. 때문에 여성은 자유로 가득 찬 도시에서 가정에 고립된다. 본고는 최근 한국소설에 이런 도시적 특징이 발현된 다수의 작품을 분석하고 특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선행 연구를 살펴볼 경우 한국 소설의 도시성에 관련해서는 여러 선행 연구가 있다. 김지예는 박경리의 도시소설을 분석하였다. 그는 박경리의 소설을 자본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한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박경리의 시선을 살펴보았다. 특히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계층질서가 어떤 식으로 구획되는지 분석하였다. 그는 박경리의 소설에서 보이는 인간소외와 물신주의를 포착하여 분석하면서 박경리 작품에서 나타나는 근대의 양면적 성격을 조망하여 불가피한 근대화의 상황에서 삶의 가능성을 찾으려 했던 주체들

2) 린다 맥도웰, 『젠더, 정체성, 장소』,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0, 160쪽.
3) 지그문트 바우먼은 액체화 되기 이전의 상호 결속이 강한 사회를 고체근대라 명명했다. 고체근대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결합되어 있고 신분이 고착화되어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삶의 의지를 주목하였다.[4)]

이희경은 1970년대의 도시화가 개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최인호, 박완서, 이동하의 작품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아파트'로 상징되는 도시의 공간에서 겪는 주체들의 고립, 인간소회, 일탈 욕구 등의 심리적 문제를 탐구했다.[5)]

이광민은 박완서의 작품들의 배경이 도시로 한정되어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는 박완서의 소설을 시대적 기준으로 세분하여 도시 현실이 작품에 반영된 양상을 고찰했다. 박완서 소설은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 현실에 이기적으로 대응하고 도시를 양가적인 공간으로 인식한다. 한국 전쟁 이후 파괴된 도시에서 힘겹게 생존하는 개인에 주목하였으며 산업화 시대에는 물질주의 세태 속에서 일탈 행동을 보이는 주체를 등장시켜 시대상을 반영하였다.[6)]

이신조는 199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도시성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규정했다. 그는 메트로폴리스의 면모를 표현하는 김영하, 배수아의 소설을 통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조직인간으로 살아가는 개인을 탐구하였다. 또한 구효서, 은희경, 김영하, 윤대녕의 소설에서 도시인이 이례적으로 경험하는 '내면적 각성'의 순간이 공통된 형태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도시라는 공간에서 파편화된 역할로 존재하는 도시인의 위축과 개성의 상실을 포착하였다. 특히 그는 1990년대 소설 속 도시적 관계에서 '일회성'과 '기만성'이라는 특징을 발견해 도시인들이 낯선 타인과의 만남에서 교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지만 동시에 예측불가의 위험과 한계를 지닌다고 말했다.[7)]

김아영은 최인호 소설을 통해 1970년대 문학에서 도시성이 어떻게 재현되고 전유되는지 분석하였다. 최인호는 서울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작가로 전형적인 '도회의 아들'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김아영은 최인호가 동시대 다른 작가들에 비하여 시골, 자연, 부모 세대에 대한 부채감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희박하다고 보고 최인호의 도시적 인식이 바로 1990년대

---

4) 김지예, 「박경리 도시소설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5) 이희경, 「도시 문명에 갇힌 인간 소와와 상실감 : 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동서언론』 제 15권, 동서언론학회, 2012.
6) 이광민, 「박완서 소설 연구 - 도시체험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7) 이신조, 「199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도시성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가들에게 전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 번도 사적인 독립 공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우리 사회가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을 통해 공동체적인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사적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현상을 최인호의 소설을 통해 분석했다. 김아영은 최인호의 도시 인식이 당대의 어떤 작가보다도 앞서 있었다고 말하며 그가 구현한 포스트모던한 도시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고유성을 회복한 주체가 이질적인 타자성을 포용하는 지점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와 다른 것들을 인정하는 '타자성의 공간', 즉 '헤테로토피아'적 도시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최인호의 소설을 통해 묘사하였다. 근대가 격리했던 죽음, 질병, 성 등을 포용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주체가 다양한 타자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주체로 거듭나는 점을 포착하였다.[8)]

임정민은 윤흥길의 도시소설을 분석하여 사회 현실을 고찰했다. 사회현실의 부당성과 갈등에 집중하여 도시개발의 폭력성을 집중적으로 다룬 윤흥길의 소설들을 통해 물질지상주의가 만연하고 주거공간이 상품화 된 도시의 고질적 문제를 다루었다. 윤흥길의 소설에서 '반성적 소시민 인물'과 '바보형 인물' 등의 인물을 유형화하고 작품에서 다루는 해학 풍자 알레고리의 전략적 활용을 분석하였다.[9)]

정희가는 2000년대 한국문학에 나타난 도시와 도시민의 삶을 짐멜과 벤야민의 이론들을 원용하여 '개성 상실의 고독한 공간'과 '순환의 공간'으로 분류하여 그에 나타난 현대 사회의 특성과 도시민들의 사회인식을 분석하였다. 그는 김애란의 '노크하지 않는 집', 박민규의 '갑을고시원 체류기', 조해진의 '산책자의 행복', 최은미의 '근린'등을 분석하여 현대인들의 단절과 몰 개성화 된 현실을 재현하는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도시인들의 '거리두기'와 '속내 감추기', '지성화'와 '둔감함'의 특성에 주목하여 2000년대 한국문학이 도시인 특유의 고독을 재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정희가에 따르면 2000년대 문학에 나타난 가난한 도시인들은 보다 나은 삶으로의 계층이동을 욕망하면서도 그것이 환등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불완전한 산책자로 끝없이 순환하는 부조리한 세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10)]

---

8) 김아영, 「최인호 소설의 도시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9) 임정민, 「윤흥길 도시소설에 나타난 사회현실과 인물의 대응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시성에 관한 많은 논문이 나와 있지만 대상 논문에서 분석한 작품들은 주로 도시를 '낯선 땅'으로 인지하는 촌락 출신의 거주자의 정체성 혼란을 다루는 데 한정되어 있다. 최근까지 연구에서 조망한 작품들의 경우에도 지방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이 '거주공간으로서의 대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도시인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이웃 관계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대인은 기존의 전통 질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사회와 교류하며 형성된다. 탈향한 현대인은 자신들이 목적했던 도시와 소통하며 주체성을 형성하지만 내면의 분열을 경험하기도 한다. 과거 사회에서 이러한 분열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타향과 이방인을 마주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 던져진 개인은 계속해서 선택해야 한다. 직업과 사는 동네와 이웃할 사람들을 선택해야 한다. 매 순간 그들의 집에 어떤 이들을 들일지도 선택해야 한다. 그런 자극의 순간이 가득 찬 도시에서 매번 내적인 반응을 보일 수 없는 개인은 속내를 감추고 무심해진다.

본고는 가장 최근의 작품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도시인들의 이웃관계가 현대적 주체들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고 그들의 새로운 도시적 감수성을 주목하고자 한다. 도시는 인간이 발전시켜 온 문명의 총체적 산물이다. "근대성은 도시를 통해 형성되고 구체화되었으며 도시를 통해 변천해왔다."[11] 도시를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생성, 변천, 소멸해가는 사회공간으로 보고, 사람들의 숨결과 욕망이 담긴 일상공간으로서 도시를 이해함과 동시에 도시공간에 대한 문화적 분석을 통해 작품 속 주체들의 일상을 살펴볼 것이다.

10) 정희가,「2000년대 문학에 나타난 도시적 삶과 공간」,『한국문화기술통권』 제 28호, 2020.
11) 김인·박수진,『도시해석』, 푸른길, 2006, 280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한국 소설에 나타난 도시인의 우정과 환대를 탐구하기 위해 문화사적으로 도시를 연구한 학자들의 이론과 타자성에 대한 탐구를 한 연구서들을 참조하였다. 본고가 중점적으로 참고할 주요 이론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과 대상 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목표가 현대 도시인의 우정과 환대를 분석하는 데 맞추어진 만큼 2010년대 발표된 단편소설 중 도시적 일상과 근대적 인간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인물이나 상황이 등장하는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했다. 특정 작가를 중심으로 한 작가론이 아니기에 여러 작가를 두루 다룰 예정이다.

도시를 배경으로 한 많은 소설에서는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이주한 화자가 도시에서 느끼는 소외를 다루고 있다. 대도시에서 느끼는 이 소외와 특유의 과민한 신경증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이에 대해서는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이 고전적인 답을 제시한다.

짐멜은 대도시인의 신경증과 지적인 반응을 화폐와 연관지어 설명했다. 자본주의 이전 시대에 토지 그 자체에 귀속되었던 개인의 인격은 화폐 경제에 의해서 해체되고 분리되었다. 화폐에 의해 분화된 관계는 다시 또 화폐에 의해 구성원들을 강력히 연결시키기도 한다. 화폐 경제 체제로 운용되는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매 순간 돈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창출된 수백 가지의 결합 관계들에 의존한다.[12)]

이웃,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화폐경제에 의한 결합과 해체가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 계산적 이성이 발달한 등장인물이 자주 등장하는 장류진의 작품과 대도시와 소도시의 이웃관계를 탐구한 구병모의 작품, 돌봄 노동을 테마로 한 김유담의 작품들을 짐멜의 이러한 관점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김유담의 작품에는 육아, 가사노동, 간병 등의 돌봄 노동과 가족 내 여성들의 갈등이 전면에 드러나 있다. 대도시의 발달과 함께 분업화가 진행

12) 게오르그 짐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윤미애 옮김, 새물결, 2005, 12쪽. 이하 각주를 통해 저자, 제목, 쪽수만 표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되고 임노동이 가능해지면서 가족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했다. 화폐 경제가 만들어 낸 가족해체로 사람들은 비로소 자유로워졌고 이는 현대의 도시 풍경을 만들어 낸 주요 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 일상 속 여성들은 도시가 가져다 준 '자유'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돌봄 노동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여성들의 문제는 현대 소설에서 끊임없이 탐구되는 주제다.

돌봄 노동은 과거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집성촌이나 대가족 내에서 해결되었던 대표적인 비공식 경제 중 하나다. 더 큰 범주로는 가사 노동도 비공식 경제다. 도시화와 화폐 경제의 발달로 개인은 자유를 획득했지만 여성에게 의무 지워진 비공식 경제의 책임은 "여성의 기동성을 제한하고 고용기회, 서비스 및 기능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준다."[13]

짐멜이 특정한 또 다른 도시인의 특성은 '신경과민'과 '지적인 반응'이다. 짐멜은 대도시인들의 전형적인 '심리적 기반'을 '신경과민'이라는 논제로 제시한다. 이는 도시인들의 전형적인 방어 매커니즘이다. 대도시에서는 외적, 내적 자극들이 급속도로 바뀌는데 도시인들은 이렇게 밀려드는 '인상'들이 예기치 못한 경우로 다가올 때 큰 부담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끝없이 변화하는 대도시에서의 생활과 가변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불안과 위협에 시달린다.[14]

홍준기는 도시인의 이러한 신경과민과 그로 인한 계산적 이성을 프로이트와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감성을 억압하고 차가운 계산적 이성을 발달시킨다는 특징을 갖는 대도시인의 신경과민'을 프로이트 용어로 '강박증화'라고 다시 정의 내렸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강박적 방어 매커니즘 중 하나가 '감정 혹은 정서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불안을 야기하는 정서적 내용을 의식적 내용으로부터 분리 혹은 억압'시킴으로써 '강박적 주체는 자신을 방어'하는데, 이때 주체의 의식에는 정서적 내용보다는 건조한 '지적' 내용이 잔존하게 된다.[15]

---

13) 여기서 비공식 경제는 세금을 내는 기록이 없는 부문으로 정의한다. 존 레니에 쇼트, 『문화와 권력으로 본 도시탐구』, 이현욱·이부귀 옮김 한울아카데미, 2001, 223쪽.
14) 홍준기,「믿음, 감사, 이웃사랑 : 짐멜의 문화 및 도시철학에 관한 정신분석적 성찰」,『현대정신분석』 제14권, 2012, 132쪽.
15) 홍준기,「믿음, 감사, 이웃사랑 : 짐멜의 문화 및 도시철학에 관한 정신분석적 성찰」,『현대정신분석』 제14권, 2012, 13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런 대도시인의 강박증화는 무엇보다 근린 관계에서 자주 발생한다. 특히 최근의 작품에서는 돌봄 노동을 위임한 가사노동자와의 대면에서 이런 신경과민을 발견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돌봄 노동의 주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 문학에서도 최정화의 '구두', 손보미의 '임시교사', 김유담의 '돌보는 마음' 등의 작품에서 돌봄 노동의 문제와 도시인의 강박증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가족 관계의 해체 속에서 붕 떠버린 돌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자극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내밀한 공간인 가정에 타인을 출입시켜야 하는 경우 이런 신경증은 폭발한다. 익명성에 기반한 도시의 메커니즘 속에서 타인은 기본적으로 불신의 대상이다. 그들의 신뢰 관계가 흔들릴 때 신경과민이나 망상증은 발현되기 마련이다.

이 관계성을 논의할 때 존 레니에 쇼트의 '신 엔클로저 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엔클로저는 18세 후반 영국에서 일어난 공동 경작지의 사유화 운동을 말한다. 존 레니에 쇼트는 도시지역에서 '거주자와 친구 이외에는 문을 걸어 잠그는 '출입제한' 공동체가 발생하는 현상'을 '신 엔클로저 운동'이라 명명했다.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벽, 문, 경호원 등으로 도시는 작은 공동체들로 분리되어 간다.[16] 인클로저 된 공간에서 마주하는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다룬 작품들을 통해 이 개념을 분석해보겠다.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는 일하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현대인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직업을 가장 먼저 궁금해한다. 공식적인 고용은 그 사람의 사회적 명예와 사적인 자존감을 연결해주기도 한다. 세습된 신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개인은 고용을 통해 소득과 정체성을 보장받는다. 그만큼 현대인에게 일은 매우 중요한 자아 형성의 요소 중 하나다. 장은진의 '당신의 외진 곳', 장류진 '일의 기쁨과 슬픔', 김세희 '가만한 나날', 최은미 '여기 우리 미주' 등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일'에 대한 대도시인들의 태도를 살펴보며 현대인들에게 '일'이 가진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마이크 새비지와 알랜 와드가 저술한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에 소개된 도시학자 파크는 근대성을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인간행위의 기반을 깨고 비공식적 사회생활을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그에게 있어 노

16) 존 레니에 쇼트, 앞의 책, 42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동 분화는 “직업이 사회결합을 파편화시키는 과정”이었다. 파크에 따르면 해체된 가족관계를 대체하여 사회결합을 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웃 근린의 결합관계’를 부활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가족관계와 ‘일차적 결합관계’가 근대 도시에서 파괴”되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그의 관심은 “어떤 사회적 결합관계가 집합적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하는 것이었다.[17]

이는 최은미의 ‘보내는 이’와 정한아의 ‘술과 바닐라’, 김유담의 ‘내 이웃과의 거리’, ‘연주의 절반’ 등의 작품에서 탐구할 수 있는 주제다. 해체된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도시인은 사회 결합에 강력한 욕구를 느끼며 살아간다. 자신을 속박한 공동체를 탈출하고자 했던 개인은 떠나간 도시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부단히 노력한다. 최근의 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는 대도시 속 가족 관계의 해체와 이웃 관계, 또 그 관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리두기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짐멜과 파크의 이러한 관점을 활용하고자 한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현대인에게 이웃관계는 가족 관계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이웃과 언제나 친근하고 따뜻한 우정을 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도시 속에서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만남 속에서 언제나 환대를 보여주는 것도 불가능하다. 데리다는 이런 의미에서 ‘가능한 최선의 환대는 이상적인 환대의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상이 부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의 환대를 시도해야만 한다.[18] 정한아의 ‘잉글리쉬 하운드 독’, ‘바다와 캥거루와 낙원의 밤’과 김애란의 ‘숲 속 작은 집’, 구병모의 ‘지속되는 호의’ 등을 중심으로 데리다의 환대와 선물 개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방인과 끊임없는 만남을 반복해야 하는 도시인에게 순수한 환대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탐구해보겠다.

소설은 근대적인 학문이다. 인생에서 선택의 여지가 적은 폐쇄적 전통 사회에서는 소설 예술이 발전하지 못했다. 소설은 인간의 사적인 특징, 감각, 선택들에 대한 치밀하게 구성된 문학 서사를 제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17) 마이크 새비지·알랜 와드,『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김왕배·박세훈 옮김, 한울아카데미, 1996, 24쪽.
18) 페넬로페 도이처,『How to read 데리다』, 변성찬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07, 146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이끈다. 소설의 등장인물은 필연적으로 이 지점에서 풍경으로 들어간다. 소설은 우리를 풍경 속으로 초대하고, 우리는 세상을 그 안에 있는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그의 감각을 통해서, 그의 단어를 통해서 보게 된다. 하지만 진짜 주제는 소설 주인공들의 '캐릭터'가 아니라, 세계의 속성이다. 주인공들의 삶, 세상 속에서 그들이 차지한 위치,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보고 느끼는 방식 등이 순문학 소설의 소재가 된다.[19]

본고에서는 최근의 한국 문학 속에 그려진 도시적 풍경과 속성을 탐구하여 현대인들의 일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9) 오르한 파묵,『소설과 소설가』, 이난아 옮김, 민음사, 2012, 61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본론

1. 도시인의 거리두기

1) 화폐경제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의 탄생

도시의 일상은 경제적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다. 도시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거래한다. 이 거래의 중심에는 돈이 있다. 과거 작은 촌락 단위의 삶을 영위하던 시절에는 돈이 지금만큼 중요한 수단은 아니었다. 과거에는 태어나는 순간 직업과 신분과 삶의 지향점이 정해졌다. 그들의 공동체는 여러 규범과 토지라는 공간을 통해 구성원들을 완벽하게 속박했다. 이런 시스템은 당시의 공동체가 매우 소규모였고 구성원들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접점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공동체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확대된 거대 도시의 삶에서는 돈으로 모든 것을 거래할 수 있다. 현대인의 삶의 방식은 화폐 거래로 확장된 거대 도시의 삶과 맞물려 완전히 달라졌다.

최근 발표되는 작품들에서는 이렇게 달라진 현대인의 가치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여러 주인공이 등장한다. 이들은 도시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헤어진다. 이들의 관계성은 과거의 인간들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관계에는 '돈'이 있다.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은 대도시인들의 특성을 '지적인 반응'으로 명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대도시인들의 지성화는 곧 '계산적' 이성으로 발달한다. 짐멜은 "화폐 경제와 이성의 지배는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고 양자 모두 사람과 물건을 취급함에 있어 순수한 객관성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말했다.[20]

---

20) 게오르그 짐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137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짐멜은 무엇보다 화폐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화폐는 '인간들 사이의 거리'를 설정해준다. 과거 토지와 신분에 속박되어 있던 개인은 화폐제도를 통해 스스로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제 완연히 스스로 주체가 되고 자기 자신의 내면과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개인은 과거에 자신을 속박했던 많은 것들에서 해방되었다. 해방된 개인은 도시 속에 홀로 서 있게 되었다. 과거와 같은 가족 관계의 친밀성, 같은 공동체 내의 강력한 유대관계는 대도시의 개인들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되었다. 화폐 경제 하에서 인간들은 이제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

화폐 경제, 즉 돈이 대도시인들의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지 세밀하게 그리고 있는 몇몇 작품을 살펴보자. 장류진의 '잘 살겠습니다'는 직장 생활을 하는 대도시인들의 관계성에서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결혼을 앞두고 입사 동기인 빛나 언니와 축의금을 두고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아무 교류가 없었던 빛나 언니가 왜 '친하지도 않은' 자신의 청첩장이 그렇게 받고 싶은 건지 알 수 없는 화자는 계속해서 그녀와 신경전을 벌이지만 계속되는 그녀의 요청에 못이겨 결국 점심 약속을 잡게 된다. 일본식 덮밥집에서 화자와 만난 빛나 언니는 특 에비동을 시키고는 '이 집은 새우를 많이 준다'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 화자를 어이없게 만든다. 그녀와 몇 번의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화자는 다시 빛나 언니에게 '갑갑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 "사실, 나도 결혼하거든."
> 그러면 그렇지. 결국 이것 때문이었어? 언니가 나를 그렇게까지 만나고 싶어 한 이유가 뭔지 그제야 알 것 같았다.[21]

화자는 결국 빛나 언니가 '결혼준비를 시작할 때 느끼는 필연적인 막막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혼 과정의 모든 프로세스와 다양한 옵션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게 된다. 이 두 사람의 거래는 이렇게 시작된다. 청첩장과 엑셀 파일이 첫 번째로 교환된

21) 장류진, 「잘 살겠습니다」, 『일의 기쁨과 슬픔』, 창작과비평, 2019, 1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작품 속 화자는 '계산적 이성'이 극도로 발달한 전형적인 대도시인이다. 그녀는 빛나 언니의 모든 행동을 치밀하게 계산된 이성으로 받아친다. 그녀가 보기에 빛나 언니는 '이성적 시각'이 완전히 결여된 사람이다. 빛나 언니는 확정일자가 무엇인지도 몰라 부동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함께 카페에 들러도 당연히 상대방이 결제할 것이라 생각하고 무심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빛나는 그 식사 자리에서도 받기만 한다. 결혼 준비와 관련한 엑셀 파일을 받고, 특 에비동을 받고, 청첩장을 받는다. 작품의 화자는 이 거래가 마땅히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빛나 언니는 결혼식에도 불참하고 축의금도 전달하지 않는다.

> 그런데 이 언니는 자기가 먼저 초대해달라고 하길래 기껏 시간 내서 밥도 사주고 청첩장도 줬더니 결혼식에 오지도 않고 축의금조차 내지 않았다.[22]

현대사회에서 이런 식의 거래는 상식 없는 행동으로 취급된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온 화자에게 빛나 언니가 축의금 대신 선물을 사겠다고 하자 화자는 대도시인 특유의 계산적 이성을 다시 발동시킨다. 둘 사이 관계의 거리에 따른 축의금의 기준과 청첩장 식사로 먹은 특 에비동의 가격과 주고받고 정산해야 할 금액들을 계산하느라 화자는 매우 복잡한 심경이 된다.

> '갖고 싶은 선물'이라. 너무 막연한 단어였다. 얼마짜리를 골라야 하나. 언니랑 내 사이는 축의금 오만 원 정도의 사이였다. 딱 기본 금액. 나는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오만원 선에서 살 만한 게 있나 둘러봤다. 딱히 끌리는 게 없었다.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오긴 했다. 칠만 원짜리 무드등을 사 달라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사만 원짜리 토스터를 받자니 괜히 억울했다.[23]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선물을 주고받는다. 지인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모바일 기프티콘을 주고받기도 하고 특정 행사에 정해진 양식의 선물을 하기도 한다. 선물 교환을 개시하는 시점에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과

22) 장류진, 앞의 책, 21쪽.
23) 장류진, 앞의 책, 2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연 이 선물이 적절한가 대한 고민이다. 이 적절성 때문에 선물로 인해 관계가 회복되기도 끊어지기도 한다.

사회학자 김현경은 선물교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선물 교환을 개시하는 행위는 결투를 신청하는 것과 유사하다. 거기에는 상대방이 명예를 가진 인간인가를 묻고, 답변을 기대하는 의미가 있다. 도전에 제때 응대할 수 없다면, 상대방은 체면을 잃고 두 사람의 관계에는 금이 간다.”[24)]

전형적인 대도시인인 작품 속 화자는 선물 교환에 숨겨진 결투의 측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그녀의 계산적 이성은 빛나 언니의 도전에 정확하게 응하고 정확한 교환을 위한 선물을 고르기 위해 분투한다. 하지만 계산은 너무 복잡해진다. 더하고 빼기에 딱 맞는 선물은 결국 도출되지 않는다. 화자는 그냥 밥 한 끼로 이 복잡한 교환 행위를 정리하려고 한다. 일 인 분에 이만 오천 원짜리 한정식을 먹고 복잡한 교환에서 적당히 손해를 보고 끝냈다고 생각한 화자는 빛나 언니가 자신의 청첩장을 책상 위에 올려둔 것을 보고 무척 분노한다. 새로운 교환 행위가 개시되자 화자는 머릿속에서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다.

25,000(축의금 대신 먹은 밥값) - 13,000(내가 청첩장 주면서 산 밥값)
= 12,000 [25)]

화자의 계획을 들은 그녀의 약혼자가 축의금을 대신 내 준다고 하자 그녀는 단호히 거절한다. 화자는 대도시의 화폐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빛나 언니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한 치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는 화폐 경제 하 현대인의 계산적 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짐멜에 따르면 “화폐 경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저울질하고, 계산하고, 숫자로 규정하고, 질적 가치를 양적 가치로 환원하는 일”로 소진하게끔 만들었다. 화폐가 지닌 계산적 본질은 “삶의 요소들 간의 관계에서 동일한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을 규정하는 정확성과 확실성, 약속과 협정의 명확성이 지배”하게 되었다.[26)]

---

24)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172쪽.
25) 장류진, 앞의 책, 26쪽.
26) 게오르그 짐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39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러한 화폐 경제 아래서 살아온 현대 도시인들은 불명확한 계산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낀다. 정가에 교환에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파국을 맞게 된다.

> “빛나 언니한테 가르쳐주려고 그러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오만 원을 내야 오만 원을 돌려받는 거고, 만 이천 원을 내면 만 이천 원짜리 축하를 받는 거라고. 아직도 모르나본데, 여기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말이야. 에비동에 새우가 빼곡하게 들어 있는 건 가게 주인이 착해서가 아니라 특 에비동을 주문했기 때문인 거고, 특 에비동은 일반 에비동보다 사천 원이 더 비싸다는 거. 월세가 싼 방에는 다 이유가 있고, 칠 억짜리 아파트를 받았다면 칠억 원어치의 김장, 설거지, 전 부치기, 그 밖의 종종거림을 평생 갖다 바쳐야 한다는 거.”[27]

이런 대도시인 특유의 계산적 이성은 모든 관계에서 발동한다. 흔히 가장 친밀한 관계라 믿고 있는 부부 간의 결합에서 이 계산적 이성은 극도로 예민하게 발동된다. 화폐 경제 사회에서 거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돈과 자원의 배분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숫자로 환원되어 계산되기 때문이다. 부부 관계에서 나타나는 계산적 이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의 균열을 다룬 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백수린의 ‘아직 집에는 가지 않을래요’를 살펴보자. 이 소설의 화자는 성형외과 의사와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아 기르는 중산층 주부다. 그녀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상위계급에 안락하게 안착한 여성으로 구분지어질 요량이 다분한 여러 요소를 지니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백수린의 이 소설을 따라 읽다보면 독자는 묘하게 어긋나는 화자의 감정선과 불안을 함께 느끼게 된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정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여성의 불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르페브르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은 소득액수로 구분되는 사회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지불방식이나 소득형태)과 소득의 관리 및 그 조직”에 따라 달라진다.[28]

이 소설의 화자는 엄연한 중산층으로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가정 내

27) 장류진, 앞의 책, 28쪽.
28) 앙리 르페브르, 『현대 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옮김, 기파랑, 2010, 9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소득의 관리와 조직에 따라 그녀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느라 매우 지쳐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의 관리에 따라 조직된 일상은 그녀의 역할을 한정 짓는 요소로 매우 강력히 작용한다. 특히 결혼과 출산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에 고립된' 화자는 언제나 같은 일상을 '하나의 의식처럼, 기계적으로 빠르게' 반복하며 살아간다. 이런 일상 속에 고립된 화자가 했던 모든 의사결정은 결국 돈과 시간의 배분에 의한 것이었다.

> 그녀는 운전을 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다. 조금이라도 빨리 그런 집에 살기 위해서라면 일을 그만두지 않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잠깐 들다가도 육아 도우미를 부르는 비용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계속 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되지 않으며 그저 욕심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아이를 낳고 유산을 두 번이나 한 끝에 둘째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남편은 그전부터 그녀가 회사를 그만두길 원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고 나면 일하는 엄마를 둔 아이들은 따돌림을 당한다던데, 아무리 종종거리며 점심시간에 준비물을 사러 다니고, 하루 종일 보고 싶었던 아이를 5분이라도 일찍 보기 위해 환승역에서부터 뛰어봤자 아이와 친정 엄마에게는 언제나 죄인일 뿐이라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이게 들어왔으므로 그녀는 둘째 아이가 생기자마자 퇴사를 결심했다.[29]

이는 경제적 계급과 별개로 움직이는 부부 사이의 거래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미혼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며 살아가는 친구가 주최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자신의 내면에 감금해 두었던 욕망을 발견한다. 이내 그녀의 내면은 강하게 흔들리지만 이미 치밀하게 구성되어버린 자신의 일상 속에 그 욕망은 파묻혀버리고 만다. 결국 '그들의 삶의 각도가 미세하게 어긋났지만' 그건 그녀만 알고 있는 어긋남으로 남게 된다.

정한아의 '고양이 자세를 해주세요'에서는 보다 노골적으로 수로 세어진 결혼과 이혼의 계산식이 표현되어 있다. 이 소설의 화자는 이혼 후의 패배감과 고립감을 요가로 해소해가며 삶을 재배치하고 있다. 화자가 회상하는 결혼과 이혼의 과정은 화폐 경제 아래서 개인과 개인의 결합과 분리가 어떤 식으로

29) 백수린, 「아직 집에는 가지 않을래요」,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현대문학, 2020, 12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일어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경제적 문제가 개입하는 순간 관계는 복잡해진다.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면서 작은 두 자본이 결합하는 과정이다. 그건 그 자체로 경제적 자본 - 돈 - 이기도 하고 여러 사회적 자본이 환산된 또 다른 경제적 자본이기도 하다. 애정을 기반으로 결합하는 부부 관계도 돈으로 환산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투자나 이익, 손해로 계산되기 시작한다. 그 누구도 이 계산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치밀해진다.

> 정작 신혼집은 민수가 사왔다. 그의 어머니가 오래전 사두었던 집을 민수의 명의로 바꿔준 것이었다. 지방에서 제법 규모가 큰 과수원을 운영하는 민수의 어머니는 나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민수보다 내가 세 살 연상인 것도, 붙임성이 없는 것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것도 탐탁지 않아했다. 그래도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인정해주었다.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 당분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 의견에도 동조했다. 아들의 미래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30]

작품 속 부부의 결합은 나이와 정규직 여부, 자가 보유 여부가 더하고 빼져서 성사된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다른 변수가 더해지자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동거 부부가 되기로 한다. 이 모든 수식은 이혼 과정에서 다시 그대로 복기되어 계산된다. 데이비드 하비에 따르면 화폐는 “개인들 사이의 모든 경제관계의 중재자와 조정자”가 된다.”[31] 결혼 과정에서 수많은 수식을 풀어내어 결합한 부부는 아이도 빚도 명의도 공유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결합 덕분에 남자와 여자는 깔끔하게 헤어진다.

> 우리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빚을 대신 지거나 명의를 공유한 일도 없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혼 수속을 밟을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각자 놀이터에 나왔다가 엄마가 불러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처럼 깔끔하게 헤어졌다.[32]

이 작품 속 부부처럼 노골적인 화폐 경제 하의 수식이 아니더라도 모든 부

30) 정한아,「고양이 자세를 해주세요」,『술과 바닐라』, 문학동네, 2021, 147쪽.
31) 데이비드 하비,『도시의 정치경제학』, 초의수 옮김, 한울, 1996, 213쪽.
32) 정한아, 앞의 책, 150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 관계에서는 매일 거래가 이루어진다. 최은미의 '눈으로 만든 사람'에서는 피임시술과 금연을 거래하는 부부의 대화 장면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기실 모든 관계가 명목상 거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 "좋아. 그럼 피임 시술은 내 몸에다 할게. 대신에..."
> "대신에."
> "넌 담배를 끊어."
> "야, 강윤희. 넌 어떻게 이런 걸로 거래를 하려고 해?"
> "너랑 내가 하는 것 중에 거래 아닌 게 있어?"[33]

소설 속 윤희의 말처럼 우리는 모든 관계를 거래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도시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돈에 대해 주목하며 "돈은 사물의 핵심, 구체적인 가치, 독특성, 비교 불가능의 성질들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려낸다. 화폐공동체는 자유, 해방, 평등의 개념과 개인주의로 강하게 특징지어진다. 현대 도시인들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독립적이지만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객관적이며 오직 화폐에 의해서 구체화'된다."고 말했다.[34]

결국 화폐 경제로 재편된 현대 사회에서 자유와 개인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하게 특징지어질 수밖에 없다. 화폐 경제 위에 세워진 대도시에서 인간과 인간의 결합은 매우 헐거워졌다. 이 헐거워진 관계망은 사람들에게 자율성을 주었다. 과거에는 토지와 개인이 결합되어 있었다. 그들은 지주이거나 소작농이거나 자신에게 부여된 토지를 떠나 살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화폐로 모든 것이 환산되기 시작하면서 개인과 토지의 결합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장소에서 해방된 개인은 모든 면에서 점차적으로 자유로워졌다. 모든 것이 수로 환원된 현대 도시인의 계산적 이성이 개인의 내밀한 관계까지 침투되었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이는 결국 도시가 개인에게 부여한 자유와 연관되어 있다.

화폐는 이런 식으로 전근대 사회에서 자신이 속해있던 관계의 속박을 끊

33) 최은미,「눈으로 만든 사람」,『눈으로 만든 사람』, 문학동네, 2021, 114쪽. 이하 각주를 통해 저자, 제목, 쪽수만 표기.
34) 데이비드 하비, 앞의 책, 21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대도시 속에서 이 화폐는 또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결합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신용이다. 과거처럼 서로의 모든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을 위해 서로의 신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비단 화폐 거래로서의 신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도시에서 믿음의 문제로 발전했다. 이제 대도시인들은 '믿음'을 통해 서로에게 문을 열어줘야 하는 사회에서 살게 되었다.

2) 新엔클로저 운동과 출입제한 공동체의 탄생

근래 발표되는 도시인의 일상을 다룬 작품들을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특징이 발견된다. 바로 타인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이다. 이는 특히 자신의 주거지에 타인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주인공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타인을 침입자로 인식하여 극도로 불안해하며 특유의 신경증적 증세를 보인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도시학자 존 레니에 쇼트의 新 엔클로저 운동'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자. 그는 도시인의 근린 관계성을 탐구하며 포스트모던 도시의 중요한 3요소로 '새로운 경관, 新 엔클로저 운동, 새로운 도시문화'를 들었다. 엔클로저는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일어난 공동 경작지 사유화 운동이다. 당시 지주들은 양모 생산을 늘리기 위해 토지에 울타리를 치고 양을 방목했다. 존 레니에 쇼트가 말하는 '新 엔클로저 운동'은 "거주자와 친구 이외에는 문을 걸어 잠그는 '출입제한' 공동체("gated" community)"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발명된 개인비밀경호, 벽, 문, 전기울타리 등은 안전에 대한 관심과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것이다.[35]

이런 모습은 도시 속 여러 건축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호텔이나 주상복합 단지의 경우 대부분 입구를 감추어 보통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한다. 사람들은 이제 보안 시스템과 경비원을 통해 담장을 높이고 거주

35) 존 레니에 쇼트, 앞의 책, 42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의 출입을 내부자로만 제한한다. 도시에 이제 골목길은 없다. 대로를 건너면 바로 비밀번호를 눌러야 출입 가능한 빌딩들이 가득하다. 우리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두 세 개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도시의 많은 공간이 이런 담장 안으로 흡수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많은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제 사람들은 타인을 어느 공간까지 들일 것인지에 대해 '비밀번호'와 '경비원'과 '제도'로 맞서게 되었다. 이는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거리를 안겨주었다. 우리 아파트의 놀이터는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가, 우리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을 가사 노동자에게 개방할 수 있는가, 사유지를 통과해야만 사람들의 이동 거리가 단축된다면 공간을 개방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와 달리 현재는 모든 공간에 진입 여부에 개인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때그때 벨이 울리면 사람들은 선택해야한다. 과연 이 이방인을 나의 공간에 들여도 안전할 것인가?

이는 바우먼도 지적한 바 있는 도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그는 "오늘날의 도시들은 안전보다는 위험과 더 자주 결부되고 있다"고 말했다.[36] 관계의 결속이 끊어지고 모두가 자유로워진 채 마주하게 된 도시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공포의 공간이다. 자동차와 거주지의 문에는 여러 개의 자물쇠가 달려있다. 보안 시스템은 나날이 정교해지고 공공장소에서 감시 시스템은 여러 방식으로 작동한다. 대한민국 곳곳에 촘촘히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사람들이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을 느끼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도시에서 이렇게 인클로저 된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들은 바로 추방된다. 현대 도시는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지만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는 이방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끼리끼리의 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이 출입의 벽이 높은 공간일수록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이는 현대의 부동산 시장에서 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현대의 부동산 시장은 화폐 경제 체제 하에서 건물이나 토지의 가치가 거래되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입장권이 거래되는 시장이기도 하다. 더 나은 이웃에 둘러싸여 있고 이방인이 효율적으로 통제되는 공동체일수록 비싸게 거래된다. 때로는 이 통제를 위해 가격은 비싸지기도 한다. 하지만 도시의 생활은 다원적이다. 이 도시

36) 지그문트 바우먼,『리퀴드 러브』, 새물결, 2013, 245쪽. 이하 각주를 통해 저자, 제목, 쪽수만 표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서 일상을 영위하다보면 아무리 높은 가격에 입장권을 산 공동체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이방인들과의 마주침이나 갈등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

현재 발표되는 많은 작품들은 바로 이 순간에 주목한다. 출입제한 공동체, 인클로저 된 가장 내밀한 공간인 가정의 현관에 어쩔 수 없이 타인을 출입시켜야 하는 순간에 갈등은 폭발한다. 현대 소설 속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갈등은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위해 이런 출입제한 공동체를 어쩔 수 없이 열어야 하는 순간 발생한다. 이 순간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하지만 대도시인의 불안이 극명하게 표출되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열림의 순간에 주로 여성들이 있다.

이런 갈등 상황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차례로 살펴보자. 먼저 살펴볼 장류진의 '도움의 손길'에는 남편과 맞벌이 중인 여성이 등장한다. 그녀는 대출이 많이 있지만 '내 집'이 된 공간에 강한 애착을 느끼고 있다. 그 공간을 살뜰히 관리하고자 부족한 시간을 도우미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맞벌이 가정이지만 집이라는 공간을 관리하는 노동은 모두 화자의 일이다. 이는 현대의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는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많아졌지만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여전히 높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이 비해 많은 편이다. 아직도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6년 30~50대 여성 취업자 수는 639만 명으로 2000년(547만 명)보다 약 16.8% 증가했으나, 워킹우먼 시대에도 여전히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많고 남편의 가사분담은 적은 편이다. 맞벌이 주부와 남편의 수입노동 시간을 각각 합해도 각각 8시간 42분과 7시간 6분으로 맞벌이 주부가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취학자녀가 있는 취업주부는 평일에 9시간 50분이나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 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3분으로 맞벌이 가구 남편과 비교해서 불과 1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37]

37)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 연구회,『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8, 342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소설의 화자 또한 가사 노동자를 관리 감독하는 일만으로 휴가를 사용하거나 감정적 노동을 수행한다. 이 수고로움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다.

>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서재에 틀어박혀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나이가 지긋한, 그것도 생전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내 집에서 내 살림살이들을 땀 흘리며 청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편치 않았다. 그러면서도 청소를 충분히 깨끗하게 잘해줄지, 내가 신경 쓴 인테리어를 실수로 더럽히거나 망가트리는 건 아닐지 하는 걱정 때문에 안절부절못했다. 나는 청소를 끝낸 도우미 아주머니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옷장 밑에 손을 넣어보거나 서랍장 손잡이 위를 훑어보거나 했다. .... 매주 새로운 가사도우미를 불러다놓고 신경 쓰느라 평일 오프를 세 번이나 날리자 나는 왜 돈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을까, 하는 자괴감에 빠졌다.[38]

이 작품의 화자처럼 여성도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무직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자녀가 적은 경향이 있다. 부부가 모두 소득원인 이런 가구는 통근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집안일을 시장 서비스로 대체하는 전략을 택한다. 집안일을 시장 서비스로 대체하는 경우 고용 계약이 체결되고 이방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계약과 만남의 주체는 주로 여성들이다.

가사 노동은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노동이다. 자신의 집에서 수행하는 가사노동은 무보수 노동이다. 하지만 그가 다른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수행한다면 그 노동의 가치는 GDP 산정에 포함되며 임금도 지급된다. 경제학자인 피구는 “한 남자가 그의 가정부와 결혼하면 국내총생산이 감소한다”고 말하며 이 점을 정확히 지적했다.[39]

이런 특성은 가사 노동이 여성들의 책임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특징과 결합하여 여성의 노동력이 낮은 임금수준으로 노동력으로 재편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는 계급을 가리지 않는다.

---

38) 장류진,「도움의 손길」,앞의 책, 133쪽.
39) 캐슬린 린치 외,『정동적 평등-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강순원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6, 41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시사회학자 팔(Pahl)은 가구소득이 '사회계급의 차이'보다는 주로 '소득원 수'에 의존함을 주장했다. 그는 "가사노동의 분배에 있어 계급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이가 있을 때 여성은 가장 불평등하게 가사노동을 분담 받는다.[40]

'도움의 손길'의 작중 화자는 이 점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녀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화자는 아이를 '그랜드 피아노'로 여기는 사람이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아주 고귀한 소리가 날 것'이고, '너무 매혹된 나머지 그 소리를 알기 이전의 내가 가엾다는 착각까지 하게 될지 모르는' 존재가 될 것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어른,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그걸 놓을 충분한 공간이 주어져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성적인 인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의 '출입제한 공동체'에 들어온 가사도우미는 대도시인 특유의 계산적 이성이 화자만큼 발달하지 못했고 집주인인 그녀와 거리두기에 실패한다.

> "근데, 애는 왜 아직 없어?"
> 당황스러웠지만 자주 듣는 질문이라 내색하지는 않았다.[41]

지그문트 바우먼은 "가족을 이루는 것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미지의 바다로 무턱대고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려면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고, 미지의 것이며, 예견 불가능한 어떤 매력적인 것을 소비할 수 있는 다른 유혹적인 즐거움을 박탈당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아마 이것 자체가 신중한 소비자의 습관에는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희생일 것이다."고 말했다.[42]

현대 도시인들이 과거에 비해 아이를 적게 낳는 데는 복합적인 여러 이유가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로서 인생을 선택하는 주체적 개인으로서의 자아가 발동한 측면이 크다. 작품 속 화자는 신중한 소비자로서 자신이 내린 결정을 자신과 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이일 뿐인 이방인이 마음대로 판단하는 상황이 불편하다. '서재에 성경책이 있길래 교회에 다니는 줄 알았다'며 개인적인 참견을 하기 시작하는 도우미를 더 이

40) 마이크 새비지·알랜 와드, 앞의 책, 119쪽.
41) 장류진, 앞의 책, 136쪽.
42) 지그문트 바우먼, 『리퀴드 러브』, 115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상 견디기 힘들어진 화자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계약관계로만 둘 사이를 명확히 하기로 한다.

> 더는 새 아주머니를 불러서 안절부절못하며 네 시간을 기다리고, 확인하고 하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이 아주머니는 말 그대로 프로였고 청소만 잘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43)

화폐는 건조하게 '교환 가치'만을 따진다. 과거 사람들 사이에 정서적으로 맺어졌을 관계는 화폐가 개입하는 순간 무척 건조하고 객관적으로 변한다. 과거라면 한 마을의 이웃 주민이 집안일을 거들어주었을 것이고 그들은 집안의 모든 살림과 관계에 참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화폐가 교환되는 관계가 되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결과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 "대도시인이 배달원이나 고객, 심부름꾼, 혹은 의무적 인간관계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44)

이 소설의 화자 또한 '청소'라는 결과물에만 집중하고 싶지만 도우미 아주머니는 그렇지 않다. 급기야 내년에 아이를 가지라고 말하는 도우미 아주머니의 말에 그녀는 집 근처 카페로 피신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어쩔 수 없이 출입제한 공동체에 그녀를 들이기는 했지만 도우미와 마주치지 않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 집 근처 까페로 피신했다. 다음부터는 문만 열어주고 까페에 나와 있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나쁜 의도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닐 것이다. 그 세대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가치일 테니까. 45)

화자는 도우미의 발화를 선해하려고 노력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과거에 습득한 가치는 언제나 현재의 것과 충돌한다. 과거에는 의미와 정체성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태생적인 조건이 곧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이 소설의 화자 또한 나이 지긋한 도

43) 장류진, 앞의 책, 137쪽.
44) 게오르그 짐멜,『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38쪽.
45) 장류진, 앞의 책, 142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우미가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온 방식으로 화자의 정체성을 구현하려고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 특히 압축성장을 이루어 온 한국 현대 사회에서는 여전히 과거에 정체성을 만들어 온 방식으로 삶을 구현하는 사람들과 액체 근대[46]의 특성을 습득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러한 갈등이 산재하다.

현대 사회에서 출입제한 공동체에 대한 갈등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난다. 김유담의 작품 '대추'를 살펴보자. 이 작품에 등장하는 외할머니는 오랜 기간 투병중이다. 할머니는 과거 자신의 마을에서 대추나무 집으로 통했던 자신의 집 마당 한 편에 자라던 대추나무에서 열린 대추를 맛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집은 외삼촌의 사업 실패로 이미 남의 집이 되었다. 그런 남편의 죄를 속죄하듯 외숙모가 외할머니의 병간호를 전담하고 있다.

> 외숙모는 할머니 병간호 때문에 마트 캐셔 일을 그만뒀고, 1년 내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할머니를 챙기느라 엄마도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었다. 보다 못한 내가 석이는 지금 학교 운동장에서 농구하는 중이라 전화를 못 받을 거라고 말했다. 내 말에 외숙모는 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47]

고모가 사온 대추를 먹더니 '떫은 맛'이 난다고, '저런 건 대추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할머니를 보던 조카 영석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 대추를 좀 얻어오려고 한다. 작중 화자는 '정말 갈 생각이냐' 여러 번 물었는데 영석은 '오히려 안 줄 이유는 뭐냐'고 되물었다. 영석이 '다 죽어 가는 사람이 대추 몇 알 먹고 싶다고 부탁하는데 거절하면 그게 사람이겠냐'고 꾸짖듯 말하자 화자는 그를 따라 그 집으로 간다.

> 열 번도 넘게 초인종을 누른 끝에 집주인이 나왔다. 파리한 인상의 집주인 여자는 대문을 열어 놓고 서서 영석의 말을 한참 경청했다. … 여자는

46) 바우먼이 고안해 낸 개념으로 '모든 견고한 것들이 녹여버리는' 근대의 징후를 뜻한다. 바우만은 개인의 해방과 자아실현, 시공간의 문제, 일과 공동체라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액체화' 되었다고 진단했다. 유동적 근대성의 시대인 현재까지도 계속 녹고 있는 중인 견고한 것은 바로 개인의 선택들을 집단적 기획들이나 행동들과 연결시켜주던 유대관계들이다. 근대성의 '녹이는 힘'은 현재에도 재분배되고 재할당되고 있다.

47) 김유담,「대추」,『돌보는 마음』, 민음사, 2022, 14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중간 중간 고개를 끄덕였고, 영석이 웃을 때 희미하게 따라 웃기까지 했다. 여자는 우리를 이해한다고 했고, 영석이 너무 기특하다고도 했다. 일이 쉽게 풀리려나 했지만 마지막에 여자는 우리를 집에 들일 수는 없다고 매몰차게 거절했다.

"미안해요. 지금 이 집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낯선 사람들을 들이기가 썩 내키지 않네요. 솔직히 시장에 가면 널린 게 대추인데 꼭 저 대추여야 한다는 말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48]

집주인 여자는 자신의 '출입제한 공동체'에 그들을 들이지 않는다. 여자는 분명 영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희미하게 웃기까지' 했지만 그들을 집에 들일 생각도, 대추를 내어줄 생각도 없다. 집주인 여자의 행동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소설을 따라 읽다보면 그녀의 행동이 야속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현대인 누구나 그녀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처음 본 낯선 이를 자신의 집에 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집에 들여야 하는 선택의 순간에 그녀의 내면은 무척이나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보여준 이러한 행동은 도시인의 전형적인 '속내 감추기'라고 볼 수 있다.

짐멜은 "도시인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무수한 만남에 대해 매번 '내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면 사람들은 내적으로 완전히 해체되어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49]

대도시에서 우리는 언제나 불안하다. 매일같이 마주치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도시인 특유의 '속내 감추기'의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간다. 집주인 여자에게 화자와 영석은 이방인이다. 이방인들은 갑자기 등장해서 갑자기 사라진다. 이방인과의 만남은 "단 한 번으로 그치는, '다음 편에 계속'되지 않는 이야기, 바로 그 현장에서 지체 없이 완결되는 이야기"다.[50]

도시에서는 이런 만남이 가득하다. 때문에 사람들은 예의라는 가면을 쓰고 언제나 상황을 주시한다. 도시에서는 사람들에게 가면을 벗어버리고 속내를

48) 김유담, 앞의 책, 20쪽.
49) 게오르그 짐멜,『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43쪽.
50) 지그문트 바우먼,『액체근대』, 이일수 옮김, 강, 2009, 155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현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 요구에 사람들은 쉽게 불쾌해진다. 집주인 여자의 태도는 공공의 가면을 착용하고 이방인을 대하는 전형적인 도시인의 자세다.

> "내가 이 집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추를 맡겨 놓은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고. 씨발 그게 무슨 뜻이냐?"[51]

영석의 입을 통해 나온 여자의 말은 대도시의 '신 인클로저 운동'의 특성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과거 이 집에 살았다는 사실은 현재 이 집의 소유권과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영석 또한 그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추를 얻으려 했던 이유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대추를 기분 좋게 드시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염원 때문이었음을 밝힌다. 현대인들은 가족에게서 분리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더 이상 자신의 혈통이나 가족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촌스러운 행위로 인식된다. 과거의 사람인 외할머니는 자신의 친손주라는 이유로 영석을 매우 아끼지만 영석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족에게서 찾지 않는다.

> "나는 가족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런 뜻이다. 나를 당신네 중 하나로 취급하지 말라, 나는 항상 나의 자유를 수호하기를 원한다, 내게 이건 독특하기 위한, 타자이기 위한 조건인 동시에 타자들의 독특성 및 타자성과의 관계 안으로 진입하기 위한 조건이다. 가족의 일원일 때 우리는 군집 안에서 스스로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타자들 [역시] 상실한다. 이때 타자들은 그저 가족 내에서의 자리들, 기능들이 되어버린다. 하나의 집단, 학파, 국민을 구성하는, 혹은 동일한 언어로 말하는 주체들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유기체적 총체 안에 있는 자리들이나 기능이 되는 것이다.[52]

인용문처럼 이제 사람들은 가족을 떠나 항상 '자신의 자유를 수호'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과거에 개인의 정체성을 구현했던 가족, 친족은 현대 도시에서 어떤 모습일까? 이미 신 인클로저를 구축한 도시인들이 타인에 갖는 두

51) 김유담, 앞의 책, 20쪽.
52) 자크 데리다·마우리치오 페라리스,『비밀의 취향』, 김민호 옮김, 이학사, 2022, 51쪽. 이하 각주를 통해 저자, 제목, 쪽수만 표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려움은 비단 근린 이웃 뿐 아니라 친족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더 이상 집성촌에 모여 살지 않는 현대 도시인들에게 친족은 때때로 이웃보다 멀고 두려운 존재다.

최은미의 '창 너머 겨울'에는 친족에게 느끼는 이런 두려움으로 인한 갈등이 직접적으로 폭로되고 있다. 이 소설의 화자는 사촌인 규의 처를 처음 본 날 '립스틱도 묻어나지 않고 흙도 묻어나지 않는 여자'라는 첫인상을 받는다. 사촌의 처이지만 그녀에게 에로틱한 감정을 느끼고는 오랫동안 그녀를 형수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그의 이런 감정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형수는 그를 불쾌하게 생각한다. 형수는 딸을 낳고 시가에 올 때마다 화자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에게 묘하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 형수에게 시가가 있는 소도시는 고체 근대이자 전근대 사회다. 문명화되지 않은 발화가 난무하고 거리두기는 실현되지 않는다. 형수는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경증적으로 대응한다. 형수는 딸의 생식기에 락스를 풀어 씻기라는 큰어머니의 말에 '납치범한테서 아이를 낚아채듯' 아이를 빼가기도 한다.

> 어머니를 바라보는 형수의 눈빛에서 한순간 혐오가 지나갔다. 큰 소리는 오가지 않았다. 형수는 아이에게 휴대폰을 쥐여 주고 한쪽에 앉힌 뒤 일을 서둘러 마무리했다. 작은어머니는 겪을 만큼 겪었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아무 말이 없었다.[53]

갈등은 계속된다. 형수의 딸을 데리고 비닐하우스로 놀러가려는 화자를 보고 사촌형 부부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느낀다. 형수가 사촌형에게 턱짓으로 자신을 따라가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가 그대로 행동하자 화자는 매우 불쾌해한다. 어떻게 '가족'을 두려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가족'의 행동의 진위를 의심하는가? 하지만 둘의 말다툼 후에 '집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는 규의 반문은 이제는 가족, 친지 사이에서도 거리설정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는 현실을 반증한다.

> "뭐냐 이거?"

53) 최은미,「창 너머 겨울」,『목련정전』, 문학과지성사, 2015, 31쪽. 이하 각주를 통해 저자, 제목, 쪽수만 표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는 정색을 하고 물었다.

“애가 아직 어리잖아. 쉬 마렵다고 할 수도 있고.. 너 괜히 번거로울 수도 있고..”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무슨 뜻이냐고. 내가 애한테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요새 딸 가진 엄마들 다 저래. 친아빠 말고는 누구하고도 둘만 있게는 안 한다고. 너도 뉴스 보잖아. 요즘 흉흉한 일이 한두 가지냐.”

“아아아아아아, 진짜.”

“형수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집사람이 뭐. 집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데.”[54]

짐멜은 “대도시에서 대항하는 도시인들의 자기 보존 과정에서 의도적인 속내 감추기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외적으로 속내를 감추는 태도 속에는 냉담함 뿐만 아니라 상호 적대감과 반발심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심적 상태는 어떤 계기에서든 가깝게 접촉하는 순간 당장 증오와 투쟁으로 번질 수 있다.”[55]

이 작품 속 형수는 화자와 가까이 접촉하는 순간마다 대도시인 특유의 적대감을 느꼈고 이는 자신의 어린 딸과 화자의 관계까지 확장된다. 가족에 대한 이런 특유의 두려움은 최은미의 다른 소설 ‘눈으로 만든 사람’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오래전 자신을 성추행한 작은 아버지, 강중식의 아들을 당분간 맡게 되면서 자신의 딸이 자신이 당한 것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화자인 강윤희는 이 불안으로 인해 신경증적인 반응을 여러 번 보인다. 강윤희의 주변인들은 그녀의 이런 신경증을 이해하지 못한다. 강윤희는 내분비내과에 딸을 데려가 소변검사와 피검사를 하고, 성장판 검사를 하고, 성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하기까지 한다. 딸의 급격한 성장이 ‘인위적인 사료를 먹고 자란 소와 돼지와 닭’ 때문이라 여겨 식단까지 엄격하게 제한하게 된다. 그리고 그녀의 신경증은 조카인 민서에게까지 확장된다.

54) 최은미, 『목련정전』, 35쪽.
55) 게오르그 짐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4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저 둘만 두고 나가자고?"
"....."
"가슴이 나오기 시작하는 아홉 살 여자애를 열여섯 살 남자애랑 같이?"
"너 왜 그래 또."
"은호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며칠 동안 계속 봤는데 말이야. 민서가 자꾸 우리 아영이 가슴을 쳐다보는 것 같아. 초경지연탕을 먹는데도 아영이 가슴 멍울이 안 없어져. 불안해 죽겠어. 우리 그냥 주사 맞힐까?"
"그만해. 그동안 처남 지켜보고도 몰라?"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56]

최은미의 작품에서는 유독 가정 안에 고립된 여성이 많이 등장한다. 유자녀 기혼 여성인 이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신과 관계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특유의 신경증적 태도를 보인다. 가정에 묶여 기동성이 제한된 그들은 끊임없이 사회적 연대를 욕망하면서도 이방인을 두려워하고 철저한 거리두기를 실현하고자 한다. 도시인으로 살아오며 이미 맛 본 자유를 갈망하지만 외부의 공간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가정에 속박된 그들의 욕망은 끝없이 유예되고 그 욕망은 자신을 투영한 듯 다른 여성을 향해 깊은 친밀감이나 집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갈 곳 잃은 최은미 소설 속 그녀들의 욕구는 현대 사회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도시인들의 신경증, 특히 가정에 고립된, '이미 자유를 맛본 적'이 있는 여성들의 신경증이다.

3) 거리두기와 신경과민

현대인의 일상생활은 주변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으로 구성된다. 전통사회에서는 만남도 없고 이별도 없었다. 전통사회에서 직업의 터전과 삶의 터전은 일치했다. 매일 만나고 매일 헤어지는 삶은 산업혁명 이후 주거와 직장이 분리되면서 나타난 일상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는 화폐

56) 최은미,「눈으로 만든 사람」,『눈으로 만든 사람』, 11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경제로 인해 탄생한 새로운 인간관계의 양상을 발현시켰다. 이제 우리는 매일 이별하고 매일 만난다. 과거에는 이별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외부세계와 교류가 없었던 부족 사회에서는 '이방인'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가족과의 이별은 죽음 이외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화폐 경제는 인간들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고 이는 무엇보다도 가족에 대한 각 구성원의 의존도를 급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장희원의 '우리의 환대'는 이렇게 해체된 가족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서울을 떠나 호주 퍼스에서 살아가는 20대 아들을 낯설게 바라보는 부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 가정이다. 아들이 어린 시절에는 해외여행을 다니며 아들이 좋아하는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직관할 만큼 관계가 좋았던 이들은 어느 순간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멀어졌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포르노를 보는 것 같다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웃었지만 그것이 동성애 영상물인 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더러운 놈"이라며 아들을 비난한다. 그 후로도 가족은 여느 때처럼 지냈지만 가족은 그때 생긴 묘한 균열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아들은 결국 스물일곱이 되어서 멀쩡한 한국의 대학을 그만두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받아주는' 호주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부유하는 삶을 살고 있다. 아들은 대한민국 중산층으로 완전히 안착한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호주에서 아들의 집을 찾아간 부부는 아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맞닥뜨리자 매우 당황한다. 아버지는 아들이 당연히 '또래 남학생과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 번도 아들에게 흑인 노인과 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 부부는 아시아계 젊은 남자와 흑인 노인, 젊은 아시아계 여자가 함께 사는 그들의 동거를 매우 낯설게 받아들인다. 성별과 인종과 나이가 제각각인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새로운 공동체는 중년의 부부에게 낯설기만 하다.

> 그러니까, 이 집에는 아들과 흑인 노인, 어린 여자애가 함께 사는 셈이었다. 재현과 아내는 입을 꾹 다물었다. 아내는 아들이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오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민영에게 옆자리를 내주며 앉으라고 권했다. 민영은 다리가 저리는지 가느다란 다리를 쭉 뻗었다. 허벅지에 있는 문신이 또렷하게 보였다.
>
> "저기…… 어쩌다 이렇게 같이 살게 됐니?"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내가 주저하면서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민영의 대답이 들렸다.

"진짜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옛날부터 함께 살았던 것 같아서 오히려 같이 있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거 같은데."[57]

부부의 당황스러움과 별개로 아들과 함께 사는 여자 아이인 민영은 그들의 동거가 '아주 옛날부터 함께 살았던 것 같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은 과거처럼 주어진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다. "오늘날 가족은 개인의 선택과 라이프스타일, 일상적 삶의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현실의 가족은 한 사회의 구체적인 사회·문화 및 일상적 맥락에서 싹트는 사회적 실재다."[58] 낯선 도시, 낯선 공간, 낯선 이들과 함께 있는 아들과 부모의 대화는 겉 돌기만 한다. 거기에 아들이 고등학생 때 본 영상의 실체를 알고 있는 아버지는 흑인 노인과 아들 사이에 흐르는 어떤 기류를 참을 수 없다.

노인도 걱정스러운 듯 민영의 어깨를 짚었던 손을 가져와 양손 모두 영재의 어깨 위에 올렸다. 그러고는 영재의 목을 좀 더 자신의 품안으로 가까이 끌어안았다.

"아."

그는 참지 못하고 입안에 있던 것들을 뱉어버렸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다.[59]

영재의 아버지는 여전히 과거 자신이 획득한 윤리규범으로 아들을 판단하고 있다. 영재 또한 아버지의 편견이 그대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서울을 떠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동이 자유로워진 현대사회에서 소수자로 낙인 찍혀진 사람들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도시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의 대도시인들은 소소한 편견에서 자유롭다. 사회적 낙인이 찍힌 사람들일수록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 모여든다.

57) 장희원,「우리의 환대」,『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20, 318쪽.
58)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 연구회, 앞의 책, 333쪽.
59) 장희원, 앞의 책, 324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절대적으로 과밀한 인구수가 있어야만 확장될 수 있는 관념이 있다. 사람들은 거대 도시에서 쓸쓸함을 느끼지만 그것은 자유의 이면일 뿐이다.

대도시는 자유의 본거지다. 이는 행정 구역의 크기나 인구 수 때문만은 아니다. 물리적인 도시의 범위가 확장되면 정신적인 관념적인 행정권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이는 다음 단계에서 '그보다 더 큰 크기로 확장'되는 발판이 된다.[60]

이런 확장은 여러 발전과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진행된다. 단순히 인구가 많다고 해서 관념적 행정권이 더 확장된 도시는 아니다. 서울은 인구 천만이 거주하는 메트로폴리스지만 압축 성장을 한 대한민국의 부작용을 그대로 안고 있는 도시이기에 이미 그 단계를 오랜 시간에 걸쳐 지나오며 많은 갈등을 해소해 온 여타 다른 도시만큼 자유가 보장되는 도시는 아닐 수 있다. 유교적 관습이 아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서울은 동성애라는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견디기 힘든 공간일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런 물리적 공간을 극복할 가능성이 매우 적었다. 사람들은 태어난 공간에서 주어진 삶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과거 촌락의 삶은 개인에게 이동을 제한했고 자신이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신분과 가족과 삶의 터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들에게 현대인과 같은 내면을 발전시킬 기회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사람들은 현대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인은 과거와 같은 제한 속에서는 숨도 쉴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대도시인은 작은 도시에 가게 되면 비슷한 종류의 답답함을 느낀다. "우리의 환경에 속하는 집단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다른 집단들과의 관계에서 경계가 해체될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집단은 더욱더 치밀하게 개인의 업적들, 생활양식 및 사고들을 감시하게 되고, 어떠한 양적, 질적 변종도 전체의 틀을 깨뜨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61]

작품 속 영재는 퍼스로 와서 '자유'를 획득했다. 자신에게 장소를 내어주고 환대해준 이들을 새로운 도시에서 만나게 되었다. '자신의 존재를 표출하는 실제적 공간'을 찾았고, 그것이 한국에서 중산층 부부의 자녀로 살아가는 안

60) 게오르그 짐멜,『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47쪽.
61) 게오르그 짐멜,『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45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락함을 포기하고 그곳의 삶을 선택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소설의 후반부에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도저히 묵을 수 없다고 느낀 부부가 호텔로 이동할 때, 그들 부부는 영재에게 '손님'처럼 배웅을 받게 된다. 부부는 아들에게 주기 위해 한국에서부터 챙겨온 상자도 미처 건네주지 못했음을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깨닫는다. 상자는 그들 부부가 아들에게 건네려던 어떤 기존의 질서였지만 아들에게 그것은 가닿지 못한다.

> 그는 아내와 자신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서부터 가져온 상자였다. 미처 그것을 전해주지 못한 것이다. 상자는 먼지를 잔뜩 뒤집어쓴 채 그 자리에 있었다. 아내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잠시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 아내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운전기사가 힐끗 뒤를 돌아봤다. 그는 아내가 본능적으로, 이제 영원히 아들을 잃었음을, 자신들이 도저히 좁히지 못할 어떤 경계선을 기어이 넘어버렸음을 깨닫는 중이라고 여겼다.[62]

부부는 퍼스에 와서 자신들이 믿고 살아온 가치와 기준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전통적인 가족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조합으로 구성된 공동체, 이질감이 느껴지는 식재료, 집 안의 모든 풍경이 부부에게는 낯설게 포착된다. 부부는 아들을 '영원히 잃었음'을 직감한다.

현대 도시에서 가족은 전통적 접근 및 제도적 차원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현실로 존재한다. 이는 도시화로 인한 가족의 해체와도 연관이 있다. 양성의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보편적인' 가족제도는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다. 최근에는 가족의 개념이 매우 다양해졌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닌 파트너나 동거 관계, 생애 한 시기에만 존재하는 동반자 관계, 독신, 동성 커플 등 매우 유연한 형태와 내용을 띠고 있다.[63]

장희원의 '우리의 환대'에 나타나는 영재의 공동체는 이런 의미에서 기존의 혈연 기반의 가족을 벗어나 영재가 새롭게 꾸린 가정이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권위적인 가부장 아래 공식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방식에서 따뜻한 위로를 주고받고 한 시기의 인생을 함께하는 자기만족의 공간으로 재해석되고

62) 장희원, 앞의 책, 325쪽.
63)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 연구회, 앞의 책, 334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현경의 '사람, 장소, 환대'에 소개된 로마시대 노예 제도의 사례를 살펴보자.

> 우리는 벌거벗은 생명으로 이 세상에 왔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를 맞이한 사람들로부터 받았다. 환대는 사회 안에 자리를 마련해주는 행위이고, 그런 의미에서 환대에 보답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만일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준 것을 모두 빚으로 계산하고, 완전한 청산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고대 로마에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노예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였다. 유기된 아이를 데려다 키운 사람은 그 아이를 종으로 부리든지 내다 팔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버려졌을 때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는 생각이 이러한 관행을 정당화하였다.[64]
>
> 그러나 이것은 증여의 논리이지 환대의 논리가 아니다. 환대라는 관점에서 보면, 버림받은 아이는 목숨을 건진 뒤에도 사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를 구조한 노예 상인은 그의 죽음을 유예했을 뿐, 그를 환대한 게 아니다. 부모는 아이가 자기들로부터 나왔고, 한때 자기들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잊어야 한다. 부모는 무엇보다 아이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 자기들이고, 그들이 아이를 죽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야 한다.[65]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부모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 채 환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죽음을 유예한 로마의 노예 상인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노예는 주인이 자유를 주지 않으면 평생 노예 상태를 유지해야 했지만 현대사회는 다르다. 그들은 속박을 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데리다에 따르면 우리는 "자식에도 작품에도 서명할 수가 없다. 아비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아비가 아니라는 사실의 체험이다. 자식이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자식이란 스스로에게 응답하는 존재이고 전적으로 홀로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66] 이 작품의 부모 또한 자식에게 서명할 수 없다는, 자신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체

64) 김현경, 앞의 책, 216쪽.
65) 김현경, 앞의 책, 217쪽.
66) 자크 데리다·마우리치오 페라리스,『비밀의 취향』, 55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험하는 그런 경험을 '퍼스'라는 도시에서 경험하게 된다.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마주할 기회나 도구가 별로 없었다. "먼 곳에서 벌어지는 인간이 고통당하는 장면에 노출되는 일도 거의 없었다. 우리 조상들이 직면했던 도덕적 선택 전체는 직접성, 즉 얼굴과 얼굴을 맞댄 만남과 상호작용이라는 좁은 공간에 거의 완전히 갇혀 있었다"고 할 수 있다.[67] 과거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익숙한 얼굴만 마주했고 그들이 겪는 고통은 모두가 아는 고통이었다. 얼핏 평온해 보이는 이런 사회에서 타인과 다른 특수성을 가진 인간들은 자신들의 스티그마를 영원히 숨기고 살아가야 했다. '우리의 환대'의 영재가 과거에 살았다면 그는 자신의 스티그마를 영원히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 도시에 거주하는 영재는 좁은 공간을 벗어나 '강요될 수 없는 자신의 특성'을 인정해주는 곳으로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가족관계는 해체되었지만 그는 '자유'를 얻었다.

소도시를 떠난 개인은 대도시에서 자유를 얻기도 했지만 부작용도 발생했다. 짐멜은 이를 대도시인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경과민'으로 보았다. 도시인은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다. "우리의 의식은 인상들이 고정된 경우보다 급속도로 이미지들이 교체되면서 밀려오거나 예기치 못한 경우에 큰 부담을 갖는다."[68] 도시에서는 매일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진다. 수많은 이미지가 범람하고 다양한 자극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쉬지 않고 마주해야 하는 내적, 외적인 자극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신경과민에 시달리게 된다.

본고에서 살펴보는 대다수의 작품들에서 도시인 특유의 과민한 신경과민이 드러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최은미의 작품들에서도 친족들에게까지 날카롭게 발현하는 등장인물의 신경증은 가까운 주변인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정화의 작품 '구두'에서도 도시인 특유의 과민한 신경증이 극도로 표출된 화자가 등장한다. 이 소설의 화자는 가사도우미 면접을 보러 온 여자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하는 근원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 어째서 바보처럼 그 여자에게 "어서 들어오세요."라고 한 걸까요?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요.[69]

67) 지그문트 바우먼, 『리퀴드 러브』, 220쪽.
68) 게오르그 짐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36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사노동을 위임하기 위해 출입제한 공동체를 열었지만 그 공동체에 이방인이 들어오자마자 화자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 '서로의 과거를 공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 거주하는 현대인은 집 안까지 들어오게 된 이방인을 본능적으로 침입자로 인식하게 된다. 처음 본 그들이 언제 자신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현대인은 시달린다. '구두'의 화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불안감을 느낀다. 바로 가족 내 '여성'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 그 여자는 마치 내 집을, 우리 집을, 내 남편과 내 아이와 나의 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웃음을 지을 리 없지요. 네, 바로 그 미소가 "여기는 이제 내 집이고, 지금부터 나는 네가 될 수 있어." 하고 말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그 말이었어요. 소리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난 정확히 알 수 있었지요.
>
> …
>
> "전화로 얘기를 들으셨다시피, 제가 삼 주간 집을 비우는 동안 집안일을 맡아 주시면 됩니다. 청소랑 세탁, 식사를 챙기고, 아이들 과제를 좀 봐주시는 정도니 일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
> …
>
> 거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막내에게 이름과 나이를 묻고 있었어요. 물론 아이는 순순히 답했고요.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막내의 볼을 쓰다듬거나 자기 무릎 위에 앉혀 놓았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안절부절 못하겠더군요..... 저는 죄책감과 함께 묘한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그건 여자 쪽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70]

퇴근한 남편이 여자에게 저녁식사를 하고 갈 것을 제안하자 화자는 당황한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묘한 경험이다. 함께 먹는 행위로 인해 우리는 이방인과 친구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식사는 과거에도 같은 의미였다. "고대 셈족에게 식사를 하는 것은 신의 식탁에 공동으로 참석해서 형제의 관계를 맺음을 의미했다. 아랍인에게는 공동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심지어 철천

69) 최정화,「구두」,『지극히 내성적인』, 창비, 2016, 8쪽
70) 최정화, 앞의 책, 10-2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원수를 친구로 바꾸기도 하는, 엄청나게 커다란 사회화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일이었다. 공동 식사는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사건을 사회적 상호 작용의 영역과 초개인적 의미의 영역으로 고양시킨다."[71] 가사노동자와 식사를 함께 하는 행위는 그들의 관계를 임노동 계약이 아니라 개인적 영역으로 끌고 오게 된다.

> 내가 사라지면 여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테니까요. 자신의 불행한 과거는 잊고 내 행세를 하면서...[72]
>
> …
>
> 여자가 명랑하게 답하고 나서, 남편을 보고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식탁보 밑으로 여자의 손이 남편의 무릎을 쥐고 있는 장면이 떠올라 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대화 속에서 식사가 끝나갈 때 즈음, 막내가 밥을 한 그릇 더 달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자기 집 주방이라도 되는 양 솥에서 밥을 퍼다 주었습니다. 여자가 우리 집 식기를 만지는 것도 싫었지만 무엇보다 식사 시간이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 지금 주방에서 내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저 여자는 누구일까.[73]

면접을 마친 화자는 한참 후 현관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여자의 구두가 그곳에 그대로 있다는 환상에 빠진 것이다. 이 작품은 환상적인 설정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이방인의 존재를 그리고 있다.

바우먼에 따르면 우리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려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믿음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 믿음은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을 괴롭혀왔다. 과거에는 악마, 악몽, 도깨비, 마녀나 빨갱이 같은 것들이 그런 믿음 속에 탄생한 괴물들이었다."[74] 지성화된 현대인들은 더 이상 이런 괴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은 도시에서 마주치는 처음 본 이방인들이다.

---

71) 게오르그 짐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143쪽.
72) 최정화, 앞의 책, 16쪽.
73) 최정화, 앞의 책, 19-20쪽.
74) 지그문트 바우먼, 『액체근대』, 152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여자의 구두가 거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구두는 어제 저녁 여자가 벗어 놓은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구두를 탐낸 거라면, 그래서 바꿔 신고 간 것뿐이라면 그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고작 구두 한 켤레쯤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여자가, 자기가 나인 줄로 착각하고 내 구두를 신고 갔다는 생각 말이에요.[75]

지그문트 바우먼에 따르면 현대는 '매우 액화된 상태'다. 이 액화된 사회에서 개인은 자유로워졌지만 대신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들의 불안은 근원을 알 수 없는 불안이다. '구두'의 화자가 느끼는 '가사 노동자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거라는 불안'은 어떤 근거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녀를 덮쳤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은 치료할 수 없다. 현대인이 느끼는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는 공포'는 그 정체를 알 수 없기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

바우만은 "공포가 가장 무서울 때는 그것이 불분명할 때"라고 말했다.[76] "요컨대 현대인은 자유를 얻은 대신 공포로 점철된 삶을 살게 되었다."[77]

최정화의 '구두'는 액화된 근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가사 노동자와 접촉하면서 '근원을 알 수 없는 공포'와 마주하는 순간을 다룬 작품이다. 현대인이 인클로저 된 자신의 공간의 문을 타인에게 활짝 열게 되는 순간은 가사 노동을 위임할 때와 육아를 위임해야 할 때다. 여성 작가가 대두되고 현대인의 일상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생산되면서 육아를 하는 여성의 삶을 조망한 작품이 많아지는 추세다. 이런 작품들 속에도 이러한 공포를 근간으로 한 갈등이 자주 다뤄진다. 손보미의 '임시교사'를 살펴보자. 이 작품에 등장하는 P부인은 한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아이의 엄마는 프랑스에서 예술사를 공부하고 직업을 갖기도 했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을 이어가지는 못했다. 인턴직이지만 미술관에 취직하게 된 그녀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P부인이 채용된다. P부인은 '정식'교사는 아니었지만 20여 년 간 여러 학교에서 임시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이 경력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P부인의 일은 오후 두시쯤 아이를 데려와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

75) 최정화, 앞의 책, 26쪽.
76) 지그문트 바우먼,『유동하는 공포』, 함규진 옮김, 웅진씽크빅, 2009, 12쪽.
77) 김욱진,『공동체, 한국학술정보, 2020, 746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를 돌보는 것이다.

> P부인은 아이 아빠(때로는 엄마)가 저녁 식탁을 다 차릴 때까지 아이를 돌보아주었지만, 그 식탁에 함께 앉아본 적이 없었고, 거기에 대해 어떤 감상을 가진 적이 없었다.[78]

최정화의 '구두'에서 살펴보았듯, 식사를 함께 하는 행위는 중요한 사회학적 의미를 지닌다. 같은 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공동의 피와 살을 만드는 것은 구성원들 사이의 거리를 촘촘하게 연결시켜준다. P부인은 처음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아이 엄마는 분명 P 부인을 채용하면서 과일을 보관하는 냉장고나 티백이 정리된 티박스 등을 알려주며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P부인은 그 집의 TV나 라디오, 심지어는 약통도 건드리지도 않는다. P부인은 그 집의 모든 것과 거리를 두며 업무를 수행하지만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아이를 돌보는 행위는 필수적으로 애정을 수반한 노동이기 때문에 도시인 특유의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 결국 P부인은 부부 간 다툼이 이어질 때마다 아이가 받을 상처를 걱정하게 된다.

> P부인은 그들의 싸움이 본질적으로는 자신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아무런 참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이 어린아이는 어쩐단 말인가?[79]

P부인은 부부싸움 후 지쳐있는 여자를 위로하며 "아이 앞에서 싸우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라고 가정의 내밀한 일에 개입한다. 그날 밤 여자는 남편에게 P부인이 자신에게 한 말을 전하며 "나한테 충고를 다 하더라니깐."이라는 말로 P부인이 거리두기에 실패했고 그 행위가 얼마나 불쾌했는지 표현한다. 여자가 생각하기에 계약관계를 통해 돌봄 노동을 외주화한 P부인이 좋은 행동 운운하는 건 선을 넘는 행동이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단순 임노동의 계약관계처럼 흘러가지 않는다. 이것은 돌봄 노동이 가지고 있는 특

78) 손보미,「임시교사」,『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15, 252쪽.
79) 손보미, 앞의 책, 255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한 성질 때문이다.

지리학자 니키 그렉슨과 미셸 로는 “육아를 직접적인 임금관계라기보다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임무”라고 말했다. 이런 노동의 특성은 그들이 “‘가짜 친족(false kinship)’이라 부르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토대”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이 친족이라는 개념은 종종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측면의 여성들 사이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보모 및 다른 가사노동자들이 종종 자신의 고용 계약 및 조건에 불만을 품게 되는 사태를 초래했다.”[80]

우리는 육아 및 가사 노동이 사랑에 기반한 활동이라고 전제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관념 아래서 그 노동들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성에게 전가된다. 이런 성질의 노동을 외주화 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가짜 친족’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이런 관계에서 여자와 P부인의 관계는 또 한 번 전복된다. 여자가 일하는 미술관의 전시에 문제가 생겨서 P부인이 늦게까지 아이를 돌보아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돌봄 노동은 언제나 돌발적인 변수 아래 수행되고 이 노동을 직접 하든 외주화를 하든 그 노동의 관리감독 책임은 가정 내 여성에게 있다. 때문에 여성은 돌봄 노동 수행자와의 관계에서 언제나 어려움을 느낀다.

P부인은 늦게까지 아이를 돌보게 된 그 날, 처음으로 콩나물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어 아이와 단둘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다. 그곳에서 그녀가 식사를 하는 일은 처음이었다. 식사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의 상호작용은 보다 개인적인 차원으로 수렴한다. 이는 P부인에게도 커다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아이가 잠들고 한참이 지나도 아이의 부모가 돌아오지 않자 P부인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한다.

> 그녀는 아이를 깨우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마치 자신이 빈집에 침입해 있고, 뭔가 대단히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 P부인은 너무나 두려워졌다. 도대체 왜?[81]

P부인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그 집에 들어와 있지만 자신이 ‘침입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현대 도시인으로서 인클로저 된 공간에 익숙한 현대인은

80) 린다 맥도웰, 앞의 책, 152쪽.
81) 손보미, 앞의 책, 259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타인의 내밀한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스스로 '잘못된 공간'에 들어와 있다고 느끼게 된다. 업무를 위해 출입하는 공간이지만 그곳이 경비원이나 CCTV가 있는 사무공간이 아니라 일반 가정이라면 특히 그렇다. 임금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써 출입하는 공간이지만 그들조차 특유의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날 이후 P부인은 늦게까지 아이를 돌보는 일이 많아졌다. 부부가 시간을 계산해 급여를 더 주겠다 하지만 P부인은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며 거절한다. 식사를 하고 늦게까지 그 공간을 점유하면서 점점 그 공간이 익숙해진 P부인은 침입자로서의 자신을 지우고 그 공간을 주체적으로 전유하기 시작한다. 추가 노동에 대한 초과 임금을 거부함으로써 아이를 돌보고 집안을 정리하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다른 보상심리가 P부인에게 생기게 된다.

> 그리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찬장을 열었다. P부인은 자신이 이 집에 처음 온 날, 아이 엄마가 했떤 말을 떠올렸다.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요." P부인은 작은 새가 앙증맞게 그려진 찻잔-그것이 P부인의 마음에 가장 들었다-을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찻잔에 부은 후, 티박스에서 보라색 티백을 하나 꺼내 포장을 벗기고 찻잔에 담갔다. … 그리고 소파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자신이 가지고 온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요. P부인은 그제야 아이 엄마의 그 말뜻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에 P부인은 그들의 서재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약간 망설이다 책을 한 권 꺼냈다. 더 이상 그녀는 자신의 작은 가방에 읽을 책을 넣어오지 않아도 되었다. 그 집에는 읽을 책이 너무도 많았기에.[82]

그 보상은 P부인이 점점 젊은 부부의 일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발현된다. 급기야 여자의 시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리면서 P부인은 그녀의 간병까지 도맡게 된다. 그 가족을 위해 할 일은 많았다. 젊은 부부는 점점 바빠졌고 변호사인 남자의 업무가 감정적 역치까지 건드리는 상황이 되자 그들은 P부인 앞에서 눈물을 흘릴 만큼 그녀에게 많은 것을 의지한다. P부인도 자신의 의무인 양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을 달래주게 된다. P부인과 부부의 관계는 더욱 더 깊어진 '잘못된 친척 관계'로 둔갑하여 유지된

82) 손보미, 앞의 책, 260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P부인은 가족의 일상으로 완전히 스며들었다. P부인의 말대로, 정말로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고 부부의 삶은 새로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안정기에 접어든 그 가족에게 '잘못된 친척'인 P부인은 다시 침입자로 돌아간다.

> 어느 날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선 아이 엄마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P부인은 왜 항상 티테이블 위의 작은 전등불만 켜놓는 거지? 그녀는 그런 광경을 이제껏 몇 번이나 봤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P부인이 집으로 돌아간 후 그녀는 P부인이 설거지통에 덩그러니 넣어둔 찻잔을 바라보았다. 작은 새가 앙증맞게 그려진 찻잔. 그건 영국제로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이었다. 그걸 사고 싶어서 그녀는 백화점 직원에게 몇 번이나 부탁했고, 두 달이나 기다려야 했다.[83]

그들은 결국 P부인을 해고한다. 앙리 르페브르는 "현대 사회에서 표면적으로 드라마는 없어 보인다."고 말하며 "사람들은 차가움 속에 정착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사소하고 거대한 모든 힘들이 일상의 반죽 속으로 스며든다. "사람들은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사소한' 힘들로 인해 일상을 사로잡히고 그것을 억누르고 말라죽는다."[84] 르페브르에 따르면 특히 여성들은 '매우 애매한 조건' 하에 처해있다. "일상 속에 떠밀려진 그녀들은 일상으로 요새를 쌓으면서도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85]

P부인과 여성이 서로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반복하는 이유도 그녀들 위로 짓누르는 일상성 때문이다. 그런 모순적 상황에 여성들은 끊임없이 항의하지만 그 방향성을 잡기는 쉽지 않다. 그들은 또 같은 이유로 인간적 유대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기도 한다. 개인들 사이의 관계맺기 또한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펼쳐진다. 그것은 언제나 일시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김유담의 '연주의 절반'은 입사 동기로 만난 두 여성의 삶을 통해 이렇게

83) 손보미, 앞의 책, 274쪽.
84) 앙리 르페브르, 앞의 책, 141쪽.
85) 앙리 르페브르, 앞의 책, 180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현대인의 관계 맺기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의 화자는 여섯 명의 직장 동기 중 단 둘뿐이었던 여성인 연주와 자신이 특별한 사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연주의 결혼 소식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듣게 되면서 그것이 자신만의 착각이었음을 깨닫는다. 연주가 사실은 유명 병원장의 딸이고 오랫동안 사귄 의사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연주의 결혼식 주례사를 통해 알게 된다. 연주와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점, 내밀한 이야기는 자신에게 전혀 공유하지 않은 점을 알게 된 후 화자는 연주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 그러고 나서 언제부터인가 연주가 회사에서 눈에 띄지 않았는데, 임신 후 배가 불러 오면서 휴직이 아닌 퇴사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인사팀 선배를 통해 전해 들었다. 예전에 비해 좀 소원해졌기로서니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회사를 떠날 수 있는지 연주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따져보면 그녀가 내게 특별히 나쁘게 굴거나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서운한 내 감정이 문제였는데, 그건 정말 나만의 문제였을 뿐이다.[86]

그렇게 자신에게 말 한마디 없이 퇴사까지 하게 된 연주를 잊고 지내던 화자는 축의금을 돌려받을 요량으로 4년 만에 연주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 문자와 전화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 연주에게 '이상한 오기'가 생겨 수십 번의 통화를 시도한 끝에 그녀와 연락이 닿는다. 그리고 그 통화해서 화자는 연주의 아이가 두 달 전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통화 후 두 사람은 다시 연락이 끊기고 화자는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연주에게 상처받았던 사회 초년생 시절을 떠올린다. 이는 도시의 전형적인 인간관계를 보여준다. 도시의 확장된 관념과 진보를 위해서 과밀한 인구는 필수적이지만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에서 외로워진다.

이는 도시학자 워스도 지적한 바 있는 사실이다. 그는 "대도시에서 인구와 인구밀도의 증가는 익명성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교제는 수많은 익명적 부딪힘과 업무적 관계로 인해 파편화되고 수단화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친밀한 정의적 교제가 존재하기는 해도 희박하여 마치 상실된 듯 보인다."[87]

---

86) 김유담,「연주의 절반」,앞의 책, 101쪽.
87)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 연구회, 앞의 책, 275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다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회사를 떠나면 보지 않을 사람들이니 적당히 선을 지키면 될 일이라고, 나는 사람을 믿지 않고 되도록 말을 아끼려 애썼다.[88]

결국 화자는 대도시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 이런 체념을 하게 된다. 과거에 비해 대도시에서 개인들의 만남은 매우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다. 이방인들의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도시에서 그들의 관계는 헐거운 연결망에 의해서만 지탱된다. 화자는 연주를 통해 그 사실을 깨닫고 도시인으로 인간관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간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아이를 잃어버린 연주를 자주 생각하게 된다. 육아 속에 파묻힌 일상은 점점 화자의 숨통을 조여 온다. 그녀는 아이를 내팽개치고 싶다는 충동에 짓눌린다.

나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고단하고 버겁다고 느낄 때마다 의식적으로 연주를 떠올렸다.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무탈한 일상에 감사해야 한다고 최면을 걸 듯 속으로 읊조렸다.[89]

"일상성은 현대인들이 가장 지겨워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놓칠까 봐 전전긍긍해하는 이상한 물건이다."[90] 여성들은 특히 그 일상성의 무게에 치여 살아간다. "그녀들 대부분은 일상이라는 무거운 반죽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91] 이런 일상성의 무거운 반죽 속에 파묻힌 화자는 연주를 떠올린다. 그녀의 배경을 알고 나서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느꼈던 거리감은 그들이 같은 일상을 체험했다는 공통의 경험을 통해 축소되었다. 그들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고, 연주는 화자의 집에 방문해 외부자의 시선으로 그녀의 일상을 바라본다.

"오랜만이다, 이런 풍경."[92]

88) 김유담, 앞의 책, 105쪽.
89) 김유담, 앞의 책, 106쪽.
90) 앙리 르페브르, 앞의 책, 14-5쪽.
91) 앙리 르페브르, 앞의 책, 107쪽.
92) 김유담, 앞의 책, 108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연주는 평범한 화자의 집을 '환하고 아늑하다'고 말하며 이제 돌을 막 넘긴 아들 민찬을 신기하게 바라본다. 연주와 화자는 그 이후로도 자주 만남을 갖는다. 화자는 '한때' 엄마였던 연주가 편하기도 하다. 연주는 아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고 화자가 목 늘어진 티셔츠만 입는 것도 이해해준다. '어쩌면 편안한 옷차림이 우리 사이의 거리감을 없애 주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을 만큼 육아라는 경험은 화자와 연주의 거리를 다시 좁혀주었다. 일상의 반죽에 치여 사는 여성들은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과 연대를 욕망한다. 연주와의 교류가 많아질수록 연주는 민찬을 보며 죽은 자신의 아들, 재준 이야기를 하는 일이 늘어났다. 그리고 가끔, 민찬의 이름을 자신의 죽은 아들의 이름인 '준이'로 바꿔 부르는 일이 생기고 이는 두 사람 관계의 균열을 일으킨다.

> "너무 귀엽다, 우리 준이. 어머, 미안 또 이러네."
> 연주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연주는 찬이를 종종 준이라고 잘못 불렀다. "준아." 혹은 "우리 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스스로가 내뱉은 말에 본인이 더 화들짝 놀라서 정정하곤 했다. "어머, 미안. 민찬아. 이모가 실수로 너를 준이라고 불렀어."…내 아이를 죽은 아이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93]

화자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도 연주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아이를 맡기고 어린이집 상담을 다녀온 사이, 연주가 민찬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와 민찬을 찍으며 "우리 준이 말 잘 타는구나. 최고야 우리 쭌!"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고 화자의 감정은 폭발한다.

> "동영상 다시 틀어 봐. 네 목소리도 녹음되어 있을 거야. 확인해 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워 줬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를 준이라고 부르는 영상을 네가 집에 가서 돌려 보는 건 싫거든.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이제 나도 계속 참기가 힘드네. 정산 차려, 연주야. 이 아이는 준이가 아니라 민찬이야."[94]

93) 김유담, 앞의 책, 118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일을 사과하기 위해 연주의 집에 처음 가 본 화자는 그녀가 다시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연주는 '남자는 필요 없고 아이만 필요하다'고 말한다. 덴마크로 떠나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하겠다는 연주의 연락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들은 다시 헤어지게 된다. 그들은 같은 일상을 한참을 공유한 뒤에도 모든 도시의 이방인들처럼 '미래가 없는 만남과 헤어짐'을 깔끔하게 수행한다. 한참 후, 화자는 우연히 후배를 통해 덴마크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공여 받아 임신한 이야기를 그리는 '배쭈의 덴마크 그림일기'라는 웹툰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연주의 이야기일 것이라 짐작하지만 그것을 확인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

> "과장님 아는 분이세요?"
> 골똘히 들여다보는 내가 이상했던지 효은이 물었다. 잠깐 망설이다가 고래를 저었다. 연주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여전히 너무 몰랐다.[95]

과거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삶을 결여된 삶으로 취급했고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느끼는 삶의 형태가 동일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속할 수조차 없었다. 그들에게는 강렬한 낙인이 찍혔고 사회의 외곽으로 추방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다. 현재 자신의 공동체가 자신에게 낙인을 찍으면 다른 도시로 떠날 자유도 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부유한다. 그렇기에 현대화된 도시에서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때그때의 선택의 순간에 마주하는 개인들의 만남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접한 그 사람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알고 있다. 연주와의 첫 만남에서 화자는 둘 사이를 '특별한' 관계로 상정했다. 그 이유는 유일한 여성 동기가 2명뿐이라는 피상적인 정보에 근거해서였다. 연주와 관계가 훨씬 더 진전되고 그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된 시점에 와서야 '연주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여전히 너무 몰랐다'고 말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연주의 선택에 대해서도 화자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으려 한다. 아이의 죽음을 그녀 탓으로 돌렸던 가족들까지 떠난

94) 김유담, 앞의 책, 121-2쪽.
95) 김유담, 앞의 책, 131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연주는 과거라면 절대 허용되지 않았을 방식으로 덴마크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

이제 과거에 인간이 공동으로 짊어졌던 책임은 사라졌다. 인간은 전체 종으로서 부여받고 수행했던 많은 의무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개인적인 차원의 재능과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행복이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삶의 형태를 찾아내고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자유가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도시 여성의 삶

1) 현대인의 '일'

현대 사회에서 일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과거 전근대 사회에서는 태어나는 순간 직업이 정해졌다.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도 무척 제한적이었다. 특히 여성은 사회적 직무를 부여받을 기회가 현저히 적었다. 최근의 한국소설에도 이런 현대 사회의 특징이 반영되어 등장인물의 직업이나 일의 성격이 캐릭터에게 생명력을 부여하고 서사의 구조를 결정짓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특히 여성의 일이 그렇다. 과거 한국소설에서 등장하는 여성의 직업은 무척 제한적이었다. 신경숙의 '외딴방'은 구로공단에서 여공으로 일하며 작가의 꿈을 놓지 않는 10대 여성의 이야기였고 여성의 삶에 천착해 온 오정희의 작품에서도 여성의 직업은 윤락 여성이거나 가사에서 노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만 등장했다. 본론 제 2장에서는 최근 현대인의 일을 주요 사건의 모티프로 사용하는 최근 작품들에 주목하고 그들의 경향성과 도시적 특성을 연계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류연미는 "2010년대 한국소설은 청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청년의 기대, 소망, 불안, 우려 등을 주요한 테마로 다루면서, 사회 변혁과 변화의 주체로서의 청년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승자 독식 경쟁을 돌파하는 자기계발 주체로서의 청년, 국가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잉여'이자 실업자로서의 청년, 고통 받는 청년, 꿈꾸는 청년, 냉소하는 청년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96]

오길영은 장류진의 『일의 기쁨과 슬픔』 소설집을 언급하며, "이 소설에서 표현되는 일의 모습은 예전 노동문학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 소설집에는 "노동-자본 갈등과 투쟁이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며 소설의 초점은 '자본의 힘 앞에서 살아남으려는 노동자들의 안간힘과 노력의 여러 면모'라고

96) 류연미,「표백된 천국에서 살아남는 법-2010년대 청년 소설과 몰락의 세계감」,『실천문학』116호, 실천문학사, 2014, 299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말했다.[97]

사무직의 일을 문학의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인 장류진의 '일의 기쁨과 슬픔'에서는 전형적으로 '현대인의 일'을 추구하는 인물들이 여럿 등장한다. 현대인의 일은 과거와는 성격이 바뀌었다. 과거에 일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었다. "당시 '일'은 하려고 마음먹어서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천성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행위로 이해되었다. '일'은 인류의 모든 구성원 하나하나가 모두 떠맡아야 할 어떤 집단적 노력으로 간주되었다. 나머지 것들은 모두 일의 결과일 뿐이었다."[98] 하지만 이제 일의 성격이 바뀌었다. 일은 이제 평생의 천직이거나 신에게 부여받은 소명이 아니다. 이제 사람들은 일을 주체적으로 선택한다. 과거처럼 천하고 귀한 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여전히 극소수의 직업에는 고귀한 특권이 부여되기도 하지만 이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일은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지위 그 자체를 의미하거나 개인의 윤리적 잣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그 대신 일은 '그 자체로 만족스러운 어떤 것'이어야 한다. 바우먼에 따르면 "일은 윤리적인 생산자요 창조자라는 프로메테우스적 천직의 의미가 아닌, 감각을 추구하고 경험을 수집하는 소비자의 미학적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고 즐겁게 해주는 능력 여부로 평가되고 측정된다."[99] 장류진의 작품에 등장하는 케빈을 통해 현대인의 이런 특성을 살펴보자.

> 대체 그렇게 똘똘하다는 케빈이 왜 이 회사에 왔는지 궁금한 적이 있다. 대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연봉은 광고 붙이고 나면 그때부터 잘 챙겨주겠다'여서 돈으로 유인한 것도 아닐 텐데, 싶었다. 의외로 대표가 케빈에게 내민 카드는 '개발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겠다'였다고. 겨우 그런 말로 설득을 한 것도 신기했지만, 고작 그런 말로 설득이 된다는 것도 놀라웠다.[100]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벤처회사 우동마켓의 풍경은 바우만이 제시한 액체

97) 오길영,「노동소설에서 사회소설로-장류진『일의 기쁨과 슬픔』과 김혜진『9번의 일』」,『황해문화』, 2020 여름호, 300쪽.
98) 지그문트 바우먼, 『액체근대』, 222쪽.
99) 지그문트 바우먼, 『액체근대』, 226쪽.
100) 장류진,「일의 기쁨과 슬픔」,앞의 책, 54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근대의 전형적인 노동의 풍경이다. 고스펙의 케빈이 벤처회사에서 일하는 이유는 '연봉'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명예'도 아니다. '개발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겠다'는 대표의 약속 때문이다. 케빈에게 일은 '프로메테우스적 천직'이 아니라 즐거움과 자기표현을 위한 어떤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사회는 노동집약적인 고체 근대 사회였다. 고체 근대 사회에서 임금노동은 '본질적으로 기업가에 대한 노동자의 종속'을 표현했다.

짐멜에 따르면 '노동계약이 철저하게 화폐경제를 추구한 결과'로 '노동 자체가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다. "근대 노동자의 점증하는 자기확신은 분명히 이런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 예속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으며, 정확하게 규정된 노동만을 제공한다."[101]

노동 자체가 토지에서 분리되어 상품으로 분리되어 물화하면 할수록 기업은 비인격적으로 변하게 된다. 인간에게서 노동력 자체만 분리하게 되어 개인의 삶이 지워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갈수록 기업은 비인간적인 고용정책을 추구하고 노동의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는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 놓인다. 더 이상 평생직장은 없다. 업무는 더할 나위 없이 세분화되어 개인은 점점 그 세분화된 노동을 수행하는 부품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노동자는 더욱더 자유로워진다. 물론 이는 고학력 자본을 소유한 몇몇 계급에 한정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학력 자본을 소유한 노동자들도 자본을 소유하지 않은 이상 물화된 자신의 노동을 판매해서 살아간다. 이 작품의 주요 에피소드인 '월급을 포인트로 받게 된 사연'에서 우리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다루는 현대적인 착취 스킬을 살펴볼 수 있다. 액체 근대 사회에서 일은 자기표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평범한 소시민의 밥벌이 수단이기도 하다. 다만 이 소설에서 월급을 포인트로 받게 된 '거북이알'은 자본가의 착취적 모욕 행위를 자신만의 해학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다. 그녀는 포인트로 월급을 받은 모욕적 행위를 포인트를 돈으로 교환하면 된다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상황을 헤쳐나간다. 월급 대신 받은 포인트로 임직원몰에서 물건을 사고, 업무 시간에 그 물품을 중고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자본가에게 입은 손해를 복구한다.

---

101) 게오르그 짐멜, 『돈의 철학』, 김덕영 옮김, 길, 2013, 576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직원 아이디 넣으면 할인가로 살 수 있어요. 물건 주문하는 건 근무시간에 하죠. 이렇게 점심시간이나 외근 나가면서 직거래하고요. 개인 시간은 잘 안 써요. 내 나름대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102]

소설의 말미에 다다르면 작품의 화자인 안나는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케빈에게 '일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조언을 한다. '자기가 짠 코드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대화는 바우먼이 제시한 액체근대의 노동의 개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다.

"자기가 짠 코드랑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덧붙였다.
"버그는, 그냥 버그죠."[103]

액체 근대성 아래에서 자본과 노동은 모두 액화한다. "자본과 노동이 고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둘 간의 명확한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 나아가 기능적 필요에 따라 형성된 강고한 상호의존 관계가 깨진다는 것, 그리하여 자본가와 노동자는 경제적 형편이 좋든 나쁘든 병이 들든 건강하든 간에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강하게 결속되어 있던 이전의 고체 근대적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104]

그 부작용으로 고용은 불안해지기도 하고 기업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마음껏 저지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노동자로서의 개인은 나름의 해방구를 찾는다. 개인은 이제 노동을 통해서만 개인의 정체성을 구현하지도 않는다. "자본과 노동의 경계가 사라짐에 따라 액체 근대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요인은 자본가나 노동자로서의 계급적 위치가 아닌, 소비자로서의 라이프스타일이 된다."[105] 현대 도시에서 개인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기도 한다. 일의 기쁨과 슬픔의

102) 장류진, 앞의 책, 52쪽.
103) 장류진, 앞의 책, 60쪽.
104) 김욱진, 앞의 책, 745쪽.
105) 김욱진, 앞의 책, 745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자.

> 사실 야근하려고 남아 있던 건 아니었다. 루보프 스미르노바 리사이틀 예매가 아홉시부터 시작이었는데 집에 도착하면 아홉시를 훌쩍 넘길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시는 동안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세요. 아홉시가 되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또 있었다. 몇 달 전 예매해 두었던 조성진 홍콩 리사이틀이 벌써 다음 달이었다. 공휴일과 주말, 그리고 아껴둔 연차를 하루 붙여서 삼박 사일을 놀고 공연도 볼 것이다. 항공권 예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홍콩행 왕복 티켓을 결제했다. 조금 비싼가 싶었지만 오늘은 월급날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했다.[106]

애완동물에게 슈퍼카의 브랜드명을 이름으로 붙여주는 등장인물이나 애호하는 피아니스트의 공연을 보기 위해 야근을 자처하며 티켓을 예매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독자는 소비의 미학을 느낄 수 있다. 이 소설의 안나는 동료인 케빈에게 '코드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이는 일을 신에게 부여받은 소명으로 알고 수행하던 과거의 가치관과 완전히 대비되는 행동이다. 또한 과거에는 소비를 죄악시했지만 현대는 이 소비의 욕망이 엔진이 되어 순환하는 사회다. "고체 근대에서 규율되던 금욕 윤리가 소비의 미학으로 대체되면서, 이제 액체 근대 아래에서 인간의 다양한 욕망은 소비를 통해 얼마든지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또 다른 욕망을 자극하는 소비의 대상이 생기면 이를 또 소비하기 위하여 질주하는 과정이 무한히 반복 된다."[107]

연남경은 장류진이 "신자유주의의 외부과 모색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 시대를 횡단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규율화된 주체로 시스템에 예속될 수밖에 없음을 간파고 있는 주체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스스로 주체성을 부여해가는 자율성의 측면을 놓치지 않는다"고도 평했다.[108]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소비를 통해 표현되고 표출된다. 화폐 경제 체

106) 장류진, 앞의 책, 63쪽.
107) 김욱진, 앞의 책, 745쪽.
108) 연남경,「포노 사피엔스의 '워라밸'과 자본주의 횡단하기 - 장류진의『일의 기쁨과 슬픔』을 중심으로」,『이화어문논집』제 53집, 2021, 7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는 점진적으로 전근대 사회에서 자신을 속박했던 관계들을 끊고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먼제 대가족을 해체했고 신분제도를 타파했다. 전근대사회의 일은 노동집약적이고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회에서 여성은 필연적으로 가족과 남성과 토지에 종속된다. 하지만 도시는 다르다. 과거 촌락에 존재했던 총제적 일자리는 분화되었다. 토지와 인간의 노동이 분리된 도시의 일자리는 훨씬 더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젊은이들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도시화로 많은 여성들이 '해방'되었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방 소도시에서 여성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젊은 여성들이 '임금'과 '자유'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양산되는 가족친화적인 정책만으로 그들을 고향에 머무르게 할 수는 없다. 그들에게 임금은 곧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에 대한 욕망, 임금에 대한 욕망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에 안착한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발현된다. 최은미의 '여기 우리 미주'에는 일을 원하는 화자가 등장한다. 화자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주부이고 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비누를 만들면서 시작한 향초 기술로 공방을 열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을 맞아 집합 통제 정책의 직격탄을 맞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 중 화자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는 남편과의 갈등이다.

> "집에 와도 쉬는 기분이 안 들어."
>
>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실제로는 쉬면서도 쉬는 '기분'이 안 든다면 그건 진정으로 쉬는 게 아니지 않은 거 아닐까? 나는 남편이랑 얘기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슬래시를 돌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랬을 것이다. 비누 베이스 추가 주문/공기청정기 연락/양파/두부/우유/지퍼백/은채 이비인후과/싱크대 하수구 검색/비누 설거지 전에 저녁 설거지 끝내기/남편 쉬는 기분 들게 해주기.[109]

화자는 사업체를 이제 막 오픈한 시점에도 '남편의 쉬는 기분 들지 않기'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이는 현대의 모든 여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의무다.

---

109) 최은미,「여기 우리 미주」,『눈으로 만든 사람』, 54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정 내 여성의 문제는 일찍이 엥겔스가 지적한 문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엥겔스는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아내는 하녀의 우두머리가 되어 사회적 생산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여성이 자기의 사사로운 가정 살림만 돌본다면, 그는 여전히 사회적 생산에서 제외되어 아무 것도 벌 수 없게 된다. 또 만일 그가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여 독립적인 벌이를 하려고 하면, 그는 자기의 가정 살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가 지적한 이 문장은 최근 일과 가사의 양립에 대한 현대인들의 고민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엥겔스는 “여성의 지위는 공장에 진출하건, 의사 및 변호사를 막론하고 어느 직업 분야에 진출하건 마찬가지”라고 서술한다. 그는 “현대의 개별 가족은 아내 공공연한 또는 은폐된 가내 노예제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남편은 대다수의 경우에, 적어도 부르주아 계급에 있어서는 돈을 벌어들여야 하며 가족의 부양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에게 지배적 지위를 부여한다. 그것은 법률상의 어떠한 특권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남편은 부르주아지이고 아내는 프롤레타리아트이다.”[110]

엥겔스의 말은 이 소설의 화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방일과 집안일을 함께 돌보는 이중노동을 수행하지만 ‘남편 쉬는 기분 들게 해 주기’까지 업무의 분장 영역으로 포괄해야 하는 것이 현대 여성의 삶이다. 이것은 아내의 미덕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반면 남성은 그렇지 않다. 아직까지 가정을 이룬 남성에게 가정은 안락한 휴식처다. 남편은 끊임없이 여성에게 가정 내에서 자신의 ‘휴식권’을 요구한다.

‘여성의 장소는 가정’이라는 이데올로기는 19세기 영국의 모든 사회계층에서도 지배적이었으며 모든 여성의 생활과 마음에 핵심적인 것으로 작동했다. ‘일하러 나가는’ 노동계급 여성에게도 가사는 여전히 인생의 ‘복’이었다.[111] 분명 노동임에도 사회는 그 노동을 ‘축복’이라거나 ‘태생적 의무’로 치환하여 여성들의 어깨에 짓누른다. 한 때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알파걸’ 열풍은 바로 이 ‘일하러 나가지만 가사도 여전히 인생의 복’으로 느껴야 하는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습한 사회적 현상이었다.

배아트릭스 캠벨은 “남자에게 가정은 자신만의 성채지만 그곳에서 너무 많

110) F.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김대웅 옮김, 도서출판 아침, 1987, 99쪽.
111) 린다 맥도웰, 앞의 책, 146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조심한다"라고 말하며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112] 이는 아직도 가정이 '여성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이 팽배함을 의미한다. '여성적인' 공간인 가정 안에 종속된 자아는 사회적 자아를 짓누른다. '여기 우리 미주'의 화자 또한 가정 안에 종속된 자신과 사회적 자아를 구분 지으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돌봄 노동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타인과 대등한 관계 안에 자신을 두고자 노력한 결과가 새경플라자에 차린 공방이다.

> 내가 상가 공방을 내면서 꿈꾸던 게 그런 것이었다. 아이들이나 아이 엄마들이 아닌 사람들도 내 공방에 오는 것..... 보살피고 의탁하는 관계들이 아니라 대등한 존재들끼리 친밀감을 나누는 걸 보고 사는 것.[113]

> 원데이 클래스나 취미반에서는 절대 풀지 않는 것을 정교하게 펼칠 수 있는 판이 열리면, 나는 나의 무언가를 가리기 시작한다. 수미는 알고 있었을까. 누구누구의 맘도 아닌, 무슨무슨 샘도 아닌, 딱 떨어지는 '선생님'이 되어야 할 때, '지도사'라는 정식 호칭으로 서 있어야 할 때, 내가 나의 무엇을 보이지 않게 하는지. '선생님'으로 생존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멀쩡하게, 주부로서의 노동만을 선별해서 지워버리는지. 하지만 '선생님'인 그 순간에도 내가 알아서 감춰버린 그 노동에 얼마나 실시간으로 잠식당하고 있는지. .... 왜 나는 나의 어떤 부분을 지워야만 내 실력을 신뢰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는지.[114]

인용문에서처럼 화자는 왜 '주부로서의 노동'만을 선별해서 지우려고 했을까? 앞서 밝혔듯, 현대 사회는 소비 사회다.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방식은 자신이 소유한 소유물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이런 소유물들을 소유하기 쉽지 않고 때문에 자연스레 사회에서 소외된다. 특히 전업주부는 분명 노동하는 존재지만 경제력이 상실된 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주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된다. "주부는 생계를 유지할 뿐이다. 주부의 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산물은 노동력이다. 그녀 자신, 남편, 아이의 노동력같은 것들이다. 남편은 아내의 노동력을 전유할 수

112) 린다 맥도웰, 앞의 책, 146쪽.
113) 최은미,『눈으로 만든 사람』, 61쪽.
114) 최은미,『눈으로 만든 사람』, 74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있다. 아내가 생산한 노동력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이다."[115]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경제력에 소유권을 가지지는 못한다. 엥겔스가 밝혔듯 경제적 부양자라는 사실이 이미 그에게 '지배적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가정주부의 삶은 꽤 자주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김현경에 따르면 "남편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간에 그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업주부는 우정이라는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우리가 화폐 경제 하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전업주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치부된다. 이는 본질적으로 남편과 그녀 사이의 우정을 방해한다. 그녀는 타인에게 선물을 하기도 쉽지 않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남편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남편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업주부는 '증여자'가 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우정은 일종의 '선물 교환'이기 때문에, 우정을 나누려면 먼저 증여자가 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16]

이 소설의 화자는 전업주부에서 독립적인 '증여자'가 되고 싶어서 공방을 열었다. '남편 쉬는 기분 들게 해주기'라는 업무까지 수행할 정도로 전업주부로 충실히 일하고 있지만 전업주부라는 정체성은 사회에서 그녀에게 온전한 증여자의 자격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전업주부라는 존재 뒤에는 언제나 '남편'이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노동을 통해 개인은 사회와 연결된다. 특히 과거의 인간은 자신이 노동한 생산물을 본인이 점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원화된 현대 노동 시장에서 노동자는 노동 과정이나 생산물로부터 일체감을 느끼기 어렵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일체감을 갖지 못하는 '노동의 소외'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이런 노동의 소외 현장이 대두되었을 때 절대 다수의 노동자는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자신이 소외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공장에서 자신이 만든 스타킹을 주머니 가득 채워오는 노동자들로 골머리를 썩는 공장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현대인은 자신의 노동과 자신을 일치시키지 않는다. 때문에 절대 다수의 노동자의 일상은 자신의 노동과 유리된 채 무의미한 반복으로 채워지게 된다.

115) 린다 맥도웰, 앞의 책, 148쪽.
116) 김현경, 앞의 책, 182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노동의 소외 현상은 현대 도시에서는 단순히 생산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김세희의 '가만한 나날'에는 자신의 '일' 그 자체로부터 소외되어 혼란에 빠진 사람들의 일상이 그려지고 있다. 작은 마케팅 회사에 입사한 20대 여성인 경진은 업무의 일환으로 '남편과 멀리 떨어져 살며 홀로 아이와 개를 키우는 채털리 부인' 콘셉트로 블로그를 만들게 된다. 그녀의 업무는 광고주들이 의뢰한 온갖 상품의 리뷰를 작성하는 것이다. '직접 먹어본 것'처럼, '직업 사용해본 것'처럼, '직접 시술받은 것'처럼 온라인 상의 '채털리 부인'은 끝없이 콘텐츠를 양산한다. 정확한 캐릭터 콘셉트와 특유의 근면함으로 경진은 동기인 홍성식이나 예린보다 좋은 평가를 받으며 회사 생활에 적응한다. '디테일을 살리는 글솜씨'로 경진의 업무 성과는 점점 더 발전한다.

> 이렇게 해도 괜찮나? 싶을 때도 있었다. 병원이 제시한 문구를 넣어 사각턱을 절제했다는 후기를 작성할 때였다. 치아 교정, 라식 수술 체험 후기를 쓸 때도 그랬다.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러나 곧 그 감각도 사라졌다.[117]

경진은 업무를 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블로그 후기들도 거의 업체를 통해 작성된 광고라는 깨닫고 환멸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세상의 이치를 목도한 마냥 "이것이 경제구나"라고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경진은 점점 근대인의 포부로 가득차게 되고 일에서 만족을 찾는다.

바우먼이 말한 것처럼 일이 현대의 주요 가치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무형의 것들에 형태를 제공하고 일시적인 것들에 지속성을 부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일은 '근대적 야심'을 품고 혼돈을 질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예컨대 "일을 하면 부가 늘어나고 불행이 사라진다"고 여겨졌다. 사람들은 일이 질서를 창출하고 인류가 스스로 운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행위에 공헌한다고 생각했다.[118]

과거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이나 직업이 결정된 상태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부를 늘리고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고 끊임없이 외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일을 잘 해내고 있다는

117) 김세희,「가만한 나날」,『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18, 182쪽.
118) 지그문트 바우먼,『액체근대』, 222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효능감은 개인에게 '근대적 야심'을 품게 한다. 경진 또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상사의 인정을 받으면서 점점 이러한 '근대적 야심'을 품게 된다.

> 돌이켜보면 이십대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이던 시기였다. 내가 채털리 부인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았던가.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는 없었다. 그것도 완전히 자발적으로. 이십대 중반까지는 돈을 지불하고 뭔가를 학습하고 받아들이기만 했다. 그런데 이젠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받았고, 내 머리와 손끝을 써서 뭔가를 생산해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 쓸모 있는 존재라는 느낌.[119]

주인공은 N포털의 광고성 블로그 벌점 제도를 피하기 위해 실제 아기와 대형견을 키우는 사촌언니의 사진을 활용하기도 한다. 채털리 부인은 그런 식으로 실제와 허구가 섞여 점점 실체적 존재가 되어간다. 하지만 그렇게 공들인 '채털리 부인'도 저품질 블로그 판정을 받게 된다. 첫 번째 블로그에 너무 큰 애정을 가지게 된 경진은 저품질 판정을 받은 그 블로그를 차마 삭제하지 못하고 다른 블로그를 개설해 업무를 계속해 나간다. 그러던 어느 날, '채털리 부인'에게 쪽지가 도착한다. 과거 경진이 포스팅했던 뿌리는 살균제 '뽀송이' 때문에 두 아이 모두 큰 피해를 당한 여자가 채털리 부인에게 안부를 묻는 쪽지였다. 여자는 채털리 부인과 그녀의 가상의 아이들을 자신과 같은 피해자로 여기고 있었다. 경진은 기억이 흐릿한 뽀송이의 흔적을 찾아 채털리 부인의 과거 게시글을 검색해본다.

> 천 건이 넘는 포스팅 중에서 즉시 하나의 게시글이 검색되었다. 전혀 기억에 없지만, 내가 쓴 글이 맞았다.
> 특히 아기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추천이에요~~^^[120]

경진은 채털리 부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 의뢰가 온 업체를 신뢰하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한 노동의 결과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양산했다. 경진은 살균제에 독성

119) 김세희, 앞의 책, 183쪽.
120) 김세희, 앞의 책, 190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물질을 첨가하거나 유통하는 데 어떤 노동도 투입하지 않았고 어떤 악의도 가진 바가 없었다. 하지만 자신이 행한 어떤 노동으로 그 제품과 소비자가 연결되었다. 그로 인해 독성 물질이 일으킨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 기억 속에도 없는 '자신이 행한 일'이 나비효과처럼 누군가의 아이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경진은 은연중에 자신의 책임을 지우고 싶어 한다.

"팀장님, 그 뽀송이 말이에요. 뿌리는 살균제."
"응,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더라."
"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홍보한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리뷰했던 기억이 나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랬어? 그거 진짜 나쁜 놈들이더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게 말이에요. 앞으로 뭘 믿고 쓰겠어요."[121]

경진이 마음의 짐을 덜어보려고 시도한 팀장과의 대화는 그렇게 끝나버린다. 그녀는 당혹스러웠다. 팀장은 살균제 사건의 주체와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한다. 자신의 팀이 행한 프로젝트임에도 자신의 노동과 자신을 철저히 분리할 줄 아는 팀장의 자세는 어떤 의미에서 전형적인 근대인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근시안적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는 사회의 구조적 진실이나 거대 담론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인물이다.

신성환은 "이 작품의 인물들이 보이는 '가만한' '체념'적 태도는 자신이 위치한 세계와 현실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조감도(鳥瞰圖)의 시선이 아니라 고작 눈앞의 세계와 현실에 소심하고 불안하게 반응하는 충감도(蟲瞰圖)의 시선을 닮아 있다"고 말했다.[122]

물론 경진 자신도 '앞으로 뭘 믿고 쓰겠어요'라는 말로 팀장의 행태에 동조한다. 이 사건은 경진에게 묘한 굴욕감을 주었지만 그들은 아무 일이 일어나

121) 김세희, 앞의 책, 195쪽.
122) 신성환,「2010년대 후반 한국형 회사원 소설에 나타난 청년 의식 연구 -김세희와 장류진 소설을 중심으로-」,『어문총론』제83호, 2020, 18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 않은 것처럼 일상을 영위한다. 얼마 후, 블로그 마케팅 업계는 포털의 검색 알고리즘 수정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들었던 경진도 과거 자신이 무시했던 동기 예린처럼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 한참 후 퇴사한 예린과 우연히 마주친 경진은 과거 자신과 그녀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린다.

> 그녀는 기운 없는 모습으로, 자기는 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었다. 이 일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때 나는 입가에 떠오르는 우월감을 최대한 억제하며, 마음속으로 비아냥거렸다. 그게 아니라 일을 못하는 거겠지. 그래서 쫓겨나는 거잖아.
>
> 그러고 나서 그때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
> "정말요? 저는 이 일이 진짜 적성에 잘 맞는 거 같은데."[123]

당시 경진은 일을 통해 '근대적 포부'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열심히 수행한 일이 타인에게 비가역적인 불행을 일으켰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한다. '적성에 잘 맞는다'고 느끼고 최선의 노력을 투입한 어떤 '노동'이,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어떤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행위와 결합할 수 있을지 현대인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과거와 달리 현대의 일은 자신이 설정한 값에 따른 일관된 결과만을 출력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뿌린 씨의 열매를 직접 수확했던 과거 방식의 일은 이제 수행되지 않는다. 노동은 세분화되었고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물의 어느 단계에 관여하는지조차 알아채기 힘든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다층적인 현대 도시에서 인간의 노동은 반드시 행위자의 의도에 일치하는 결과만을 산출할 수는 없다. 행위자의 의도에 일치하는 결과라는 것은 더 이상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일은 질서를 세우고 미래를 통제하는 세상에서 게임의 영역으로 떠내려 왔다. 일하는 행위는 조심스럽게 단기적 목표를 세워 그저 한두 걸음만 앞으로 내딛는 게임 참가자의 전략처럼 되었다."[124]

바우먼에 따르면 "일은 이제 우연을 추구한 결과"다. 이제 일은 더 이상 '평생의 천직'이 아니다. 또한 이제 일은 더 이상 사회의 윤리적 축을 제공해

123) 김세희, 앞의 책, 198쪽.
124) 지그문트 바우먼,『액체근대』, 224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준다고 간주할 수도 없게 되었다.[125]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적 도덕심이 아주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일의 영역에서는 그 도덕심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변호사는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는 의뢰인의 범죄를 변호해야 한다. 그것이 변호사의 직업적 윤리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을 애용하는 개인도 회사 사무실에서는 그들의 권익을 침범하는 '효율화' 기획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내가 갈아 끼운 부품의 원료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비공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자신에게 부여된 부품 교환을 시행한다. 이제 개인은 자신의 의지로 방향키를 움직여 일의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

이런 사회에서는 인간관계도 새롭게 설계된다. 앞에서 이미 화폐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인간관계의 탄생을 살펴보며 이러한 측면을 미리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바우만이 지적한 점묘주의식 인간관계로 그 내용을 확장해 살펴보겠다. 여기서 점묘주의란 "액체 근대인이 과거와 같이 끈끈하고 탄탄하며 서사가 돋보이는 인간관계를 맺기보다 수많은 작은 일화를 중심으로 점을 찍듯 여기저기서 인관관계를 짧게 맺고, 필요한 경우 깜짝 이벤트를 통해 잠시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비유한다.[126]

장은진의 '당신의 외진 곳'을 통해 바우만이 분석한 '분리된 노동' 그 자체와 '점묘주의식 인간관계'의 특성을 살펴보자. 소설 속 자매는 다단계 사기를 당해 금전적 피해를 당한 후 어쩔 수 없이 방을 쪼개 월세를 놓는 외진 곳으로 이사를 간다. 사실상 그들은 도시의 외곽으로 밀려났다. '언제나 방 한 칸짜리 집이었지만 공간 안에 화장실이 덧붙여 있던 곳'을 떠나 '공동화장실을 쓰는 공간'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임시적인 일을 전전하고 누구도 그 집에 오래 거주하지 않는다. 집주인인 60대 부부 또한 자신이 세를 놓는 이 공간이 바로 도시에서 밀려난 이들이 사는 곳임을 알고 있다.

"오래 말고, 조금만 살다 가."[127]

125) 지그문트 바우먼, 『액체근대』, 225쪽.
126) 김욱진, 앞의 책, 748쪽.
127) 장은진, 「외진 곳」, 『당신의 외진 곳』, 문학동네, 2020, 12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바우만이 말하는 작은 일화 중심으로, 이 쪼개진 방의 사람들은 아주 짧게 인간관계를 맺는다. 화장실에서 휴지를 빌리거나, 자전거를 빌리거나, 세탁실에서 서로 마주치거나 하는 등의 순간순간에, 그 작은 쪼개진 공간에서 그들만의 점묘화가 그려진다.

"지난주에 9번 방으로 이사 오셨죠?"
"아, 네."
"전 3번 방이에요."
"네."
"9번 방이 웃풍은 세도 재수가 좋은 방이에요."
"네?"
"그 방에 살던 사람들 다 잘돼서 나갔어요."[128]

3번 방 여자는 그 방에 살던 사람들이 다 '잘돼서 나갔다'고 말한다. 액체근대 사회에서 '잘됐다'의 기준은 모호하다. 지그문트 바우먼에 따르면 '진보는 역사의 어떤 특징이 아닌, 현재에 대한 확신'이다.[129] 진보라는 '근대의 로맨스'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팽배한 믿음이다. 근대성은 '만들어가는' 인생밖에 알지 못한다. "근대의 개인들에게 삶이란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혹독한 과제, 엄청난 집중과 새로운 노력을 요하는 과제다."[130] 사람들은 이 혹독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불안정해진다. 이런 '근대의 로맨스'는 언제나 미완성의 사랑이고 그 미완성 속에서 삶의 모든 요소는 불안정한 조건 속에 놓이게 된다. 작품 속 '외진 곳'은 불안정한 조건 그 자체다. 어쩌면 3번방 여자가 해준 말에서 자매에게 중요한 진보는 '잘됐다'가 아니라 이 공간에서 '나갔다'는 말일 것이다.

동생은 간호조무사인 3번 방 여자에 대해 말해 주었다. 여자는 낮은 연봉과 간호사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에 지쳐서 간호 전문대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 뿐 아니라 각 방의 세입자에 대한 얘기도 번호 순서대로 해 주었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차피 조금 있다 가 버릴

128) 장은진, 앞의 책, 14쪽.
129) 지그문트 바우먼,『액체근대』, 214쪽.
130) 지그문트 바우먼,『액체근대』, 218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람들이고, 우리 또한 오래 있을 생각이 없으니까. 어쩌면 이미 아는 이야기 같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131]

동생이 전달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화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어차피 서로 조금 있다 가 버릴 사람들이고, 너무 흔하게 들어온,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같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외진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통적 기준의 동질성은 없는 집단이다. 그런 동질성은 그들에게는 중요하지도 않다. 이 세계에서 전근대적인 고체성은 이미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다. 그들에게는 공유한 과거도 없고 아마 공유할 미래도 없을 것이다. 외진 곳에서의 삶은 단지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로만 존재할 것이다. 외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착하지 못했고 일시적인 직업을 전전한다. 그들의 삶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리처드 세넷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빌 게이츠가 '사물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석유 사업가 록펠러는 유정 굴착기, 빌딩, 기계, 철도 등을 모두 소유하기를 원했다. 게이츠는 자신이 '특정 직업에 스스로를 가두어 마비되기'보다는 '어떤 가능성의 네트워크에 자신을 위치 시키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132] 록펠러와 빌 게이츠가 삶을 대하는 각각의 태도는 그 자체로 고체근대와 액체근대를 표상한다.

얼핏 보면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외로운 도시의 가난한 노동자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그렇기만 할까? 천직이나 소명, 평생직장의 개념이 존재하던 시기에는 자본과 노동자 모두 쉽게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었다. 그들은 보통 죽을 때까지 태어난 땅에 매여 살았다. 이는 안정적인 삶을 담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이동성은 극도로 제한되었다. 현재도 굴뚝 산업이 성행한 도시의 특성이 과거와 더 가깝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고체 근대적 특성이 강하게 남아있는 도시에서의 인생은 '만들어 가는' 인생이 되기 어렵다. 그 도시의 노동시장 또한 성별로 확실히 구조화되어 유지된다. 빌 게이츠같은 거부가 아니더라도 도시의 젊은 남녀는 '특정 직업에 스스로를 가두어 마비되기보다는 어떤 가능성의 네트워크에 자신을 위치 시는 것'을 선호한다. 그런 의미에서 고체 근대적인 공간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

131) 장은진, 앞의 책, 23쪽.
132) 지그문트 바우먼,『리퀴드 러브』, 199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은 안정이나 돈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안정된 고향을 떠나 대도시의 '외진 곳'을 향한다.

도시는 그렇게 사람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내쫓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적 삶은 양면적이다. 때로 도시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질적이고 거대한 도시일수록 개인에게 제공하는 매력도 더 많다. 이방인이 밀집된 대도시는 혐오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자석'으로 작용한다. '소도시적 삶의 단조로움'에 지치고 '반복적인 일상에 싫증'나 있고 '아무런 기회도 없음에 좌절'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인다. 다양성의 다른 말은 기회의 약속이다.[133]

도시는 불편하고 비참하고 분노로 가득 찬 시끄러운 공간이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로 도시로 몰려든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은 인간에게 있어 어차피 우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열악한' 도시에는 풍족한 생활을 향유할 기회도 존재한다.[134] 그리고 자유가 있다. 내가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불안정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체적 인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장은진의 이 작품에서는 불편하고 열악한 공간이지만 기회를 찾아 주체적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소설은 몇 가지 에피소드를 거치며 결국 각자 다른 장소에서 살기로 결심한 자매의 대화를 보여준다. 유동하는 근대에서 개인은 살고 있는 지역에 결코 매어있지 않는다.

> "언니, 넌 오래 살고 싶구나? 난 오래 안 살고 싶어."
> 나는 안다. 동생이 일본에 가려고 하는 건 오래는 안 살고 싶어도, 당장은 살기 위해서라는 걸.
> "내 꿈은 여기에 있잖아."
> 꿈이 있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동생도, 나도.[135]

꿈을 위해 동생은 일본으로 떠나고 꿈을 위해 화자는 그곳에 남기로 한다. 여기서의 꿈은 일자리이자 기회다.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이촌향도 현상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벌어졌다. 도시가 반드시 농촌

133) 지그문트 바우먼, 『리퀴드 러브』, 252쪽.
134) 후지다 히로오, 『도시의 논리』, 이정형 옮김, 도서출판국제, 1995, 201쪽.
135) 장은진, 앞의 책, 39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보다, 대도시가 반드시 중소도시보다 살기 좋은 곳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몰려드는 것은 그곳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새로운 관념과 기회와 도전 때문이다.

바우먼에 따르면 도시의 특성은 '특유의 순수한 과밀한 밀도' 때문이다. 과밀한 밀도는 필연적으로 '욕망의 집중'을 가져온다. 대도시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제기되어본 적조차 없는 질문들이 제기되고, 처리해볼 기회조차 없던 문제들을 당면하게 된다. '문제에 직면하고 질문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도전이고, '인간의 창의성을 전례 없는 길이'까지 늘린다. 역으로 이런 도시의 특성은 '유망하지 못한 장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혹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의 삶은 끊임없이 신입자를 끌어들인다. 도시의 신입자들은 새로운 시선과 해법을 탄생시킨다.[136] 그렇게 오늘도 장은진 소설의 주인공처럼 사람들은 신선한 질문과 해법을 찾아서 도시로 향한다.

2) 이중 억압의 탄생

고향을 떠난 여성들은 도시로 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 직업과 임금을 통해 자유를 얻은 여성들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순간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다. 임금 노동과 돌봄 노동이라는 이중의 노동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본고에서 살펴본 작품들에서도 이런 이중 억압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번 장에서는 2010년대 소설에서 발견되는 여성들의 이중 억압을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을 분석하며 한국 소설에 나타나고 있는 노동과 여성의 문제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윤이형의 '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양이'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인 두 남녀가 가정의 수입, 가사노동, 육아의 밸런스로 인해 어떻게 점점 분열되는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희은과 정민은 애초에 결혼이라는 제도에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초록을 임신하면서 결혼이라는 제도에 편입된다.

136) 지그문트 바우먼,『리퀴드 러브』, 237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희은은 열정이 소진되는 것이 두려웠다. 정민은 꿈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 무서웠다. 그런 것이 그들의 생에서 가장 큰 공포였다. 삶 자체, 일상 자체, 생활이라는 거대한 턱 자체가 그들을 입에 넣고 단번에 머리와 몸통, 사지로 토막 내 바닥에 침과 함께 뱉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137]

> 결혼을 피해 다녀야 한다는 사실은 그들 각자에게 너무 자명한 것이었기에 따로 시간을 내 대화를 나눠볼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두 개인을 원래의 모양과 형질대로 온전히 놔두면서 지속되는 결혼의 모범 사례라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 결혼은 그들과는 다른 계급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고, 남미의 오지 같은 곳으로 그들로서는 꿈꿔볼 수 없는 호화스러운 여행을 떠났다가 처음 보는 거대한 파충류에게 물려 신체의 일부를 잃고 돌아오는 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138]

희은은 “자신의 어머니가 왜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알게 된 뒤”로 가족이라는 개념에 양가감정을 지니게 되었다. ‘동거인’ 신분으로 남편 없이 아이를 양육했던 희은의 원가정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희은은 그런 이유에서 동거가 아니라 결혼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그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 장류진의 ‘도움의 손길’ 속 화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그랜드 피아노’에 비유한 것처럼, 이 소설의 화자는 결혼을 ‘호화스러운 여행’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호화스러운 여행은 예상대로 ‘거대한 파충류에 물려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만다.

> 그는 젊었다. 얼굴을 모르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 젊은 자신, 자유로운 자신을 죽이기로 마음먹었고 단 몇 시간 만에 그 일을 혼자 묵묵히 치러냈다. 그는 그 제의의 결과가 무엇으로 돌아올지 알지 못했지만 그것 역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희은은 정민의 내면을 알아차릴 여유가 없었다. 희은은 자

137) 윤이형,「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양이」,『이상문학상 작품집』, 2019, 문학사상, 38쪽.
138) 윤이형, 앞의 책, 38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신의 몸이 자신의 것임을 알았고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도 않았으므로 눈물을 흘렸다.[139]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처럼 "행복한 가정은 모두 닮은 것 같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작품 속 가정의 불행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기반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당연히 영위되는 것으로 착각한 채 살아가기도 한다. 평소에 일상은 의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상의 어떤 단면이 쪼개지는 순간, 일상의 최소 단위인 가족은 손쉽게 붕괴되기도 한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먹고, 입고, 안정된 곳에서 잠을 자는 생활은 최소한의 수입을 필요로 한다. 많은 경우 그 역할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수입원자의 수입을 통해 해결된다. 보통의 가정은 그 역할을 남편이 해낸다. 하지만 이 작품 속 정민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이다. 결국 그는 자신의 미래를 반납하고 휴가와 여가라는 개념을 잊으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희은이 번역가로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걸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도 노력한다. 그는 '그런 종류의 사회적 활동이 주는 활기와 여분의 자존감, 사회의 다른 남자들이 떵떵거리며 누리고 사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자신을 설득하며 가정을 힘겹게 꾸려간다. 하지만 이 가정의 경제는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희은 또한 정민의 수입과 자신의 수입을 견주며 시대착오적인 죄의식에 시달린다.

똑같은 노동이었고 그나마 정민의 벌이보다 아주 조금 나은 벌이일 뿐이었다. 버는 액수로 사람에게 가치를 매기고 그에 따라 권력을 분배하는 그런 종류의 천박함은 자신 안에 없다고 희은은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 둘이 버는 돈을 어떻게 합쳐 봐도 3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자꾸만 불안해졌다. … 희은은 자신의 시대착오적인 죄의식이 꼴보기 싫었다.[140]

남성 주 생계부양자를 모델로 하는 가족임금경제 체제 아래에서 기혼 여성

139) 윤이형, 앞의 책, 42쪽.
140) 윤이형, 앞의 책, 58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은 종종 희은과 같은 딜레마에 시달린다. 기혼 여성, 특히 육아를 수행하는 여성은 임금을 벌어서 가정 경제에 이바지해야 하지만 가사 노동과 육아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중 억압에 시달린다. 도시로 와서 자유와 임금을 얻은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가사 활동과 임금 노동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 놓인다.

삶의 터전과 일의 터전이 거의 일치했던 과거와 달리 산업화 사회에서 일터는 가정과 분리되어 있다. 임금노동을 위해서는 일터에서 전일적으로 투신해야 한다. 기혼 여성들의 갈등은 이렇게 바뀐 노동환경에서 두 활동을 쉽게 결합할 수 없다는 데서 시작한다. 기혼 여성들이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려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의 재정 상태가 괜찮으면 일하러 가지 않고 가사 노동 수행과 갈등이 가장 적은 일을 찾는 것이었다.[141]

희은이 '시대착오적인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은 바로 이 전략을 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정민과 함께 노동 현장에 투신해야 하는 그들 부부는 만성적인 갈등에 시달리게 된다.

> 희은은 주생계부양자로 지내는 일이 버거웠다. 정민은 희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는 자신이 괴로웠다. … 사회는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는 명예만 주었을 뿐, 3인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물적 대가를 줌으로써 희은의 직업을 정당하게 존중해주지 않았다. 그건 희은의 잘못이 아니었다. 정민은 희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는 자신이 괴로웠다. [142]

희은의 상황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가족임금경제로 돌아가는 사회다. 많은 노동환경에서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가족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임시적인 일자리를 전전하는 남편의 수입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 임용고시 준비는 계속해서 유예되고 그렇게 불안정한 가정생활 속에서 정민의 자존감 또한 점점 추락하게 된다. 희은의 커리어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 또한 경제적 안정을 주는 일감만 찾게 되면서 일을 추구하며 얻는 근대적 야심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

---

141) 조앤 W 스콧·루이스 A 틸리, 『여성 노동 가족』, 김영 옮김, 앨피, 2021, 231쪽.
142) 윤이형, 앞의 책, 59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사회와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끝이 깨끗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다. … 정민도 어느새 삼십 대가 훌쩍 넘어 있었다. 나의 시간은? 정민은 처음으로 '나'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동안 정민의 생활에서 '나'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오직 정민 자신의 과오이자 결격 사항이 되어 있었다.[143]

> 문학을 포기하고 실용서 한 권을 어렵게 번역한 다음 희은은 당분간 번역 일을 쉬기로 했다. 기쁠 리 없었지만 이제 희은에게는 그 일이 주는 사회적 인정보다는 경제적 안정이 더 중요했다.[144]

그간 누적된 갈등으로 이 가족은 결국 해체된다. 윤이형의 이 작품은 가부장제 안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역할로 인해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지 보여준다. 젠더화된 채로 왜곡된 화폐경제 하의 임금 체계는 가족임금경제 체제로 운영되지 않는 가족의 일상을 파괴한다. 화폐경제는 토지에 종속된 과거의 가부장제는 해체했지만 가족임금경제는 고유한 성별 역할을 고착화하는 데 여전히 기여한다.

화폐경제의 발달로 가족관계는 점진적으로 해체되었고 이는 가족 관계 내에서 일정 부분 수용되었던 가사 노동이나 돌봄의 영역을 '비공식 영역'으로 남겨두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이런 비공식 경제 영역은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수행되는 대부분의 노동이고 임금 노동이 주가 된 화폐 경제 시대에 이 노동은 대부분 지워진 노동이 되었다. 지워졌지만 명백히 존재하는 이 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성들은 분투한다. 노동력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지워진 노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게 된 여성들은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여성의 직업 게토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여성들은 본인의 사회적 계급과 상관없이 일상 속에 치여 산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여성이라 해도, 아무리 '자유로운 영혼'을 표방하는 여성이라 해도 가정 내에서 여성에게 기대되는 비공식 영역의 노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성들에게 일상은 무거운 짐이다. 앙리 르페브르에 따르면 '그녀들을 일상성 속에서 주체인 동시에 희생자'이다.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 굉장히

143) 윤이형, 앞의 책, 61쪽.
144) 윤이형, 앞의 책, 78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모호한 위치를 차지한다. 여성들의 어깨에 내리누르는 일상성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그녀들의 선택은 많은 경우 '자발적'이라고 간주된다.

김유담의 작품 '안(安)'에는 '일상성 속에서 주체인 동시에 희생자'인 모호한 위치의 여성들이 여럿 등장한다.

이슬아는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안(安)'을 주목했다. 이 제목의 한자를 살펴보면 지붕 밑에 계집들이 있어야 비로소 편안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이슬아는 "지붕 밑의, 집 '안'의 계집들은 어떠할까? 이 편안은 누구의 것이며, 누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편안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145]

가족 관계로 얽힌 그녀들 사이에는 복잡한 가부장제 역할극이 벌어진다. 이 작품의 화자인 윤미의 주변에는 세 명의 기성 세대 여성이 있다. '여자라서' 전문직을 해야 한다는 친엄마와, '여자라서' 가족의 돌봄을 행복으로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큰엄마, 그리고 공과의 결혼을 통해 '며느리'의 역할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기를 바라는 시어머니가 그녀들이다. 윤미를 둘러싼 기성 세대 여성 3인의 각각 다른 태도에 윤미는 혼란스럽다. 그들이 윤미에게 기대하는 태도가 너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윤미 본인도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는 자신의 사회적 자아와 완전히 다른 모습의 '며느리' 역할을 수행하는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디에도 고민을 내놓지 못한다. 공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그들의 가정에 많은 기여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결혼이 얼마나 수로 계산되는지는 Ⅱ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윤미는 이런 역할극 속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모든 행동을 평가받는 데 그 '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삼자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었지만 친구나 동료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건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꺼려졌다. 젠더 이슈와 성평등 문제에 대해 진보적인 시각의 기사를 쓰는 기자인 내가 정작 시가에서는 주말마다 설거지를 하느라 녹초가 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 대신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입했던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찾아보곤 했다. … 그런 이야기는 아무리 읽어도 질리

145) 이슬아,「어디로 가나요? - 김유담의 소설들을 중심으로」,『황해문화』2022년 봄호, 19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지가 않았다. …자신의 고통을 강하게 호소하는 글의 대부분은 시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적이 없음을 강조하고 맞벌이 여부와 소득 수준에 관한 정보를 꼭 밝혔다. 그것이 상식과 비상식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도 된다는 듯이.[146]

현대인에 팽배한 계산적 이성은 큰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윤미와 큰엄마의 며느리인 새언니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큰엄마의 죽음에 대한 윤미의 타박에 마음에 상한 새언니가 윤미 시가의 재력을 부러워하며 '그런 시댁이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계산적 이성이 발달한 현대인들은 재력 여부로 가부장제 역할 수행극의 자격 여부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큰엄마는 윤미에게는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새언니에게 큰엄마는 윤미가 그토록 견디지 못했던 시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부장제를 위시한 시가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앞둔 윤미 또한 큰엄마의 부고를 받자마자 새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추궁하고 그녀가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층적인 내면을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의 모든 여성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극을 수행하느라 모두가 서로에게 조금씩 적이 된다. 공의 가족에게서 강요받는 '며느리' 역할을 버거워 했던 윤미는 새언니에게 '며느리' 역할을 강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 엄마는 내가 공부를 덜 해서, 고소득 전문직이 못 된 탓이라고 했고, 큰엄마는 내가 공부를 너무 한 게 문제라고 했다. 심지어 공의 엄마는 내가 친정에서 제대로 못 배우고 자라 이 모양이라고 했다. 나는 그들의 말이 모두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일일이 바로잡기는 어려웠다. 큰엄마 안금자, 친엄마 정은주, 공의 엄마 윤혜숙까지 세 엄마의 삶과 부딪치면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나는 그저 그들과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을 뿐이다.[147]

현대 사회가 되면서 가족 관계는 점차적으로 수평적으로 바뀌었다. 수평적

146) 김유담,「안(安)」,앞의 책, 54쪽.
147) 김유담, 앞의 책, 72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관계 아래서 그들은 순수한 애정을 주고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고도의 산업화와 학력화를 겪는 동안, 가족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였다. 능력주의 사회의 도래가 그것이다. 이는 과거 토지에 종속되어 있던 상속제도의 소멸을 가져오지 않았다. '상속의 방식 혹은 전략'을 바꾸어 놓았을 뿐이다. "부모는 재산을 직접 물려주는 방식에서 자녀의 몸에 그것을 투자하고 그 몸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상속을 실행한다. 아이들은 상속자이면서 동시에 투자 대상, 즉 재산 자체가 된다. 상속이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양육 기간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은 만성적인 갈등상태에 놓인다."[148]

이제 자녀는 재산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사회적 통념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이나 애정을 당연시 하지만 실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쓸모'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미가 자신의 엄마와 평생 갈등을 겪은 '전문직이 되지 못했다'는 문제는 사실 부모가 그녀에게 투여하고 기대한 자본만큼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경제적 갈등이기도 하다.

결국 '내 일을 포기할 정도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공과 이혼을 결심하는 윤미는 여성의 성공을 강조한 친엄마의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는 듯 보인다. 하지만 윤미의 유년이 외롭지 않게 살뜰히 사랑을 주고, 이바지 음식을 보내주고, 언제나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 준 큰엄마를 떼어놓고 윤미를 설명할 수는 없다. 큰엄마의 돌봄 노동 없이 윤미가 성장했다고 말할 수 없음을 윤미 자신도 알고 있다. 이 부분을 알고 있기에 윤미는 갈등한다.

이 소설 속 갈등은 '가족제도가 여자들을 분할하는 방식' 그 자체에서 발생한다. 가족에 대한 큰엄마의 돌봄은 윤미를 애정 속에서 자라게 해주었지만, 바로 그 사랑의 방식 때문에 동서인 윤미의 엄마나 며느리인 새언니는 숨이 막혔다. "여자들이 각자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존중받을 수 있었다면 누군가의 사랑을 구속과 부담으로만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사랑의 진위가 아니라 그 사랑을 의무로 둔갑시키는 구조에 있다. 여자들은 의무를 부과하는 가족제도 속에 놓이는 순간 서로에게 악역이 된다."[149]

148) 김현경, 앞의 책, 187쪽.
149) 이지은,「작가조명 '퀸 핀'의 마음」,『창작과비평』제 196호, 365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우리시대의 돌봄 노동

본론 제 2장 3절에서는 최근의 문학 작품에서 주목하고 있는 돌봄의 의미를 탐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돌봄의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 시국을 맞아 가정 내 보육과 간병이 활성화되면서 사회의 많은 돌봄 노동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더불어 많은 작가들이 돌봄 노동에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수행해왔다. 이는 여성 작가들이 대거 포진함으로 인해 그들의 경험이 문학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작품들에서도 근본적인 갈등의 문제는 돌봄 노동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해체된 가족 관계를 기반으로 세워진 도시에서 돌봄의 문제는 보다 첨예하다.

낸시 프레이저는 돌봄 노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보살핌과 물질노동으로 구성되며 종종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이 노동은 사회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 이 노동 없이는 문화도 경제도 정치구조도 있을 수 없다”[150]

가족관계가 해체된 현대 사회에서 과거 가족 내에서 수용되었던 ‘돌봄’은 사회 시스템으로 많이 수용되었지만 여전히 필수불가결한 노동은 가족 내에 잔존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은 주로 어린 아이이거나 늙은 노인이다. 그들은 매우 연약한 존재이지만 쉽사리 통제되지 않는다. 벽이 세워지고 모든 공간이 인클로저 된 도시 공간에서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통해 타인을 경계하고 자신을 보호한다. 때문에 이들은 쉽사리 통제되지 않는 존재에 대해 커다란 거부감을 느낀다. 도시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자들은 도시라는 공간이 주는 자유의 이면인 사람들의 냉담함에 시달리기도 한다.

구병모의 작품 ‘지속되는 호의’에서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서영은 ‘상호 불쾌하지 않을 만큼의 선의를 갖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 맺기’가 올바른 현대인의 자세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도시인이다. 서영은 남편과 함께 아이 상휘를 데리고 실내수영장에 방문한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연히 맞닥뜨린 한 남매로 인해 그녀의 휴식은 위기를 맞는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 주는 호의를 베풀었더니 아이는 동생의 음

150) 낸시프레이저,「자본과 돌봄의 모순」, 『창작과 비평』 제 175호, 330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료수까지 서영에게 요구한다. 남매는 계속해서 서영과 상휘에게 다가와 물을 튀기며 위협적인 장난을 친다. '분별력 있는 어른'으로써 서영은 아이들을 잘 타일러 보내려고 하지만 남매는 말을 듣지 않는다.

> 선을 그어야 한다 두껍고 진한 실선을.[151]

서영은 사람들 사이의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수영장에서 만난 아이들은 자신들을 방치하는 아버지를 두고 계속해서 서영의 근처를 맴돈다. 서영은 자신은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도 분명히 표했지만 남매는 계속해서 가족의 시간을 침범하다 서영의 필름 카메라에 물을 튀기기까지 한다.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남매의 아버지에게 화가 난 서영은 그 아버지를 찾아 나선다. '돌봄의 주체가 돌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현장'에 대한 타인의 불만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느껴진다.

> 자신은 최대한의 호의를 보였고 저 아이들이 그것을 권리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며 누가 자신의 부모인지도 헛갈려서는 재미없다고. 가끔씩 선글라스 돼지를 힐끔 내려다보고 때론 턱짓이나 손짓도 해가면서 그가 노이즈캔슬링 이어폰을 꽂았다 한들 도저히 듣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분명하게 설명했다. 지금까지 상휘를 돌보아야 할 피 같은 시간과 여력을 소비해가며 저 아이들의 의이한 요구나 기대에 나름대로 부응해주었지만, 수영장 물에 섞인 두 아이의 타액을 머리와 몸에 맞은 것까지 귀엽게 보아 넘길 도리는 없다. 아이들의 아빠라는 자는 이쪽이 얼마나 난처하든지 거들떠도 안 보고 있으며, 보호자가 없지도 않은 아이들이 타인에게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장난을 걸고 있는데 이 아빠도 알 걸 알아야 한다. 입장료를 지불하고 새끼들을 물에 밀어넣은 걸로 역할을 다 했다는 듯 방관하는 이 아빠가, 자기 새끼들이 비록 악의에서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못살게 군다는 사실 정도는 인지해야 하며 그건 렌즈나 몇 푼짜리 주스의 문제가 아니라고. [152]

남자에게 따지는 사이 상휘와 남매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서영은 상휘를

151) 구병모,「지속되는 호의」,『단 하나의 문장』, 문학동네, 2018, 104쪽.
152) 구병모, 앞의 책, 111-2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찾으러 다닌다. 수영장 곳곳을 다니며 아이들의 행방을 묻지만 이웃들은 그녀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는다.' 이는 그녀가 이웃들에게 원하고 자신도 행해왔던 방식 그대로의 행동이다. 사람들은 수영장을 헤집고 다니는 서영을 '유난스러운' 엄마로 생각한다.

최근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많은 멸칭이 생겼다. 이는 거리두기를 실천하려는 도시인의 본능이 돌봄 노동 과정에서 타인의 자유를 일정부분 침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양육자들의 태도와 충돌하면서 생겨난 현상이기도 하다. 소설의 말미까지 서영은 아이를 찾아 헤맨다. 서영은 타인과의 적정한 거리를 보장받기를 원하면서 '배려'라는 이름으로 '무관심'을 합리화하는 전형적인 도시인이다. 하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녀는 이웃의 도움이 누구보다 절실해지고 '선을 넘는 관심'을 필사적으로 갈구하게 된다. '상대에게 자신의 모두를 내맡기지 않기. 무엇보다 상대를 온몸으로 느끼지 않기'를 인간관계의 원칙으로 아이에게 가르치는 서영의 그 태도, 대도시의 모두에게 만연한 그 태도 때문에 아이와 양육자의 삶에 주목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무관심은 정당화될 수 있다.

평론가 신샛별은 "이 소설은 '대도시적 거리'가 조형하는 인간관계의 자유로움 이면에서 전 사회적 관심과 주의를 요하는 아이들의 삶과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받는 양육자의 불안이 얼마나 소홀하게 다뤄질 수 있는지를 일깨워준다."고 말했다.[153]

구병모는 돌봄 노동의 문제에 천착해 온 작가다. 구병모의 많은 작품에서는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돌보는 여성이 등장한다. 작품 속 여성들이 마주한 이웃들이 보기에 그녀들은 매우 신경질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다. 남편을 포함한 그들 주변의 사람들은 그녀들을 유독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신샛별은 같은 글에서 "구병모는 여성-양육자가 안전하다고 느낄만한 곳은 어디인지 묻는다. '대도시적 거리'를 인간관계의 기본값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 작가는 질문하고 있다."고 말했다.[154]

도시인의 거리두기가 기본값으로 설정된 대도시에서 우리는 '여성-양육자'

153) 신샛별,「고뇌하는 키마이라의 명함」,『단 하나의 문장』, 2018, 298쪽.
154) 신샛별, 앞의 글, 29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들에게 불친절하다. 그녀들에게 붙여진 많은 멸칭을 증명하는 에피소드들이 인터넷 공간에 부유하고 그 글은 수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는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아래서 양육자들은 자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검열한다. 이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받는 대도시의 양육자들은 나날이 불안하고 예민해지고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아래 놓이게 된다.

정한아의 소설 '술과 바닐라'에서도 돌봄 노동 양육자의 문제가 전면에 대두되고 있다. 이 소설에는 경기도 외곽의 한 도시에서 드라마 극본을 쓰면서 율이라는 아이를 키우는 화자가 등장한다. 그녀가 구한 첫 번째 시터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을 알고 그녀는 시터를 해고한다. 이후 직접 아이를 돌보며 일을 병행하고 있다. 그녀의 남편은 화자에게 '아이 맡길 사람을 구하든지,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한다. '대체 이게 *무슨 욕심*'이냐고 아내에게 핀잔을 준다. 여성 양육자가 주체적으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행위는 언제나 '욕심'으로 취급되지만 현대 사회에 만연한 이중 억압으로 인해 그녀는 일도 양육도 포기할 수 없다. 이중 억압에 시달리는 화자는 드디어 새로운 시터를 만나게 된다. 새로 구한 시터는 평생 시조모와 시모를 돌보는 돌봄 노동에 시달려온 노년의 여성이다. "도망간다고 뭐가 달라지나"는 마음으로 평생을 버텨온 그녀는 모든 옷을 섬유유연제를 풀어둔 물에 하루 담가둔 후 세탁을 할 만큼 냄새에 민감하다. 노인을 돌보면서 평생 맡아온 인분 냄새를 떠올리지 않기 위해 몸에 밴 습관이다. 그녀의 살뜰한 보살핌은 점점 화자의 가정에 스며든다. 부탁하지 않은 옷장 서랍 정리까지 해주자 화자의 주변인들은 "사생활 침해"라고 정색을 하지만, 당시 화자는 "사생활의 대체 뭔지 묻고 싶을 정도"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도시인 특유의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망각할 만큼, 그녀는 매우 지쳐있다.

그 사이 율이는 자라고 부부의 경제 사정도 좋아진다. 그들은 처음 그들이 결혼할 때 목표로 한 서울의 한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된다. 아이도 자라고 물리적 거리도 멀어진 만큼 화자는 이모님과의 관계를 종료하려고 했지만 이모님은 그들 가족을 돌보는 주체로서의 자리를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왕복 네 시간의 통근을 감안하고서라도 그들의 집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한다. 화자는 이사 온 첫째 날, 이모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다. 돌봄이 필요했던 율이는 이제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나이이고 자신과 남편도 자리를 잡았다.

> 전과 차이 나게 넓어진 평수나 아이보리 톤으로 맞춰 새로 채운 가구들을 보고도 이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온통 새것인 집 한가운데서 그녀는 홀로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시간이 지나가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155]

유치원 입학을 앞둔 율이를 본 원장이 '수와 한글을 모르는 건 둘째 치고 배변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입학이 어렵다'고 하자 화자의 눈에 그간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뒤떨어진 율이의 교육을 위해 가정교사를 고용한 화자는 이모님을 해고하려고 하지만 오랜 기간 많은 유대감을 쌓아온 그 관계를 끝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화폐 경제 하에서 모든 노동 관계는 계약 관계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돌봄 노동 수행자와 고용주의 관계는 임노동과 완전히 같은 성격일 수 없다.

> "해고라고 한마디만 해. 간단하잖아."
> 남편은 충고하듯 말했다.
>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 그는 내가 이사를 오기 전에 이모님에게 그 말을 했어야 했다고 했다. 당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 당신의 쓸모가 다했다는 말. 그런 말을 하고, 또 듣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나는 이것이 *사회생활*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156]

남편은 아이를 돌보면서 자신의 일을 유지하려는 화자에게 '이게 무슨 욕심'이냐고 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모님의 거취에 대한 부분을 아내에게 떠넘긴다. 단순히 해고라고 한 마디만 하면 끝날 관계라는 남편의 말에 아내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모님과 그녀의 관계는 일반적인 '사회생활'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 관계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그렉슨과 로(Gregson and lowem 1994)가 밝힌 '잘못된 친척 관계'이기 때문이다.

155) 정한아,「술과 바닐라」,앞의 책, 61쪽.
156) 정한아, 앞의 책, 6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는 그녀를 보는 것이 점점 더 불편해졌다. 처음부터 그녀를 이곳에 오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상황이 영영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해도, 일할 만한 다른 집을 알아봐주겠다고 해도 이모님은 꿈쩍하지 않았다.

…

그 뒤로는 아침에 이모님이 도어록을 여는 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집안이 그 여자의 존재로, 속이 울렁거리는 향기로 가득 차는 것 같았다. 나는 아침마다 피신하듯 집을 나왔고 하릴없이 근처의 카페에 머물다가 이모님의 퇴근 시간에 맞춰 들어갔다.

새 이웃들은 이미 나를 잘 안다는 듯 인사해 보였다. 율이와 이모님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몇 살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전에 살던 곳이 어디인지까지 알고 있었다. 같은 일이 얼마쯤 반복되고 나서야 이모님이 나에 대해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시니 얼마나 좋아요?"[157]

이모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던 화자는 이웃들과 만남을 통해 그녀가 자신을 '친정어머니'로 지칭하며 내밀한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처럼 이모님을 바로 해고한다. 이모님은 왜 자신을 친정어머니라고 이웃들에게 소개했을까? 이 이야기를 들은 화자는 이모님이 '선'을 넘었다고 느꼈을 것이다. 도시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분노했을 것이다. 하지만 신 인클로저 운동으로 많은 벽들과 경호 시설이 즐비한 현대 도시에서 가정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돌봄 노동 수행자는 화자의 말처럼 '사회생활과는 다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하이데거는 "거주(dwelling) 또는 가정(home)이 인간과 사물 간의 영적 통일성(spiritual unity)이 발견되는 핵심 장소"라고 보았다.[158]

프랑스 이론가 가스통 바슐라르도 "거주 및 가정이 사람들의 장소 소속감을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라고 보았다. 그는 '가정에서는 기억과 상상력이 서로 연관되면서 서로를 강화한다. 기억과 상상력은 함께 하나의 기억과 이미지를 지닌 공동체를 구축한다. 따라서 집이란 단순히 나날이 경험되는 것이

157) 정한아, 앞의 책, 64-5쪽.
158) 린다 맥도웰, 앞의 책, 13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니라 일련의 서사로 또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집은 인류의 사상·기억·꿈을 통합하는 가장 위대한 것들 중 하나다. 집이 없다면 인간은 흩어지는 존재였을 것이다'고 말했다.[159] 바슐라르에 따르면 가정은 기억 저장소다. 그는 "우리의 기억 뿐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사물들도 '집에 보관되어 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의 거저다. 그리고 우리는 '집'과 '방'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들 자신 속에 거주하는 법을 배운다"고도 말했다.[160]

기억의 창고로서 집과 가정은 기능하고 이런 집과 가정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것이 돌봄 노동의 특성이다. 이 작품 속 돌봄 노동자인 이모님은 지난 5년간 율이를 키우고 부부를 돌보면서 그 집을 자신의 '기억 창고'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모님은 자신의 영혼의 거처로 사용했던 이 집을 떠나기 싫어했고 새로운 공간에서 마주한 이웃들에게 '잘못된 친척 관계'로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 소설의 화자에게 이런 이모님의 행동이 마냥 유쾌할 수는 없다. 최정화의 '구두'나 김유담의 '연주의 절반'에서처럼 가정 내에 들어와 아이를 돌보는 노동자를 침입자로 인식하고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현대 소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두려움 중 하나인데, 이 작품 속 이모님 또한 그런 강렬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끝이 난다. 하지만 이모님과 함께 자란 율이에게 그녀와의 기억은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이 작품의 화자 또한 자신과 이모님의 사이가 '잘못된 친척 관계'였든 아니든,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점을 인정하게 된다.

> 율이는 이모님을 기억하지 못했다. 생애의 가장 작고 약한 시절 자신을 안아주고 지켜준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하지만 한편 그애는 만둣국을 제일 좋아하고, 숲을 제집처럼 쏘다니며, 오래된 나무를 올려다보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소년으로 자랐다. 아이는 열다섯 살이 되면서 남편의 키를 앞질렀다.
>
> …
>
> 그녀가 나를 딸로 여겼던 아니든, 인생의 한 시기 우리가 가장 가까운 관

159) 린다 맥도웰, 앞의 책, 134-5쪽.
160) 린다 맥도웰, 앞의 책, 135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계였던 것만큼은 사실이었다. [161]

그렇게 그들의 잘못된 친척관계는 기억 창고 속에 남겨진 채로 종료된다. 돌봄 노동의 문제를 다룬 많은 작품에서 많은 경우 돌봄 노동 수행자와 양육자 사이의 갈등이 주요 에피소드로 활용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김유담의 '돌보는 마음'에서도 같은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이 작품의 화자 미연은 복직을 앞두고 베이비시터를 알아보는 중이다. 시터를 구하기만 하면 해결될 줄 알았던 일과 가정의 양립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시터와 호칭 문제를 정리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노동 계약을 맺은 관계지만 '잘못된 친척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본인이 먼저 그렇게 불러 주는 거면 토 달지 말고 사모님 소리 들어. 말 놓고 하대하라고 하다가 오히려 책 잡히기 십상이라니까."
> "그.. 그런 거니? 그래도 사모님은 너무 민망한데. 근데 나는 뭐라고 불러야 해?" 선생님? 이모님? 시터님?"
> "야! 그냥 아줌마라 불러.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 해. 니가 고용인이고 그 쪽이 피고용인이라는 걸 말이야. 괜히 만만하게 굴었다가는 상전 한 명 더 모시게 되는 거야."[162]

미연의 일상을 따라가다 보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여러 조건에 맞는 시터를 찾는 일 또한 많은 노동력이 든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는 온전히 가정의 여성 구성원이 수행한다. 시터가 물건을 훔치는 일을 고민하는 상황에서도 남편은 '총체적인 퍼포먼스로 평가'를 하라며 이 문제를 미연의 '감정'으로 치환한다. 돌봄 노동을 외주화하는 장면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여성의 스트레스에 대한 남편의 이러한 무심한 태도는 여러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매우 낮은 맞벌이 가정의 가사 노동 분담율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베아트릭스 캠벨의 말처럼 "남자에게 가정은 자신만의 성채이지만 그곳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조심"하기 때문이다.[163] 이런 상황 속에

161) 정한아, 앞의 책, 69쪽.
162) 김유담,「돌보는 마음」, 앞의 책, 155쪽.
163) 린다 맥도웰, 앞의 책, 145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 집안에 들여야 하는 낯선 이방인에 대한 의심과 불안은 온전히 여성인 미연의 몫이다.

> "지우 엄마, 우린 지금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업무를 아웃소싱한 거라고.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제는 덮고 총체적인 퍼포먼스로 평가를 해야지. 이 일로 그 아주머니 해고하면, 갑자기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 건데? 감정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
> 지난 3개월간 정순의 모든 말과 행동을 곱씹어 보면서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힌 미연과는 달리 기훈은 시종일관 차분한 태도였다.[164]

미연은 예민하고 별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베이비시터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나라면 내 아이를 처음부터 그런 집에 보내지 않지'라는 말을 듣는 처지가 된다. 일하는 여성들이 언제나 대면하는 이런 죄의식에서 미연도 자유롭지 않다. 이는 돌봄 노동을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는 돌봄 노동 주체자의 딜레마다. 아무리 완벽한 베이비시터를 구한다고 해도 여성은 근원적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양육 과정에서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엄마가 아이를 돌보지 못했기에 발생한 일'이라는 비난이 여성들의 어깨 위에 짓눌려지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김유담의 '연주의 절반'의 한 장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연주의 아이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게 된 사고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엄마인 연주를 비난한다. '아이를 사고로 잃었을 때 남편과 시가에서 그녀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난하고 원망했는지, 자신의 편이 될 줄 알았던 친정 부모님까지 연주를 비난하며 사돈 앞에서 죄인처럼 구는 상황' 속에서 연주는 결국 이혼을 택하게 된다. 연주의 말대로 '나를 아는 모두가 엄마 역할을 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한다. 이렇듯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죄책감은 전 생애에 걸쳐 이어지게 된다.

송종원은 "'모성'과 '사랑'이라는 언어의 포장을 살짝 벗기면 거기에는 아이 돌봄의 실체가 생생하게 드러난다. 그 현장에서 취약한 존재는 생존을 위해 양육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이만이 아니라, 출산과 육아라는 생애주기를 통과하며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재편해야 하는 양육자이기도 하다."고 말

164) 김유담, 앞의 책, 165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며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165]

여성은 전 생애에 걸쳐 가부장제가 부여한 다인극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녀들은 감정적, 육체적으로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이 작품에서 미연의 아이를 돌보아주는 102동 할머니 또한 그 노동의 거대한 무게를 평생 지고 살아왔다.

> "이 노인네야, 미치려면 곱게 미쳐! 먹기 싫으면 처먹지를 말든가."
> 머리카락에 밥풀을 잔뜩 붙인 노인이 네발짐승처럼 엎드려 손으로 땅바닥에 죽을 짓이겼다가 그것을 다시 주워 먹었다. 아까 낮에 지우가 먹은 것과 똑같은 쇠고기 버섯죽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놀란 미연이 자신의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을 쳤다.
> …
> "시어머니인데 지금 치매가 심하셔. 지난 연말까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죽어도 병원은 싫다는 바람에 이렇게 집에 모셔 오게 됐어. 나야말로 저 노인네 이 집에 데리고 오는 거 죽기보다 싫었어. 내가 저 노인네한테 당하고 산 세월이 어떤 건지 미연 씨는 상상도 못할 거야."[166]

이 돌봄 노동의 사이클 속에서 102동 할머니의 신경과민은 극에 달한다. 그녀의 일생은 돌봄 노동을 수행하며 지나왔다. 보통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양육자로, 가정을 돌보는 가사노동자로, 노인들을 돌보는 간병인으로, 다시 또 자녀의 아이를 돌보는 돌봄 노동자로, 전 생애에 걸친 돌봄 노동 사이클을 수행했다. 평생 자신을 괴롭힌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그녀는 미연의 아이를 돌보는 일도 수행한다. 해체된 가족관계를 부유하며 돌봄 노동을 답습하는 처지에 놓인 노년의 여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김유담의 다른 소설 '특별재난지역'에도 이런 돌봄의 다인극을 수행하는 여성이 등장한다. 소설의 화자 '일남'은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 같이 사는 남편, 아들이 맡기고 가버린 손녀까지 돌보아야 하는 삼중고의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 노동에 어떤 사회적 책무도 부여받지 않은 일남의 남편은 속없

165) 송종원, 「돌봄은 어떻게 문학이 되는가」, 『창작과 비평』 제 196호, 20쪽.
166) 김유담, 앞의 책, 17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소리를 하며 일남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 "장인어른 잡숫는 거 보이까, 백 살까지는 충분히 사시겠는데예."
> 오늘따라 경호는 속없는 소리만 했다. 일남은 대명의 나이를 헤아려 보았다. 아흔둘, 이미 너무 많지 않은가. 백 살이라니. 백 살까지 여기에 갇혀서 남은 생을 보내라니, 그건 악담이나 다름없었다. 대명이 이곳에 들어온 지도 벌써 2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솔직히 부친이 요양병원에서 이렇게까지 오래 버틸 줄은 몰랐다. 너무 길어져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일남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일남은 매주 주말이면 대명에게 먹일 음식을 해다가 날랐다. 기력 보충에 좋은 보양식 위주였다.[167]

이런 삼중고를 견뎌내면서도 일남은 일남의 가족 중 그녀의 돌봄 노동이 유일하게 미치지 않는 딸, 경숙에게만 서운함을 내비친다. 돌봄 노동은 가족 내에서도 여성에게만 수행되기를 기대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서로를 쉽게 비난하고 착취하는 관계가 된다. 일남은 경숙이 다른 딸들이나 며느리처럼 살뜰히 마스크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운하다.

> "인터넷으로 산다 카던데. 경숙이는 저거 딸이 마스크 백 장을 구해 갖고 집에 부치 줏다 카드라. 열 장만 내한테 팔라 캐도 딸이 힘들게 구한 거라 카믄서 싫다 안카나. 자랑을 하지나 말든지. 이서댁이도 며느리가 마스크 스무 장 주문해 줬다꼬 하대. 니는 머 하고 있노. 내가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엄마 걱정도 안 되드나?"
> "엄마, 아들한테는 이런 거 대놓고 해 달라고 못 하죠? 왜 마스크 구해 드리는 건 딸이나 며느리여야 해요?"[168]

이런 이중 억압을 거부하는 상희는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엄마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앞으로는 특별한 용건 없이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한다. 일남은 딸의 그런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상희 또한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의 책임을 어머니인 일남에게만 전가한다. 기대를 많이 하며 열심히 키운 아들

167) 김유담,「특별재난지역」,앞의 책, 229-230쪽.
168) 김유담, 앞의 책, 234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혼전임신으로 낳은 손녀를 떠맡아 키우게 된 당사자임에도 남편과 딸은 아들이 그렇게 된 원인을 일남에게서 찾는다.

> 상희는 일남이 상진을 너무 떠 받들어 키운 게 문제라고 했고, 경호는 일남이 상진에게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서 아들이 저렇게 됐다고 비난했다.[169]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도 늙는다. 일남은 점점 거뜬했던 일들이 힘에 부친다. '먹이고 치우고 먹이고 치우는' 한평생 해온 일이 이제 고단하고 버겁게 느껴진다.

체사레 베카리아는 "가족을 구성단위로 하는 국가에서는 여성과 자녀들이 가장의 전횡 아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에서 시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170] 어떤 의미에서 평생 가족의 착취에 시달린 일남은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말 할 수 있다. 일남의 동생 정필은 '부친을 돌보는 일이 보통 고생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그 고생과 끝까지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일남은 그 태도가 괘씸하지만 가부장제 하에 여성이 '당연히' 수행하리라 기대되는 노동의 짐은 아무도 나눠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 시스템으로 일부 편입된 돌봄 노동은 제대로 기능하고 있을까? 김유담의 소설 '입원'에서는 아버지의 요양원 입소를 둘러싼 가족의 소극을 살펴볼 수 있다. 화자인 홍섭은 30년 전, 대학 졸업 후 도청 소재지에서의 근무를 포기하고 부모가 사는 소도시의 읍사무소 발령을 자처했다. 이는 모두 부모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까이 산다고 해도 노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홍섭은 서울에 살면서 명절에만 부모를 찾아오는 남동생이 부럽기도 했다. 그런 홍섭은 과거 아버지의 외도가 문제가 되어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자 마음이 복잡해진다. 그나마 함께 노년을 보내는 부모를 보면서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는다는 죄책감을 던 채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꾸 자신의 나이를 40이라고 생각하며 과거의 여자를 찾는 팔순이 넘은 아버지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다. 결국

169) 김유담, 앞의 책, 238쪽.
170) 김현경, 앞의 책, 184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족은 요양원이라는 선택지를 대안으로 올리게 된다. 평균 수명은 너무나 늘어났고 가족은 이제 핵가족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돌봄 노동은 한계에 다다랐다.

D-7
그곳을 둘러보는 분례의 표정이 착잡했다.
"마지막 순간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최대한 아늑하고 편리하게 꾸며 놓았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요."
"결국은 내도 마지막엔 일로 와야겠제."
"지도 마찬가지입니더. 다 똑같습니더."[171]

현대 사회에서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마지막을 맞는다. 그곳은 죽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인간에게는 육체의 죽음 이전에 사회적 죽음이 다가온다. '사회적 죽음'은 근대 이후 심화되어온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 그리고 급속도로 심화되는 개인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172] 사회적 죽음이라 불리는 '관계의 단절'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신 인클로저'처럼, 현대인의 중요한 생활공간인 아파트나 사무실은 각각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우리는 이제 타인의 사적 공간을 침범할 수 없다. 사회적 죽음은 경제적 파산이나 실직, 가족의 해체 등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보통 노인이 되면서 시작된다. 노인이 되면서 사람들은 고립과 은둔의 시기에 접어든다.

엘리아스는 "노화의 과정에 대개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약화되는 과정이 동반된다"고 말했다. "양로원이나 경로당 같은 새로운 삶의 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전의 사회적 유대가 최종적으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개인이 어떤 긍정적·정서적 관계도 맺은 적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여기서 더 신체의 노화가 진행되면 병원이라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완전한 고립'이 시작된다.[173]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이 '완전한 고립'의 시기는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이

171) 김유담,「입원」, 앞의 책, 222-3쪽.
172)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 연구회, 앞의 책, 430-1쪽.
173)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 연구회, 앞의 책, 438-9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과정에서 가족을 시스템에 위탁한 가족들 사이에서 새로운 갈등이 싹트기도 한다. 김유담의 작품 '입원'에서 홍섭 또한 아버지의 돌봄을 두고 형제들과 작은 실랑이를 하게 된다. 돌봄 노동의 수행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가족 간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가족들은 아버지 대수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한다. 아마 대수는 '그곳'에서 쓸쓸히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가족들의 갈등을 목도하고 점점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고 사회적 죽음을 맛본 뒤에 실체적인 죽음의 단계에 진입한다. 이 소설은 인간이 살아가고 공동체를 유지하게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돌봄 노동의 수행이 지금처럼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현실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작품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도시인의 환대

1) 도시적 환대

앞서 살펴본 손보미의 '임시교사'에는 도시인의 환대에 대해 주목할 만한 장면이 있다. 작품 속 집주인은 P부인을 고용하며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흔히 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주인이 이 말을 하자마자 손님은 그 집이 '남의 집'이고 자신은 그 공간의 입구에서 주인의 환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손님은 주인의 집에서 결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십시오'에 암묵적으로 이어지는 문장은 '다만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와 같은 것이다."[174]

환대를 기대했던 초대의 순간이 순식간에 적대의 현장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도할 수 있다. 최근의 작품들 또한 이런 환대와 적대가 뒤섞인 장면을 포착하여 현대인의 순수한 환대의 가능성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본론 제 3장 1절에서는 이런 현대인의 도시적 환대의 장면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고 이를 지금까지 살펴본 도시적 특성과 연계지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한아의 '잉글리쉬 하운드 독'에는 집에 방문한 손님을 맞이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민욱과 미연은 대학 시절부터 함께 친하게 지낸 성재네 커플을 집에 들이게 된다. 두 커플은 성재의 사업 실패로 이미 멀어진 지 오래된 사이였다. 미연은 그 사업 실패의 여파가 본인들에게도 끼친 영향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의 방문이 달갑지 않다. 더구나 그녀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이미 감정적, 육체적으로 녹초가 된다.

> 토요일 오전에 미연은 두 딸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가서 고기와 채소를 샀다. 누군가를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정말로 오랜만이었다. 미연은 이

174) 강남순, 『데리다와의 데이트』, 행성B, 2022, 235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네 살, 두 살 된 두 아이를 홀로 돌보았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에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내린 결단이었지만, 힘에 부치는 것도 사실이었다. 때로는 집을 청소하고 아이들과 세끼 밥을 차려 먹는 일만으로 해가 지기도 전에 녹초가 되었다.[175]

민욱의 고등학교 동창인 성재와 그의 연인인 연주는 그들 부부와 대학시절부터 자주 어울린 사이였다. 하지만 미연의 말에 따르면 미연과 연주는 '처음부터 달랐던' 존재다. 단지 각자의 애인이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절이 있었던 일종의 시절인연이었다. 우정은 때로 그런식으로 이루어지고 빠르게 종료되게도 한다. 김현경에 따르면 '우정은 선택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정은 언제나 너무 쉽게 종료될 수 있다. "우정을 지탱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억 뿐이다."[176]

가뜩이나 결이 달랐던 그들은 결혼 후 꾸려가는 삶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졌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민욱과 미연 커플과 달리, 연주와 성재는 아이를 낳지 않고 커다란 잉글리쉬 하운드 독을 키우기로 한다. 미연과 민욱은 좁은 집에서 감당도 못할 대형견을 키우는 것은 무모한 결정이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성재의 사업이 갑작스레 잘 되기 시작하면서 그들 부부는 큰돈을 벌게 된다. 모두가 무모했다고 말했던 잉글리쉬 하운드 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집에 살게 되지만 성재의 사업이 갑자기 실패하면서 그 시절은 금세 사라져버린다. 이번 그들의 방문은 성재가 사업에 실패하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 베트남으로 도주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성재는 한국을 떠나기 전, 민욱을 찾아와 돈을 빌렸다. 구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조금이라도 좋다고 사정을 했다. 미연은 민욱이 점잖게 거절할 줄 알았다. 하지만 민욱은 기어이 적금을 깨는 무리를 해서 이천만원을 빌려주었다.

…

"연주를 생각해봐. 둘이 자매 같은 사이였잖아."
마음대로 돈을 빌려주고 돌아와서 민욱이 말했다.

175) 정한아,「잉글리쉬 하운드 독」,앞의 책, 10쪽.
176) 김현경, 앞의 책, 177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매 같은 사이가 어떤 건데? 대체 우리에 대해 뭘 안다는 거야?" 177)

의논 없이 성재에게 돈을 빌려준 남편에게 마음이 상한 미연은 몇 달간 민욱과 말도 섞지 않는다. 저녁 식사 내내 성재는 자신이 베트남에서 구상하는 사업이 아주 잘 되어가고 있으며 부부사이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자랑을 늘어놓는다. 그의 자랑을 듣던 연주가 성재의 말을 가로막고 성재는 매우 당황한다.

>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기세 좋게 이야기를 이어가던 성재는 순식간에 풀이 죽더니, 화장실에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다 그만 식탁 위에 있던 크리스털 램프를 넘어뜨려버렸다. 미연이 어렵게 공수한 앤티크 램프였다. 램프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나버렸다. 미연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정지화면에 걸린 영상 속 인물 같았다. 방에서 작은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
> …
>
> 미연은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주저앉았다. 무대에서 퇴장한 것처럼 피로가 몰려왔다. 젖은 기저귀를 갈고 막 아이를 안아 들었을 때, 노크 소리가 났다. 연주였다.
>
> "들어가도 되니?" 178)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초대받은 손님일지라도 그들은 절대 그들의 집처럼 편안히 지낼 수는 없다. 집 안에서 그들이 들어가도 되는 곳, 만져도 되는 물건은 엄밀히 정해져 있다. 대화의 주제 또한 집주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행해져야 한다. 집주인이 정해놓은 규칙에 손님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초대의 현장은 금세 적대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 이 작품 속 초대의 현장 또한 성재가 램프를 실수로 깨뜨리는 순간 적대의 순간으로 변한다. 오랜 기간 고심해서 구매한 램프가 깨지자 그녀는 매우 상심한다. 거기에 '자신들에게 아이까지 있었다면, 그 수많은 불운 중에 아이까지 있었다면 상황이 더 나빠졌을 것'이라는 연주의 말에 미연은 더욱 더 기분이 상한다. 사실 미연은 그들이 문지방을 넘어서기 전부터 그들을 적대하고 있었다. 방문 전부터 그

177) 정한아, 앞의 책, 20쪽.
178) 정한아, 앞의 책, 25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들을 환대하지 못한 미연의 마음속에서 성재와 연주는 손님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미연이 그들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인'이 자신의 '손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환대의 '포괄의 원'을 구성하게 된다."[179] "이러한 의미에서 '무조건적 환대'에 요청되는 것은 '손님'에 대하여 '알지 못함'의 영역을 끊임없이 남겨두는 것이다. '손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인'은 환대의 '조건'들을 만들게 되며, 이러한 환대의 전제조건들은 결국 지극히 계산되고 제한된 '조건적 환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180]

강남순에 따르면 "주인과 손님 사이에는 언제나 분명한 '경계의 문'이 존재하기에, 그 집에 들어가려는 손님은 주인이 문을 열어주는 행위로서의 환대가 필요한 사람"이다. 결국 주인과 손님 사이에는 '경계 공간'이 존재한다. 결국 주인은 그 집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고, 손님은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다.[181]

아이가 자고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와 그 안에서 결국 미연의 심기를 거스르게 된 연주는 "오늘 자꾸 말이 어긋나가네. 성재도 나도."라며 '손님'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절감한다.

> "미안해. 우리가 괜히 온 것 같다. 너희에게 피해나 주고."
>
> …
>
> "저기 있잖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때 빌려준 돈 말이야. 정말 요긴하게 잘 사용했어. 그 돈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정말…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게 힘들었거든, 우리."
>
> 미연은 자신이 그 돈을 빌려주는 걸 끝까지 반대했다는 사실을 말하면 연주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다. 왜 빈말이라도 갚겠다는 말 대신 고맙다고만 하는 건지도 궁금했다. 어째서 자신의 돈은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조건 없이 받은 돈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했다.[182]

데리다의 말처럼, "처음부터 환대 자체는 영원히 문지방 위에 남아 있으며,

179) 강남순, 앞의 책, 238-9쪽.
180) 강남순, 앞의 책, 239쪽.
181) 강남순, 앞의 책, 236쪽.
182) 정한아, 앞의 책, 27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문지방을 통치하고…그 문지방 자체가 된다."[183] 미연의 환대는 결국 문지방을 넘지 못했다. 데리다가 강조한 "진정한 환대는 오직 환대 너머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184]는 말은 그들의 초대에서는 실현되지 못했다. 미연은 손님인 그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 연주와 성재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베란다의 흠이 눈에 들어올 뿐이다. 그들이 오지 않았으면 오늘 수리를 했을 흠을 신경 쓰는 미연의 행동은 그들을 환대하지 못하는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는 장치다.

> 발코니 벽의 코팅지가 흉물스럽게 벗겨진 것이 미연의 눈에 거슬렸다. 그것을 말끔히 벗겨내고 페인트칠을 하는 것이 원래 오늘의 계획이었다. 손님이 오지 않았다면 말이다. 캄캄한 발코니에서 희미한 두 개의 불빛이 천천히 점멸했다.[185]

어린 시절부터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그들의 성향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연은 그들이 한심하게 느껴진다. 사업에 실패해 도피한 주제에 고급 렌트카를 몰고 오고, 타인의 망가진 삶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상황을 과장하고, 2천만 원을 빌린 친구 부부의 돈은 갚지 않으면서 그들의 아이에게 5만원이라는 용돈까지 쥐어주는 그들이 한심하기만 하다. 미연은 그들을 자고 가게 하자는 남편의 제안을 거부한다.

> "저애들, 집에서 자고 가게 하면 어때."
> "선약이 있다고 하잖아."
> "둘 다 너무 취했어."
> "무슨 참견이야."
> 미연은 짜증스럽게 말하고는 고개를 세게 흔들었다.
> "아니, 마음대로 해. 초대도 마음대로 했잖아. 돈도 마음대로 줬고.
> 나한테 묻긴 왜 묻는 건데."
> 히스테릭한 미연의 반응에 결국 민욱이 포기했다.[186]

183) 자크 데리다,『환대에 대하여』,동문선, 2004.:강남순, 앞의 책, 237쪽에서 재인용.
184) 자크 데리다,『환대에 대하여』,동문선, 2004.:강남순, 앞의 책, 237쪽에서 재인용.
185) 정한아, 앞의 책, 28쪽.
186) 정한아, 앞의 책, 34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성재와 연주가 잿빛 독일제 승용차에 오르는 것이 보였다. 고급 렌터카라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미연은 힘없이 조소했다. 그들로 인해 삶이 망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아이를 빼앗긴 채 이혼 당했고, 누군가는 직장도 그만두고 폐인이 되었다. 미연은 연주와 성재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과 다시는 얼굴을 마주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187]

미연이 성재와 연주를 알고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그녀는 그들 부부의 행동을 쉽게 판단한다. 대책 없이 그레이 하운드 독을 키웠던 그들의 행동, 스위스에서 퐁듀를 시켜서 일주일 치 식비를 날렸던 연주의 행동,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던 성재의 행동 등을 종합해 그들이 철없고 민폐를 끼치는 데 거리낌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미 그들을 '안다'고 생각했던 미연은 성재의 실수도, 연주의 감사 인사도 적대적으로 받아들인다. 미연은 이미 매우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재단한 상태로 그들을 손님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환대가 과연 가능할까? 진정한 환대란 언제나 아직은 오지 않은, 우리의 이해력 너머에 있는 '도래할 환대'의 사건이다. "우리는 그 환대를 결코 경험한 적이 없으며, 경험할 수도 없다. 그 환대는 결코 도래하지 않기 때문이며, 언제나 '불가능성'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미' 환대가 무엇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환대는 언제나 '도래할 환대'이기 때문이다."[188] "또한 환대라는 중요한 가치는 언제나 '더(more)'의 차원을 지니고 있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그러한 가치들을 완전한 차원에서 실현해낼 수 없다."[189]

환대의 핵심은 '환영'이다. 특정한 조건에 맞는 사람만 환영한다면 그것은 '조건적 환대'다. 반면 그 어떤 조건을 설정하지도 않고 아무런 손익계산조차 하지 않고 환영한다면, 그것은 '무조건적인 환대"다. 환대는 다양한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환대 여부에 따라 '손님'이 되기도 하고 '낯선 사람'이 되기도 한다. 성재와 연주는 결국 '낯선 사람'으로 그 집에서 퇴장한다. 그리

187) 정한아, 앞의 책, 35쪽.
188) 강남순, 앞의 책, 240쪽.
189) 강남순, 앞의 책, 241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 다음날, 미연은 그들로 추정되는 이들의 사망 소식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된다.

> 전날 민욱이 보던 뉴스 채널에서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미연은 무신경하게 화면을 바라보았다. 아침에 뭘 만들어 먹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화면에 그 차가 나왔다. 잿빛 독일제 승용차. 그 차는 수풀이 우거진, 황량한 풍경의 저수지에 서 있었다. 요약된 기사가 화면 밑을 느리게 지나갔다. 지난밤 E시에서 삼십대 남녀가 익사채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사망한 후였으며,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보아 자살로 추정된다는 앵커의 말이 미연의 귓속을 울렸다. 190)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 속에서 환대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은 어디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신 인클로저'된 대표적인 공간인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이다. 고급 호텔에 방문하면 우리는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주인'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미소를 띤 채로 손님의 까다로운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단, 손님이 약정된 금액을 정확히 지불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현대 사회에서 환대는 이러한 화폐 경제 속에서 이루어진다. 금전과 환대가 교환된다. 만약 손님이 갑자기 자신이 가진 돈이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호텔의 지배인은 바로 경찰을 부르거나 그의 물건을 압수할 것이다. 그 현장은 일시에 적대의 상황으로 돌변한다. 이런 서비스업에서 이루어지는 환대는 데리다가 말한 '절대적 환대'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우리가 체험하는 환대는 대부분 이런 '교환 경제로서의 환대'다.

김애란의 소설 '숲속 작은 집'은 '교환경제로서의 환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다. 소설은 휴가차 해외 산악 도시로 떠난 지호와 은주 부부가 그들의 숙소를 청소해주는 메이드와 미묘할 갈등을 겪는 에피소드를 따라가며 서술된다.

> 언제부턴가 지호에게 회사 얘길 잘 안 하게 됐다. 내가 조직 생활의 고충을 토로할 때마다 '힘들면 그만두라'는 말을 너무 쉽게 했기 때문이다. 아마 본인부터가 잘나가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부모 돈으로 2층짜리 커피숍을 낸

190) 정한아, 앞의 책, 38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람이라 그런지 몰랐다. 지호에게는 뭐랄까, 어려서부터 몸에 밴 귀족적 천진함이 있었다. 남으면 버리고, 없으면 사고, 늦으면 택시 타는 식으로 오래 살아온 사람이 가진 무심한 순진함이, 학부 땐 그게 귀엽고 가끔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당당해 보여 끌렸는데, 결혼 후 오래 같이 살다 보니 결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번 여행 계획을 세우며 내가 예산을 맞추려 전전긍긍할 때도 지호는 "그냥 대충대충 해" "별 차이 없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별 차이'에 대한 감각이 지호와 나의 큰 차이였다.[191]

소설의 화자인 은주는 남편 지호와 경제적인 계급 차이를 이유로 묘하게 기울어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호는 돈이 가진 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화자가 기념품 가게에서 돌로 된 집 모형을 마음에 들어 하며 점원과 흥정을 하려고 하자 '너무 맘에 든 것 같은 표정 짓지 마'라고 충고를 하기도 한다. 마음에 들어 하는 표정으로는 흥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호젓한 휴가생활을 즐기던 그들은 조금씩 숙소에서 무언가 달라진 점을 느낀다.

먼저 숙소에 혹 사라진 게 없는지 살폈다. 평소와 조금 다른 점이 눈에 띄었지만 없어지거나 망가진 건 없었다. 그런데 그 '조금 다른 점'이 마음에 걸렸다. 한두 개가 아니라 왠지 의도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192]

그들은 왠지 모를 불편함에 대해 고민한다. 메이드가 의도적으로 숙소를 조금은 불편한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교환경제 하에서 제대로 교환되지 못한 돈, '팁'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 혹시 팁 때문인가?

지호가 흐트러진 욕실용품을 하나하나 바로 세우며 말했다. 우리가 숙소를 더럽게 쓰는 것도 아니고 무례하거나 시끄럽게 군적도 없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건 돈 문제밖에 없을 거라고 했다.

- 중요하지, 돈은.

191) 김애란,「숲 속 작은 집」,『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현대문학, 2020, 160쪽.
192) 김애란, 앞의 책, 16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는 울적한 얼굴로 답했다.
- 실은 제일 중요하지 뭐.[193]

강남순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한다.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환대의 주체인 ‘주인’이 될 수 없고, 환대의 대상인 적절한 ‘손님’으로 취급받지 못한다는 근원적인 모순을 드러낸다.”고 말했다.[194]

현대 사회에서 살아온 지호와 은주는 이런 모순 상황을 끊임없이 체득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적절한 ‘손님’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팁’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은 적절한 교환의 방식과 액수를 고민한다.

그 후 거실에서 요가를 하거나 정원 벤치에서 잡지를 읽다 종종 그녀와 마주쳤다. 그때마다 나는 그녀에게 두 손 모아 인사했다. 그러면 그녀도 웃으며 내게 합장했다. 그녀가 내 또래란 걸 알고부터 그녀를 더 정중하게 대하려 노력했다. 것도 알량한 태도일지 모르나 그랬다. 아마 나는 이국에서 마주한 노골적인 계급 차에 좀 쩔쩔맸던 것 같다. 물가 낮고, 물건 저렴한 건 좋지만 그걸 만드는 노동력이 싸다는 사실만은 여전히 어색한.

…

긴 밤 어떻게 하면 그녀와 관계를 망치지 않고 최대한 덜 민망하게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다. 팁 놓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나 언제, 어떤 식으로, 얼마나 드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 더도 덜도 아닌 액수는 얼마인지, 적절한 교환은 무엇일까 뒤척였다. …그런데도 가슴 한쪽에선 왜 자꾸 차가운 감정이 이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나는 조금 서운했던 것 같다. 그동안 우리가 나눈 인사와 미소가, 눈빛과 호의가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그럼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이어야 했는데? [195]

그들은 그동안 밀린 팁까지 더해 침대 맡에 두고 외출을 하고 오지만 그날 메이드는 팁을 가져가지 않는다. 팁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음을

193) 김애란, 앞의 책, 165쪽.
194) 강남순, 앞의 책, 244쪽.
195) 김애란, 앞의 책, 166-7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생각해서 팁이라는 것을 상기할 수 있는 'thank you'라는 쪽지까지 남겨두지만 다음날도 그녀는 팁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 다음날, 그들은 메이드의 딸이 어머니의 일을 돕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장면을 본 은주는 그 날 내내 자신의 엄마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메이드와 딸이 일을 하는 장면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어느 집 식모로 들어가 일을 봐주며 자신을 키웠던 자신의 엄마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 엄마도 지호와 내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보는 걸까. 결혼식 때 묘한 축하를 건네던 동기들처럼? 아님 실직 후 함께 술을 마시다 '은주 씨랑 나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며 손을 뿌리치던 내 사수처럼? 물론 나도 사람들이 우릴 두고 뭐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론 내게 별 관심 없는 이들에게 내 인생을 매번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다행히 지호는 엄마에게 잘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좀 그랬다. 고향 집에 갈 때마다 나는 지호가 엄마에게 억지로 돈 쥐여드리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다. 두 사람은 매번 약속된 연극이라도 하듯 사양과 애원과 실랑이를 반복했다. 한국 어느 집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문제는 내가 몇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호가 봉투를 자주 잊는다는 거였다. 196)

그 날 밤, 화자는 thank you 대신 그 나라 언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문장을 찾아 적어 넣는다. 다음날, 메이드는 팁을 가져간다. 그 뒤 은주는 매일 그 나라 언어로 감사 인사를 적어 팁을 올려두는 일을 반복한다. 은주는 팁이라는 화폐 교환의 형식을 빌려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려고 노력한다.

짐멜은 "감사가 인류의 도덕적 기억"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감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생성된다. 감사는 그 과정과 더불어 '정신적 반양에 있어서 영혼의 차원으로 고양'된다.'감사라는 비옥한 감정의 토양'은 우리의 행동을 수정시키거나 강화시킨다. 감사는 '인간의 행위를 과거의 행위와 연결'시켜주고, '행위의 인격적 요소를 풍부'하게 해주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 준다.197)

196) 김애란, 앞의 책, 175-6쪽.
197) 게오르그 짐멜,『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177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감사’의 행위에 사람들은 모두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응답한다. 작품 속 은주는 메이드의 서비스에 그 나라 언어로 적힌 ‘감사합니다’와 금전적 보상인 ‘팁’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은주는 자신이 보여준 두 가지 대응물 중, 메이드가 반응하는 것은 ‘팁’ 뿐이라고 느끼기 시작한다.

장류진의 ‘잘 살겠습니다’를 다룬 앞장에서 밝혔듯, 선물 교환에는 ‘상대방이 명예를 가진 인간인가’를 묻는 의미가 있다. 비슷한 응답을 받지 못한 교환 행위에서 ‘한 쪽의 체면은 깎이고 둘 관계는 금이 가게 된다’. “‘자선’은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선물교환의 ‘결투’적인 성격에서, 자선은 이미 ‘상대방의 명예에 대한 평가절하’가 들어가 있다. 결국 자선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 맺기’에 실패한다.”[198]

은주는 메이드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설정했을까? 만약 그녀가 자신이 준 팁과 그녀의 서비스를 단순한 화폐 경제 속 교환 거래로 여겼다면 그녀는 그렇게 메이드의 행동이 불편했을까? 은주는 메이드에게 자신이 팁을 준 행위, 그 나라 언어로 ‘감사합니다’를 적어내기까지 한 자신의 배려를 감사나 선물이 아닌 ‘자선’으로 느끼지는 않았을까? 은주는 은연중에 메이드와 자신을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은주는 메이드가 자신의 ‘자선’에 고마움을 느끼기를 바랐다.

“고마워한다는 것은 도움 받은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199] 은주는 메이드가 자신의 선의를 기억하고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랐다. 이런 감정은 본질적으로 둘 관계의 불균형을 가져온다. 은주의 팁은 순수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폐 경제 사회에서 완벽히 인클로저 된 호텔이라는 공간에서 교환된 ‘팁’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는 이런 형태의 노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식당 종업원이나 아파트 경비원이 우리의 한 끼 식사와 편안한 잠자리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든, 그들이 보수를 받고 일하는 한 개인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보수가 아무리 형편없더라도 말이다. ‘가난한 노동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익명의 기부자’라는 바버라 에런라이크의 말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

198) 김현경, 앞의 책, 172쪽.
199) 김현경, 앞의 책, 195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200]

은주는 '한국 물가의 3분의 1 수준인 그 도시에서 마주한 값싼 노동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노골적인 계급 차에 쩔쩔'맸지만, 실상 자비를 증여한 자가 자신이 아니라 메이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은주는 '잔돈을 놓을 때도 큰 돈을 둘 때도 항상 똑같이 고맙다'고 적는 자신과 달리 '팁에 따라 태도를 확 바꾸는' 메이드의 태도가 거북해지기 시작한다.

마침 은주는 매달 엄마에게 보내던 생활비를 실직과 해외체류로 잊어버린다. 엄마는 생활비를 받을 시기가 지나자 화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득 담아 문자를 보낸다. 그녀는 맞춤법이 엉망진창인 엄마의 문자를 보고 마음이 복잡해진다.

> '은주야 만이 바쁘지. 혹시 잇어버렸나 해서. 우리 딸 고맙고 미안해'
> 평소에도 여러 번 들은, 눈 깜짝할 사이 폭삭 늙어버린 엄마가 내게 보낸 '고맙다'는 문자를 보자 이상하게 그 말을 받은 게 아니라 언젠가 내가 상대에게 준 무언가를, 아니 오랜 시간 상대가 내게 주었던 무언가를 도로 빼앗은 기분이 들었다. [201]

화자가 엄마에게 들었던 '고맙다'라는 말에서 느낀 '상대가 내게 주었던 무언가를 도로 빼앗은 듯한 기분'은 화자가 메이드에게 그 나라 언어로 적힌 '고맙다'를 적으며 느꼈던 어떤 뿌듯함과 충돌한다.

데리다에 의하면 "칸트의 개념에서처럼 윤리적 의무나 명령 또는 정언적 규범이기 때문에 베푸는 환대는 더 이상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진정한 환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의무' 때문에 행해지는 환대란 '환대의 빛'을 갚는 행위로서 이미 '계산된 환대'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환대란 의무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존재가 전적으로 손님을 환영할 때 가능하다."[202]

화자는 메이드에게 '칸트의 정언 규범으로서의 환대'를 행했고, 더불어 그 나라 언어로 적힌 고맙다는 쪽지까지 매일 쓰는 정성을 덧붙임으로서 은연중

200) 김현경, 앞의 책, 196쪽.
201) 김애란, 앞의 책, 181쪽.
202) Derrida, Of Hospitail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1, 83p : 강남순, 앞의 책, 255쪽에서 재인용.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남편인 지호에게 도덕적 우월감까지 표현했다. 그리고 그 방식을 그대로 자신의 엄마에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환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 시점에서 화자는 더 이상 메이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느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감사'는 '법률적 질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모든 거래에서 대응물을 강제할 수 없기에 사회적 균형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는 '감사'의 행위는 때때로 정확하게 교환되지 못한 거래를 연상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엄마의 '고맙다'는 말이 서로에게 껄끄러운 이유는 엄마가 화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사랑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쪽은 물질적인 소유물을 제공하고 상대편은 사랑 이외에 줄 것이 없는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는 사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매매를 상기시키는 관계가 되면서 감정에 무언가 치명적인 것을 남긴다."[203] 화자의 모녀관계는 결국 이 '부당한' 교환으로 인해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상처는 먼 타국에서 메이드와 그녀의 관계에도 동일한 자국을 남기게 된다.

> 그녀가 팁을 가져간 뒤로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일인데. 막상 이곳을 떠나려 하니 이상하게 이 집에 돈은 놓아둘 수 있어도 감사 인사만은 남기고 싶지 않단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204]

이제 은주와 메이드의 관계는 약간 달라졌다. '메이드'라 부르는 것도 꺼림칙해 하던 은주와 메이드 사이에 팁과 감사 인사를 주고받는 '교환 경제'가 일어남으로써 미묘한 갈등이 생성된 것이다. "어떤 증여에 대한 감사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교환의 자리에 처음부터 부적절한 매매의 성격을 띤 무엇인가가 들어선 것이다."[205] 화자는 '팁'을 주면서 메이드에게 그녀의 정서적 자산을 교환받기를 원했다. 은주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기울어진 권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 - 돈 - 를 메이드와 자신과의 관계에 이전한 것과 다름없다. 화자는 이 교환에서 자신이 지불한 것으로 인해 어떤 우위에

203) 게오르그 짐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179쪽.
204) 김애란, 앞의 책, 186쪽.
205) 게오르그 짐멜,『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180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고 파는 장사꾼이 아니다. 인간이 지닌 성품, 거기서 유래하는 그의 에너지와 기능은 마치 판매대 위의 상품처럼 단순히 자기 자신 앞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206]

짐멜에 따르면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해 응답하라는 동기를 부여받은 것은 강제적인 행위”다. 우리는 먼저 줄 때만 자유롭다. 이는 감사의 마음과 상관없이 먼저 ‘무엇을 제공하는 행위가 왜 다른 사람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의 아름다운 행위가 되는지’ 그 근거가 된다.[207]

받은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어떤 응답이 증여에 대한 ‘정당한’ 응답일까? 현대 사회에서 먼저 무엇인가를 받은 이상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푸는 영원한 숙제 속에 갇혀 살아간다. 어디까지 감사하고, 어떤 응답이 적절한 교환이고, 어떤 선물이 상대방의 명예를 해치지 않는지, 우리는 누구도 그 답의 ‘적절한’ 수준을 찾아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 도시인의 이웃관계

쇠렌 키르케고르는 「사랑의 역사」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상적인 이웃은 죽은 이웃’이라고 말했다. 키르케고르는 그 이유로 ‘사랑을 선물 교환의 경제학으로 환원하는 호혜관계를 죽은 자에게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죽은 자들은 생계 때문에 사랑의 순결을 방해하는 성가신 특성들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08]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살아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특히 담이 높아지고 출입이 제한된 거주공간이 가득한 도시 공간에서 이웃은 언제나 낯선 대상이다. 더구나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이웃은 언제나 친절하고 필요를 주고받는 관계만

206) 게오르그 짐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181쪽.
207) 게오르그 짐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183쪽.
208) 케네스 레이너드·에릭L.샌트너·슬라보예 지젝, 『이웃』, 정혁현 옮김, 도서출판b, 2010, 41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맺는 것은 아니다.

이방인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웃은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매혹의 대상이기도 하다. 최근의 한국 소설에서는 가족보다 이웃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한다. 절대적인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는 한국 사회를 반영하듯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이웃과 미묘한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 본론 제 3장 2절에서는 최근 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도시인의 이웃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장소성을 거세한 온라인 공간에서 근린 위주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도시인의 특성에 주목한 작품들 위주로 그들의 이웃관계를 탐구해보겠다.

먼저 김유담의 '내 이웃과의 거리'를 살펴보자. 이 소설의 정윤과 혜미는 맘카페에서 만난 사이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해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공통점으로 그들은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이 동네로 이사 올 때 '지은 지 25년이 지난 구축 아파트가 싫어서' 쾌적한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정윤은, 자신이 살기 싫어했던 그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혜미를 만날 때마다 소소한 지출을 부담한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혜미보다 우월한 입장에 서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배려였다. 혜미는 언제나 돈에 대해 종종거렸다. 최저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부유하고 온갖 할인을 챙기기 위해 시간을 쏟고 번거로운 수고를 부담한다. 정윤은 혜미와 반대다. 그녀는 '몇 천원 아끼는 것보다 시간과 몸을 아끼는 게 낫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정윤은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혜미에게 쓰는 자잘한 돈이 아깝지 않았다. 삶의 가치관은 달랐지만 둘은 같은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급속도로 친해진다.

> "언니,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얻어먹기만 해서 어떡하죠?"
> 혜미는 여러 번 인사를 하면서도 한 번도 대신 밥값을 낸 적이 없었다.[209]

정윤은 혜미가 밥값을 내지 않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하우스푸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혜미네 집값이 10억이 넘었다는 소식을 알게

209) 김유담,「내 이웃과의 거리」, 앞의 책, 20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되면서 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 4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사 마실 돈도 없다고 엄살을 떠는 혜미가 10억짜리 집을 소유한 자산가라니, 1000원이라도 더 싼 기저귀 핫딜을 찾느라고 밤잠을 설치는 혜미를 궁상맞다고 속으로 비웃었는데 오히려 혜미 입장에서는 마흔이 넘도록 내 집 마련도 하지 못하고 돈을 쉽게 써 대는 자신이 더 우스워 보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 그날 밤 정윤은 네이버 부동산에 접속해 주변 집값 실거래가를 살펴보다가 혼자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켜며 분을 삭이려 애썼다.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지 자신도 모를 일이었다.[210]

정윤은 그 구축 아파트가 혜미네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과거 자신이 선의로 베풀었던 마스크를 돈으로 돌려받고자 한다.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을 때 혜미에게 주었던 마스크 가격은 장당 4천원으로 총 4만원이다. 하지만 돈을 돌려달라는 정윤의 요청에 혜미가 응답한 것은 현금 4만원이 아니라 '10장짜리 마스크'였다. 정윤은 마스크가 전국적으로 품귀이던 시절 구한 마스크와 주문과 동시에 최저가로 다음날 받아볼 수 있는 마스크는 같은 상품이 아니라고 느낀다. 하지만 구축 아파트에서 이른바 '몸테크'를 하고, 간단한 식사비와 커피값도 아껴가며 자산을 증식하는, 전형적인 대도시의 계산적 이성이 발달한 혜미는 정윤과 관계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까지 단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 정윤은 마스크가 담긴 비닐봉지를 자신의 손목에 옮겨 걸쳐 놓고 서서 쿠팡에 접속해 국산 KF94 마스크가 현재 얼마인지 가격을 검색해 보았다. 열장 묶음에 1만 1000원 배송비 무료. 정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쿠팡 앱을 닫고 네이버 부동산에 다시 접속했다. B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주 기준으로 10억 2000만원이었고, S 아파트는 이틀 전 12억 3000만 원에 팔렸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면서 손목에 걸린 비닐봉지가 같이 부스럭거렸다. 정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도 숨이 막혀 왔다.[211]

---

210) 김유담, 앞의 책, 208쪽.
211) 김유담, 앞의 책, 210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윤의 행동은 정당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자신이 베푼 선의가 혜미의 계급이 자신보다 낮음을 전제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선의는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부동산 구매 여부를 두고 배우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벼락 거지'가 되었다는 우울감은 정윤과 혜미의 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작품은 자본주의 경제 아래 나타나는 계산적 이성이 실제적인 자산 격차를 마주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극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이기심은 어떤 식으로 발동하고 또 그 마음이 이웃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윤과 혜미의 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인간이 느끼는 '적절함'의 수준은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준거집단에 의해 결정된다. 즉 우리와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 자체만으로 평가할 수 없고, 중세 주민의 생활과 비교하여 판단할 수도 없다."[212]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은 공간적 동질성이 매우 강한 집단이다. 사람들은 이웃을 강렬한 준거집단으로 인식한다. 우리는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테크 기업들의 자본가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중동 석유 재벌의 재산이 얼마인지 듣게 되더라도 커다란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성공에 크게 충격을 받고 강한 질투에 휩싸인다. 과거부터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질투를 하고 가장 커다란 상처를 받는다. 특히 '공동체의 입장권'이 거래되는 현대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을 우리의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그들과 끊임없는 비교를 하며 살아간다.

이렇듯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명제는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들어온 말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인간은 이 명제를 실제로 체감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당시 인간에게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는 그냥 주어진 것이었고 변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유동하는 근대에서 개인은 일생에 여러 번 이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체감하게 된다. 이런 체감은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둘러싼 공동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느끼게 된다. 이는 인간의 전 생애를 걸쳐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실직을 하거나,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

212) 알랭 드 보통, 『불안』, 정영목 옮김, 이레, 2004, 57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주를 하거나, 아이를 낳고 가정에 고립되거나, 기타 여러 이유로 나를 감싸고 있던 공동체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다. 그토록 자신의 원 공동체를 탈출하고 싶어 했던 개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변화의 시기에 나를 보호해 주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갈구하게 된다. 그것은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이다. “공동체 형성과 참여에 대한 욕망이 저지되고 그 결과 공동체가 침체, 분열, 파괴될 때, 인간의 생존은 즉각적으로 위협받는다.”213)

인간은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실현하기 위해 언제나 공동체를 원하게 된다. 해외 어느 곳에 가든 우리는 코리아 타운을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꿈과 기회를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났지만 그곳에서 자신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끊임없이 찾아 헤맨다. 공동체는 그 공간의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준다. 공동체를 통해 얻어낸 안정감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미지의 공간에서 살아갈 원동력을 얻기도 한다. 현재의 공동체가 과거와 다른 점은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생성된 공동체라는 점이다.

액체 근대성 아래 구축된 ‘그때그때의 공동체’의 양상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의 수많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다. “사람들은 개방형 SNS에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과시하고 개성을 뽐내며, 비슷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이방인들과 우연한 만남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근처를 서성인다.”214)

인터넷의 수많은 개방형 SNS는 취미나 연령, 특정 직업을 중심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의 장소성을 기반으로 조직되기도 한다. 특히 태생적으로 주어졌던 공동체를 결혼이라는 사유로 떠나야 하는 여성들이 이런 공동체에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이 짙어진다. 학업이나 이직 등의 사유로 새로운 공동체와 마주하는 상황에서는 실직적인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만남이 수반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결혼 이주 가정의 경우 대체적으로 남편과의 관계 외 모든 관계를 새롭게 맺어야 한다. 육아까지 하게 될 경우 그들의 기동성은 가정에 묶인다. 여러 사유로 가

213) 김욱진, 앞의 책, 17쪽.
214) 김욱진, 앞의 책, 750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에 고립된 여성이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은 인터넷의 공동체뿐이다. 그들은 그 공간에서 같은 삶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타인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취득하고 정서를 교감한다. 현대 여성의 삶을 다룬 여러 소설에서 맘카페나 인터넷 커뮤니티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인간군상을 다룬 작품이 많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은미의 '보내는 이'는 이런 현대적 관계성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 맘 카페에 들락거리는 그 마음을 나 또한 모르지 않았다. 어디에도 말할 수가 없는 마음, 너무 사랑해서 말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아서 말할 수 없고, 가까워서 말할 수 없고, 멀어서 말할 수 없고, 구차하고 흔해서 말하고 나면 별게 아닌 게 되어버리는 얘기들. 힘내라는 댓글 딱 하나만 보고 내리려고 올리는 글들. 아무리 억지스러운 얘기를 올려도 수십만의 회원 중에 한 명은 호응을 달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거기선 모두가 거침없었다. 재판관과 상담사와 의사와 친구 역할을 돌아가며 했다. 당장 이혼하세요. 안 봐도 뻔해요. 그런 엄마 그냥 차단하세요. 그걸 왜 참으세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에궁. 토닥토닥. 하트를 날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격하게 껴안는 브라운과 코니. 즉각적인 공감과 위로를 받고 고개를 끄덕이며 글을 내린다. 하지만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 앞에선 에어 프라이어에 뭘 해 먹을까만 얘기하는 것이다.[215]

이 공간에서는 모두가 모두에게 '우정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하지만 가부장제에서 여자와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성원권[216]의 불완전함은 종종 '우정의 제약'으로 이어진다.[217] 앞장에서 밝혔다시피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전업주부는 독립적인 증여자가 되기 어렵고, 그렇기에 그녀들에게 우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

아이를 낳아 기르며 가정에 고립된 화자는 아이를 통해 알게 된 진아씨에게 강한 애착을 느끼고 있다. 화자는 '진아씨네 집으로 건너가 있으면 나는 혼자서 마시는 키친 드링커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느낌에서 잠시간

215) 최은미,「보내는 이」,『눈으로 만든 사람』, 23쪽.
216) 개체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이는 신분이나 계급과는 별개로 사회에서 그 개체에게 만들어 준 자리를 의미한다.
217) 김현경, 앞의 책, 186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렇듯 도시인은 '거리두기'를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갈구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에서 일상을 추구하고 애착을 느낄 대상을 물색한다.

흔히 사람들은 "이동의 스케일이 확장되고 글로벌화 되는 사회에서는 점점 '지역적인 것'의 중요성이 감소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여전히 제한된 지역 내에서 지속된다."[218] 가장 이동성이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조차 일상적인 행위와 소통은 대부분 직장이나 집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발생한다.

화자는 같은 돌림자를 사용하는 동갑내기 아이를 키우는 그녀와의 관계를 위해 아이에게 '윤이와는 절대 싸우지 말라'고 지도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진아씨의 집에 드나들면서 진아씨네 집 변기에 떠 있는 참외씨가 누구의 것인지도 유추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된다. 진아씨가 지역 맘카페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모습을 내보이는 글을 몰래 찾아보고 질투심을 느끼기도 한다. 자신과 의논한 적 없는 창호 견적 문의 글이나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다낭 여행 정보를 묻는 게시글에는 강한 서운함을 느낀다.

>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진아씨가 어떤 얘기를 해도 서운했고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도 서운했다. 윤이맘7이 단 댓글에선 남이 알기를 바라지 않을 듯한 진아씨의 아주 사적인 얘기까지도 유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진아씨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 걸 알게 될 때마다 진아씨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219]

화자는 그녀의 집에 드나들면서 그녀의 삶을 깊숙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아씨는 화자의 기대만큼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화자가 공유하는 만큼 진아씨는 자신의 정보를 내어주지 않는다. 그런 그녀에게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화자는 그들 사이에 설정된 거리를 정확히 의식하고 있다. 자신이 진아씨와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진아씨네 집은 자신의 집이 아니다. 대도시인들은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거리두기

218) 린다 맥도웰, 앞의 책, 23쪽.
219) 최은미,『눈으로 만든 사람』, 24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 실패하는 순간, 그때그때의 공동체는 언제든 깨어질 수 있다.

> 나는 알고 있었다. 진아씨네 식탁 등이 아무리 각별해도 여긴 내 아이의 친구 집이다. 진아씨는 내 아이 친구의 엄마이며,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 비슷한 여건과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 관계를 이어가는 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나는 이제 아는 나이이므로, 이 관계를 오래 가꿔가고 싶다면 혹 들어가선 안 된다. 우리를 짓누르는 사회구조적인 것들에 대해선 얼마든지 얘기를 나눠도 좋지만 개인적인 고통을 털어놓는 건 신중해야 한다. 아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내 아이에게 불리한 빌미가 될 수도 있으므로, 내 스트레스 상황 또한 너무 드러내는 건 좋지 않다.[220]

사람들은 종종 가상의 공간에서 평소의 자신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하거나 과시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 바우먼에 따르면 “개인은 SNS같은 가상 공동체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행복감을 경험하면서 독립적 주체로서 외부의 간섭을 피해 은밀한 사생활”을 누릴 수 있다.[221] 진아씨는 맘카페라는 공간에서 만나는 이방인들을 통해 자신이 일상 속에서 노출하지 않았던 고민과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어떤 고민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간혹 현실에서 강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에는 가상의 공간에 접속하여 얼굴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현실의 권태를 극복한다.

하지만 이런 일탈을 통해 해방을 경험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액체 근대인은 “자유롭기 때문에 부유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불안과 불확실성에 시달리며,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지의 환경에 맞닥뜨려 홀로 두려움에 떠는 숙명을 피할 수 없다.”[222]

이 소설 속 화자와 진아씨 모두 전근대 사회라면 자신을 속박했을 원 공동체와 완전히 떨어져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들은 비슷한 양육 경험을 가진 이들끼리 어울리고 이따금씩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역시 이 ‘자유’ 때문에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린다. 이 자유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자유를 가지고 있기에 누구나 언제든 상대방을 떠날 수 있다. 각자가 느끼는 거리감과 연결의 느낌은 완전

220) 최은미, 『눈으로 만든 사람』, 17쪽.
221) 지그문트 바우먼, 『리퀴드 러브』, 65쪽.
222) 김욱진, 앞의 책, 752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히 같을 수 없고 결국 이 '같을 수 없음'으로 8년에 걸쳐 이어진 둘의 관계는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한다.

> 진아씨 사정은 뭔데. 너도나도 비슷하게 겪는 그런 거 말고 난 진아씨만의 질감을 원해. 조금 더 간질간질한 디테일을 나한테 달라고, 진아씨. 맘 카페에서 모르는 여자들이랑 나누지 말고 나랑 나눠. 우리가 특별한 사이라는 걸 조금만 더 느끼게 해줘. 나는 다른 거 안 바라. 무심코라도 하루 안부 물어주는 거. 하루에 십 분쯤은 온통 그 사람한테만 집중해주는 거. 남편이랑은 이제 못하는 거. 남편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도 못하게 된 거. 그걸 나랑 하자.[223]

소설의 말미에 화자는 진아씨의 본명이 '지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느꼈던 이의 이름조차 몰랐다는 사실은 화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하물며 자신이 수차례 문자로 '진아씨'라는 호칭을 여러 차례 사용했는데도,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진아씨'에게 화자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 보내는 사람 이름이 '김진아'가 아니라 '김지나'인 걸 보고 처음엔 잘못 쓴 거라고 생각했다. 택배 송장을 뜯어 냉장고에 붙여두고 이틀이 지난 뒤에야 나는 SNS를 하지 않는다던 진아씨의 SNS 계정들을 찾기 시작했고, 진아씨의 이름이 '지나'인 것을 알게 되었다. 팔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진아씨의 이름을 잘못 불러왔던 것이다.
>
> 그렇다면 왜 자신의 이름은 지나라고 말하지 않은 걸까. 나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걸까? 아니면 지나라는 이름을 내내 싫어한 걸까?
>
> 하지만 지나라고 부르자 아무 말도 써지지가 않았다. 내가 진아씨한테 갖고 있던 어떤 느낌도 살아나지 않았다. 나는 진아라고도 지나라고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진아씨한테 편지를 보낼 수가 없었다. 그런 채로 이 사람은 대체 뭔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224]

화자는 진아씨와의 관계와 그들이 지내는 근린을 자신이 새롭게 구축한 공

223) 최은미, 『눈으로 만든 사람』, 24쪽.
224) 최은미, 『눈으로 만든 사람』, 42-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동체로 인식했다. 그녀는 진아씨와 '남편이랑은 이제 못하는 거', 아마도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행위를 '나랑 하자'고 생각할 정도로 그녀를 가깝게 느꼈지만, 진아씨는 화자와의 관계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아씨'의 진짜 이름이 '지나씨'라는 것을 알게 되자 화자는 그녀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이 의심스러워진다. 분명 둘 사이는 각자 부부 관계의 내밀한 속사정까지 나눌 정도로 친밀했다. 하지만 진아씨는 자신의 이름조차 정확히 알려주지 않을 정도로 화자에게 거리를 두었다. '지나씨'에게 화자는 어떤 존재였을까?

현실에서는 전근대의 특징과 근대의 특징이 혼합되어 있다. 그 둘은 깨끗하게 분리되지 않았다. 둘은 말끔하게 구분되기보다 '회색 지대를 사이에 두고' 공존한다. 하나의 공동체 안에는 전근대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겹쳐서 놓여 있다.[225]

이처럼 누군가는 근린을 잠시 머무르는 거처로만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그곳을 전근대적인 터전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괴리가 충돌할 때 이웃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보내는 이'의 진아(지나)씨와 화자 또한 이런 회색 지대에서 충돌한다. 두 맘들의 관계는 지나씨네 서윤이가 전학을 가게 되면서 완전히 단절된다. 화자는 그녀와의 관계를 위해 아이들 간의 갈등도 회피하도록 유도할만큼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지나씨는 자신의 본명도 알려주지 않은 채 8년의 세월을 보냈고 마지막 인사도 없이 아무 미련도 두지 않고 그 관계를 저버린다.

> 이방인들의 만남은 과거가 없는 사건이다. 그것은 또한 미래가 없는 사건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지체 없이 완결되는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만남은 외모나 말투, 몸짓과 같은 가늘고 헐거운 연결망에 의해서만 지탱될 뿐이다. 만나는 시간 동안 시행착오나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거나, 다시 한 번 해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결과 도시에서의 삶은 꽤 특별하고 세련된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세넷은 상대를 보호해주면서 상대와 즐길 수 있게끔 하는 활동. '가면'을 쓰는 것이 예의의 본질이라고 말했다.[226]

225) 김욱진, 앞의 책, 46쪽.
226) 지그문트 바우먼,『액체근대』, 155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이 소설에서 '진아씨'는 화자와의 관계에서 본인만의 가면을 쓰고 그 관계를 즐겨왔다. 하지만 8년간 함께한 두 여성의 관계는 조금씩 확장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관계는 '현장에서 지체 없이 완결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강하게 얽힌 유대관계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게 된다. 이 관계의 확장을 화자와 진아씨는 다르게 받아들인다. 화자는 어느 순간부터 진아씨가 쓰고 있던 가면을 벗기려고 했고 진아씨는 그런 화자의 태도를 은연중에 알아차렸다. 이 간극으로 인해 두 여성의 관계는 깨어지게 된다.

바우먼에 따르면 "사람들은 과거보다 빈번하게 접속하지만 동시에 얕아졌다." 현대 사회의 관계는 유대 관계로 발전하기에는 사람들 간의 접속이 너무 얕아졌고 너무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접속되어 있는 것'이 '관계를 맺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227]

진아씨가 맘카페에서 질문하고 위로받았던 이유도 그 감정의 값이 싸기 때문이다. 견고한 관계를 구축해서 감정적 공감을 얻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인터넷 공간의 공동체는 내가 관계의 접속을 통제할 수 있다. 필요할 때 접속하고 원하지 않을 때 언제든 끊어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과거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과 빈번한 접촉을 하지만 그 관계에서 느끼는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발동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감정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이런 비용을 몇 번 지불해본 이들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적 태도를 유지하게 된다.

소설 속 '진아씨'처럼 현대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근린을 도구적 수단, 즉 잠시 머무는 거처 정도로만 생각할 뿐, 더 이상 그로부터 항구적 소속감이나 정체성을 찾지 않는다. "공동체 없는 근접성, 소속감 없는 근린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 어울림의 부재,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방관적 태도 등을 통해 그 확산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228]

227) 지그문트 바우먼, 『리퀴드 러브』, 156쪽.
228) 김욱진, 앞의 책, 51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순수한 환대의 가능성

인클로저된 현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언제나 적절한 거리 유지를 요구한다. 도시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자신만의 장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공동체에서 축출되고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본론 제 3장 3절에서는 데리다가 강조한 '무조건적 환대'의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들을 살펴보고 해당 작품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상적인 타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병모의 '한 아이에게 온 마을이'는 대도시인이 소도시로 이주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전근대성에 대한 두려움과 그 안에서 발견한 이웃의 환대를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의 화자인 정주는 남편 이완이 직장에서 보복성 발령을 받게 되어 작은 산골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만삭인 정주는 임신으로 인해 직장에서 '제 발로 나가달라는' 시선을 받고 있던 터라 이번 발령을 '삶의 반경을 대폭 변경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마을에 도착해 이삿짐을 정리하던 정주는 그녀의 집에 누군가 별안간 들이닥쳐 비명을 지른다. 담장이 없는 소도시에는 인클로저 된 공간은 없다.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한 아이에게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도덕적인 경구로 들리기도 하지만 이 소설을 따라 읽다보면 이러한 말을 빙자한 이웃의 과도한 관심과 간섭이 개인에게 어떤 폭력을 가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 누구세요.
> 오늘 이사오셨나.
> 그런데요, 누구세요.
> 저기 윗집이에요.
> 집 좀 봐도 되나, 여기 사람 사는 거 너무 오랜만에 보고……어떻게 고쳤는지 궁금도 하고.
> 노부인은 여기가 원래 자기 집터라도 되는 양 이미 대문 안으로 발 하나가 들어와 있었다.[22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노부인의 공간에 대한 침범은 집이라는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침범은 임산부인 정주의 신체에까지 이어진다. 지젝에 따르면 '내가 너무 가까이 접근할 때 발생하는 것은 주체의 소멸'이다. 지젝은 이렇게 가까운 접근이 발생할 때 '주체는 자신의 상징적 일관성을 상실하고 분해되게 된다.'고 말했다. 자신의 존재의 '환상적인 중핵' 그 자체를 무리하게 실현하는 것은 '굴욕적인 폭력'이다. 그리고 그러한 폭력은 주체를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에 노출시킨다."[230]

노부인의 '너무 가까운 접근'으로 정주의 신체는 '굴욕적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정주처럼 임신한 몸은 이런 폭력을 자주 경험한다. '몸의 수치화(Scaling bodies)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아이리스 매리언 영은 "임신은 투명한 자아 통일성이 와해되는 몸의 경험, 몸이 몸의 프로젝트를 진행시킴과 동시에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주목하게 되는 몸의 경험의 패러다임을 드러낸다."고 말했다.[231] '임신한 주체'는 '통일된 주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232]

오직 몸의 특성에 따라 정의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약자다. 피부색이나 성별, 나이 등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그렇다. 몸을 구분하는 행위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몸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런 관념은 그들의 행동과 생각의 반경을 제약하게 된다. 특히 작품 속 소도시처럼 언제나 '너무' 가깝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전근대적인 공동체에서는 더욱 그렇다.

> 그렇게 말하며 노부인의 손길이 배를 슬쩍 건드리는 순간 정주는 이루 말하기 힘든 감정에 사로잡혔지만, 산골 어르신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스렸다.
>
> …
>
> 대대로 조상 잘 모셨으면 고추지 뭘.
>
> 정주는 앞으로 이런 전근대적 발화를 수시로 듣게 되리란 걸 예감하면서, 노부인의 손가락이 배에서 도무지 떨어질 생각을 않기에 별채로 나가는 척 뒤로 한 발 물러섰다.[233]

---

229) 구병모,「한 아이에게 온 마을이」,앞의 책, 51쪽.
230) 케네스 레이너드·에릭L.샌트너·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236쪽.
231) 린다 맥도웰, 앞의 책, 111쪽.
232) 린다 맥도웰, 앞의 책, 11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주는 이 소읍의 이웃들이 대체로 '사람의 출산을 발목에 감기는 기름진 흙이나 젖과 꿀이 흐르는 영토에서의 추수 같은 일련의 풍요와 긴밀히 관련 짓는 구시대적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견뎌내는 일은 도시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살아온 정주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못돼가지고 애를 갖지 않는데 애를 가졌다'는 말로 정주를 칭찬하는 이웃 사이에서 그녀는 일상을 영위하게 된다.

산골마을은 우리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부장제를 은유하기도 한다. 김현경에 따르면 "가부장제 하에서 기혼 여성은 사생활의 자유를 갖지 못한다." 가정주부는 언제나 일종의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부장제라는 관념 아래서 가부장은 언제든 그들의 자유와 신체를 침범할 수 있다. '가정을 가부장의 사적 영토'로 간주하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결여'와 '공적 공간에서의 배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234]

소도시에서 주변 이웃들의 관심은 집과 몸과 재생산에 대한 참견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주를 '가부장의 사적 영토'로 간주하는 가부장제 그 자체인 이웃들의 시선은 여성인 정주를 '화폐 경제가 도래하기 이전 토지와 가부장에 종속'되어있던 존재로 상정하여 바라본다. 이 시선은 그녀를 견딜 수 없게 불편하게 만든다.

김할머니를 비롯한 이웃들은 정주네 집을 자주 들락거렸다. 파과 상자나 흙이 그대로 묻어있는 나물같은 것들을 나눠주기도 했지만 대부분 집안을 기웃거리며 살림과 뱃속 아이, 부부의 출신지를 캐묻곤 한다.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반조리 음식이나 손질된 채소만 사용해왔던 정주는 야채와 음식들을 다듬는 데 시간을 보낸다. 이웃들의 관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친구들이 보내주는 출산 축하 선물이 택배로 도착하는 것에 대해 젊은 남자(택배원)이 왜 새댁 집에 드나드는지, 남편이 번 돈으로 무슨 물건을 그렇게 사들이는지, 궁금해 한다. 하지만 가정주부는 일상 속에서 언제나 '소비의 주체'다.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그들의 소비는 종종 '개인적 소비'로 치환되어 비난받기 쉬운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

233) 구병모, 앞의 책, 52-3쪽.
234) 김현경, 앞의 책, 20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앙리 르페브르에 따르면 '여성들은 굉장히 모호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녀들은 구매자이고 소비자이다. 온갖 미디어에서는 여성들을 '상품인 동시에 상품의 상징'으로 활용한다. 일상에서 여성들이 겪는 모호성은 분명 '현대성의 한 특징적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호성이 '그녀들의 이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다.[235]

가정경제를 관리하는 여성들은 소비의 주체가 되고 그 소비는 여성들이 일상성을 체험하는 가장 흔한 수단 중 하나다. 하지만 자급자족적인 삶의 양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물자의 교류 자체가 도시보다 현저히 적게 일어나는 이 마을에서 정주가 하는 소비는 사치로 분류된다. 공적인 업무로 집에 출입하는 택배원도 이 마을의 이웃들은 '외간 남성이 가부장의 관리 하에 있는 임산부와 사적인 만남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산골 마을의 삶에서 정주는 조금 다른 타자를 마주하게 된다. 물건을 사러 간 미니슈퍼에서였다.

> 정주는 필요한 물건을 사러 포도밭 미니슈퍼에 찾아갔다가 가게 주인을 보고 깜짝 놀란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비롯한 최소한의 윤리'를 장착하고 있지만 흉터자국이 있는 그의 얼굴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
> 어디까지나 생김새가 그렇다 뿐 그녀가 놀란 진짜 까닭은 그저 이 마을에서, 가스 배달원이나 인터넷 설치 기사 같은 방문객들을 제외하곤 처음으로 노인에 조금도 가깝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는 낯섦일 터였다.[236]

이웃들의 시선에 진절머리나하던 정주는 아이러하니하게도 '자신을 완전한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으로 포도밭 미니슈퍼 최씨를 바라보게 된다. 그녀는 그가 낯설고 두렵다. '임신한 신체'라는 눈에 띄는 몸이 낙인으로 작동한 것처럼, 그녀 또한 최씨 얼굴의 흉터와 홀로 사는 젊은 남자라는 사실을 사회적 부적응자의 낙인으로 인식한 것이다. 어느 날 믹스커피를 사러 미니슈퍼에 간 정주는, 임산부인 자신이 카페인을 섭취하는 행동이 손쉽게 평가된다는 것을 알고 '본인이 마실 거냐'는 최씨의 질문에 방어적

235) 앙리 르페브르, 앞의 책, 107쪽.
236) 구병모, 앞의 책, 61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 태도로 답하게 된다.

> 마실 수 있어요. 사 개월만 지나도 안정기에 접어 들어서 하루 두 잔, 그것도 꺼림칙하면 한 잔까지는 괜찮아요. 그전엔 최소 다섯 잔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요, 이런 거 말고 새까만 걸로,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더치. 정말 아무 상관없어요. 의사도 별말 안 했다고요. 237)

'엄마 될 사람이 무슨 커피'냐는 핀잔을 들을까봐 지레 쏘아댄 정주에게 최씨는 마침 다 내렸다며 커피메이커에서 내린 원두커피를 내어준다. 자신이 보인 적대의 현장에서 그가 보여준 따뜻한 환대에 정주는 당황한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정주는 최씨에 대한 소문과 눈 밑 상처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 애쓴다. '그것이 타인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라 믿고 있고, 동네 어르신들을 보아오면서 깨달은, 타인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날 최씨와 정주가 가진 20여분의 짧은 커피 회동을 이웃인 윤 할머니가 보게 되고, 그날 밤 이완은 정주에게 최씨와의 만남을 언급하며 불쾌함을 쏟아낸다.

> 굳이 남들한테 그런 얘깃거리 제공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하는 얘기지. 이렇게 누구네 집 개 콧구멍 속까지 들여 보이는 마을만 아니라면 네가 뭘 해도 믿을 거고 찬성인데, 네 잘못 아니고…그 남자가 이상하다잖아. … 이상한 사람 아닌데. 최씨가 이상한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밖에서 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자신을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지 정주는 짐작해보았다. 238)

이 마을의 모든 이웃은 정주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한다는 것', 그 간단한 감정을 이해해 준 유일한 사람인 최씨를 위협적인 이웃으로 판단하고 경계한다. 이는 남편인 이완도 마찬가지다. 이완은 무엇보다 '타인의 시선' 때문에 정주가 스스로의 행동에 제약을 걸기를 바라고 있다. 마을 밖에서 온 이방인인 그들은 이웃들의 가혹한 시선 속에서 서로에게 조금씩 상처를 주기 시작한다.

---

237) 구병모, 앞의 책, 73쪽.
238) 구병모, 앞의 책, 76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호의주의보가 내린 어느 날, 이완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는 상황에서 정주의 양수가 터진다. 정주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와 무작정 포도밭 슈퍼로 향했고 최씨는 그런 정주를 보자마자 그녀를 트럭에 싣고 병원에 데려간다. 정주는 완벽한 마을의 타자였던 최씨의 도움으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다. 신생아실에서 아이의 얼굴을 본 정주는 그 순간 작은 산골 마을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한다. 이완은 그녀의 결심에 반대하고 이 결정이 가정의 해체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정주는 절대 결정을 철회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 그 어떤 불편도 부작용도, 정주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정주는 문득 러시아워에 어깨를 부딪치거나 서로 발을 밟고 밟히는 사이였던, 다시 스쳐 갈 일 없으며 형상이 떠오르지 않는 수천수만의 얼굴들이 그리워졌다. 누구도 정주를 알지 못하며 정주 또한 그들을 모르는 세계에서의 불안과,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나 실상은 아는 것이 없는 세계에서의 안식 가운데 선택을 요하는 문제에 불과했다. 환멸과 친밀은 언제라도 뒤집을 수 있는 값싼 동전의 양면이었고, 이쪽의 패를 까거나 내장을 꺼내 보이지 않은 채 타인에게서 절대적 믿음과 존경과 호감을 얻어낼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239)

정주는 본인이 떠나 온 대도시의 익명성을 그리워한다. 이는 짐멜이 분석한 대도시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바우먼이 말한 '과거도 미래도 없는 이방인들의 만남'으로 가득 찬 도시의 차가움을 정주는 소도시의 이웃 사이에서 그리워한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웃들의 시선이 가득한 소읍을 정주는 견딜 수가 없다. 이미 대도시의 거리두기와 냉소에 익숙한 인간에게 소도시의 촘촘한 관계성과 시선은 견딜 수 없는 올가미처럼 느껴진다.

> 그때 폭우 속에서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정체나 이완의 내력이나 소재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병원까지 실어다준 최씨의 얼굴이 갑

239) 구병모, 앞의 책, 85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자기 떠오르지 않아 정주는 의아해졌다. … 그것은 그녀가 한 번쯤 고개를 제대로 들어 그의 얼굴을 마주 들여다본 적이 없어서일 터였다. 그래도 이렇게 인상 자체가 떠오르지 않을 줄은 몰랐다. 마을을 떠날 정주에게 그는 오로지 눈 밑 상처만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왼쪽이었는지 오른쪽이었는지도 분명치 않았다. 240)

이 작품에서 소읍에서 느끼는 정주의 괴로움만큼이나 슈퍼 최씨가 정주에게 보여준 환대는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이 작품에서 최씨는 작은 산골마을이라는 공동체에 무심코 흘러들어 온 떠돌이로 취급되고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마을과 너무나 이질적인 그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에 대해 부족한 정보량을 채우기 위해 이웃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생산해낸다. 홀로 마을로 들어온 그는 그 마을에서 중세시대의 마녀나 괴물처럼 취급된다. 전근대적인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의 동질성과 조금만 다른 특징을 지닌 이들이게 강력한 낙인을 찍고 축출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 전근대적 두려움이 이 마을에서 최씨를 향해 그대로 답습된다. 최씨와 같이 마을 밖에서 온 이방인인 정주 또한 처음에 그를 보고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같은 이방인이지만 교사의 아내라는 비교적 명확한 신분을 가진 그녀는 '과거가 없는' 최씨에게 배타적인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이웃들의 이러한 판단의 태도는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타자는 언제나 두려운 존재다. 그들과의 어울림은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새로운 관념의 도입은 사회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방인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축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주가 가장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그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 준 이는 모두가 두려워하고 낙인을 찍었던 최씨였다. 최씨도 이웃들의 그러한 시선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공동체의 절대 다수가 자신에게 낙인을 찍고 프레이밍을 한다면 당사자는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환대를 보이기 어렵다. 하지만 최씨는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 환대'를 보여주었다.

우리가 타인을 볼 때 신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얼굴이다. 얼굴은 다양한 표정으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한다. 최씨의 얼굴

240) 구병모, 앞의 책, 85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는 흉터가 있었다.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얼굴을 지각하는 의식의 지향적 대상으로 만들어서, 얼굴의 절대적 타자성을 축소시킨다.”[241] 레비나스는 ‘얼굴은 경험이 아니라 표현’이라고 말했다. 얼굴은 ‘의미의 생산’이기보다 ‘의미의 근원’이다. 얼굴은 ‘내가 주기보다는 내가 더 받는 타자와 접촉 양태’다.[242]

정주는 최씨의 환대를 받기 전까지 그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이웃으로서 그에게 큰 도움을 받고 나서야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았지만, 이제 정주는 그의 얼굴이 명확히 떠오르지 않는다. 소문 속에서 그의 폭력성을 증명하였던 얼굴의 상처 또한 얼굴의 어느 쪽에 위치했었는지조차 기억이 가뭇하다. 자신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최씨의 환대를 받은 정주에게 이제 최씨 얼굴의 흉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환대란 ‘나’를 타자에게 무한히 확장하는 것이다.”[243] 어쩌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이웃과 크고 작은 환대를 나누며 자신을 확장시키는 과정의 반복일지도 모른다.

결국 최씨와의 만남과 그가 베푼 환대의 경험이 정주에게 폐쇄적인 공동체로부터 탈출해야겠다는 욕망을 자극시켰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자와의 만남의 기원’에는 자이의 분리됨이 있다. ‘타자의 타자성의 환원 불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나는 내가 홀로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내가 ‘모든 타자들이 속하는 전체성의 일부가 아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타자는 나로 하여금 내가 세계를 공유한다는 것, 세계가 나의 유일한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244]

이웃에 대한 절대적 환대를 다룬 정한아의 ‘바다와 캥거루와 낙원의 밤’을 살펴보자.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홀로 시원이라는 딸을 키우는 서른여덟의 대학 강사다. 두 번의 결혼에 실패한 그녀는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딸과의 관계도 신통치 않다. 어느 날 시원은 그녀에게 호주로 이민 간 친아버지에게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두 번의 결혼과 딸과의 관계까지 실패한 화자는 불륜 관계인 최와의 관계까지 신통치 않다. 자신이 맺어온 모든 관계

241) 콜린 데이비스, 『처음 읽는 레비나스』, 동녘, 2014, 74쪽.
242) 콜린 데이비스, 앞의 책, 74쪽.
243) 강남순, 앞의 책, 257쪽.
244) 콜린 데이비스, 앞의 책, 78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맺기에서 실패함을 깨달은 화자는 출강하는 대학의 일자리까지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인다. 그녀는 결국 아버지가 관리하는 오래된 건물 '해피 하우스'의 관리를 맡게 된다.

건물 관리인으로서 아버지의 고민은 '303호 노파'다. 말기 암 환자인 그녀는 근처의 원룸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자 아들을 앞세워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피 하우스에 입주했다. 화자는 노파에게 요양원 입소를 권한다. '사람이 죽은 집'이라는 소문이 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과거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사망했다. 집 밖에서 사망하는 것을 '객사'라 부를 만큼 집 밖에서 죽는 것을 두렵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집에서 죽지 않는다. "사람들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죽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미국에서부터다. 이제 병원은 대표적인 임종지가 되었다. 의학이 발달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죽음은 이제 사회 속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이제 죽음은 철저하게 '전문적인 조직'에 의해 관리된다. 의학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다.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50%가 넘어간 것'은 2001년 서울에서부터였다."[245]

코지크(K.Kosik)는 모든 사람에게는 '일상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개별적인 자신의 삶을 매일의 '테두리 속에서 조직화'라는 것이 일상성이다. 사람들의 삶은 '하루하루의 반복 가능성', '매일의 시간 배분' 속에 고정된다. 일상성이 무너지는 것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부정적 현상으로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동시에 일상적 리듬 밖으로 쫓겨날 때', 붕괴하는 것이다.[246]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자신의 일상성이 붕괴되는 경험을 한다.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배우자가 사망하는 일을 겪으면서 일상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이는 죽음을 유예했을 뿐 사회적 고립의 시간은 늦추지 못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노인이 되어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들의 무너진 일상은 병원이라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붕괴되어버린다. 이 작품 속 303호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는 것을 끝끝내 거부한다.

---

245)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 연구회, 앞의 책, 457-8쪽.
246)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 연구회, 앞의 책, 460-461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요양원에 가본 적 있어요?"
노파는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느리게 되물었다.
"난 가봤어요. 그리고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지요."
…
"…내가 원하는 건 내 집에서, 조용히, 홀로 지내는 것뿐이에요."[247]

화자는 노파에게 '이곳은 당신의 집'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 '한 달에 얼마간 사용료는 내고 빌려 지내는 곳을 집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그 사용료 안에는 당신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차마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이 화자의 본심이다. 노파는 한 달 임대료를 세 달치로 계산해서 내는 방식으로 '죽음의 값'을 내겠다고 하지만 화자는 거절한다. 자신의 부탁이 계속 거절당하자 노파는 "여기서 죽지 않을게요."라고 여자에게 약속한다.

이 빌라에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웃이 있다. 302호에는 월세가 1년이나 밀린 여자가 아이 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말만 반복하는 여자 앞에서 '나'는 밀린 월세를 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직감한다. 추운 겨울날, 302호는 결국 강제퇴거를 당한다.

갈 곳이 없다고, 아이들도 자신도 뭘 먹지 못한 지 며칠이 되었다고 했다. 나는 여자와 아이들을 피해 밖으로 나왔다. 결국 그들은 초라한 살림살이와 집기들마저 차압당했고, 악다구니 끝에 집을 떠나야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기 싫어 온종일 집을 비웠다.[248]

"이웃사랑의 윤리는 이웃을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이 이웃답게 온전한 존재로 삶을 함께 누리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추구한다."[249]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이웃사랑을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247) 정한아,「바다와 캥거루와 낙원의 밤」,앞의 책, 115쪽.
248) 정한아, 앞의 책, 132쪽.
249) 마상룡,「오늘날 이웃사랑은 어떻게 가능한가」,『문학과 종교』제 24권 3호, 2019, 71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앰뷸런스에 실려 갔던 303호 할머니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화자는 이 집에서 죽지 않겠다고 한 노파의 약속을 떠올리지만 303호 할머니는 며칠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아버지의 질책이 두려웠던 그녀는 강제로 문을 개방한다.

> 그때 방구석에서 어떤 소리가 났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아니 숨을 참는 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안의 어둠으로 빛이 새어 들어갔다. 캄캄한 가운데 반짝이는 두 쌍의 눈, 웅크린 팔과 다리가 보였다. 나는 옷장 문을 힘주어 열었다. 아이들이 있었다. 더럽고 야윈 아이들. 강제 퇴거된 302호의 아이들이었다.
> "할머니가 여기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250]

죽음을 앞 둔 303호 할머니는 302호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환대를 보여주었다. 303호 할머니는 이미 일상이 붕괴되었고 이웃들에게도 배척당한 상태다. 자신의 집에서 죽겠다는 소망마저도 집주인에게 거부당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이런 절대적 환대를 또 다른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학자다. 그는 타자를 설명할 때 '얼굴'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에 따르면 얼굴은 "자신에게 뭔가를 묻고 있으며,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 타자"다. 자아의식의 폐쇄성을 뚫고 질문을 던지는 '얼굴'의 절박성을 통해 인간은 타자성에 눈을 열게 된다. 그런 '얼굴'의 절박성이 가장 현저해지는 것은 나 자신 혹은 타자가 죽음에 처했을 때다. 우리는 '죽음'을 통제할 수 없다.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 타자다. '죽음'을 둘러싼 긴박한 상황에서, 유한한 '나'가 타자를 향해 열리는 것이다."[251]

죽음을 앞 둔 303호 할머니가 302호 아이들을 외면하지 못한 것은 그녀가 '죽음'을 통해 절대적 타자성에 눈을 떴기 때문이다. 그녀는 죽음을 앞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아이들의 얼굴을 외면하지 못하고 '절대적 환대'를 보여주었다.

---

250) 정한아, 앞의 책, 137쪽.
251) 나카마사 마사키, 『자크 데리다를 읽는 시간』, 김상훈 옮김, arte, 2017, 321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결론

본 논문은 201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도시인의 일상을 살펴보고 도시인의 우정과 환대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최근의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 집중하여 도시 여성의 일과 이중 억압,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과의 문제를 분석하여 타인에 대한 순수한 우정이 가능한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대의 도시는 물리적으로 과거와 다르다. 담장은 높아졌고 이웃 간의 접근은 어려워졌다. 근대화로 인한 '신 엔클로저 운동'으로 도시는 출입제한 공동체들로 가득하다. 도시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유형은 나날이 다양해졌다. 이방인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사람들은 점점 개인의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 사람들의 불안을 담보로 한 부동산 마케팅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로 인해 도시 공간은 동질성이 강한 집단으로 재편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바우먼에 따르면 이렇게 형성된 '공간의 사회적 동질성'은 '다름'에 대한 사람들의 관용의 수준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혼재 공포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배가시킨다. 때문에 도시의 삶은 보다 안전하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되기보다는 훨씬 더 '위험천만한 것'으로 보이도록 만든다.[252]

본론 제 1장 '도시인의 거리두기'에서는 화폐 경제를 기반으로 탄생한 도시의 새로운 인간관계와 신 엔클로저 운동을 통해 탄생한 출입제한 공동체, 그리고 그로 인한 도시인의 거리두기를 살펴보았다. 화폐경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현대도시에서 돈은 도시의 풍경을 만든다. 계산적 이성이 발달한 도시인의 모습은 비단 직장 동료나 친구들 사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내밀한 부부간의 결합마저도 화폐경제 사회에서는 노골적으로 수로 세어진다는 점을 보여준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이런 '수로 세어지는 관계'는 단지 결혼 과정에서 뿐 아니라 혼인 생활 내내 지속된다.

인클로저 된 공간에 거주하는 대도시인들은 특유의 신경과민과 접촉 공포

252) 지그문트 바우먼, 『리퀴드 러브』, 255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증에 시달린다. 특히 특유의 이런 불안 속에서도 육아와 가사 노동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타인과 접촉하게 되는 순간이 많아지는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유의 신경과민적 현상을 다룬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도시인들은 도시인 특유의 거리두기로 인해 도시 안에서 단절되고 고립되는 경험을 하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본론 제 2장 '도시 여성의 삶'에서는 도시 속 여성의 삶의 특징에 집중하여 작품들을 분석했다. 도시인의 특성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바로 '일'이다. 현대인에게 '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임금경제로 치환되지 않는 비공식 경제로 인해 발이 묶인 여성들의 종속된 자아가 어떤 식으로 신경과민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비공식 경제로 인해 이중 억압에 시달리는 도시 여성들의 과중한 부담이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화폐경제로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임금노동이 확대되면서 여성은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삶터와 일터가 완전히 분리된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비공식 노동은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노동이기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돌봄 노동은 첨예한 문제다. 돌봄 노동은 사회적으로 흡수된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가정 내 여성들에게 주로 부과되는 노동이다. 이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 마찰과 분열이 생기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최근 한국소설에서 돌봄 노동에 천착한 작품들이 많이 발표되면서 이 문제에 주목하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돌봄 노동은 절대적으로 환대의 문제와 연결된다.

본란 제 3장 '도시인의 환대'에서는 환대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도시인들의 타자성을 분석했다. 도시인들의 만남은 과거가 없는 만남이다. 그들 사이에는 유대 없는 만남이 반복된다. 이런 도시인들의 빈번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환대의 현장과 선물의 의미를 분석해볼 수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앞장에서 살펴본 도시인의 우정과 거리두기의 문제로도 환원된다. 도시인의 이웃관계를 다룬 작품을 통해 근린에서 관계를 맺는 이웃들 간의 우정의 문제가 그것이다. '그때그때의 만남'을 반복하는 도시인의 삶에서 타인에게 절대적 환대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며 작품들을 분석해 보았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그문트 바우먼에 따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점점 더 낯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인클로저 된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은 점점 더 두려운 존재가 된다. “그들의 ‘다름’을 그곳 사람들 자체의 삶의 세계에 동화시켜줄 수도 있는 대화와 상호작용은 사라지거나 아니면 애당초 시작도 못하기 때문이다.”[253]

이는 도시인들의 신경과민을 더욱더 자극하게 되었고 이는 대도시인들의 ‘혼재공포증(mixophobia)’로 나타났다. 이제 도시인들은 함께 살아가는 데 들여야 하는 감정적 노력을 포기하고 ‘도시를 구획하는 방식’으로 이 혼재공포증을 해결하고자 한다. ‘끼리끼리의 공동체’를 향한 욕구는 외부의 타자성뿐만 내부의 상호작용으로부터도 몸을 빼려는 신호이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동일성의 공동체’는 도시인이 일상생활에서 감당해야 하는 온갖 위험에 대비한 ‘보험’같은 것이다.[254]

하지만 도시의 모든 구획을 ‘동질성’을 가진 집단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는 과거의 폐쇄적 공동체로 퇴보하는 결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개인의 노력에도 방해가 될 것이다. 더구나 도시인의 이동은 갈수록 국경을 넘어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이리스 메리언 영은 ‘도시의 삶(city life)’이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차이와 그로 인한 모든 억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차이가 공존하는 대안적 사회관계에 대한 하나의 상’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변혁에 대한 희망을 고무했다. 과거의 공동체에서는 그 폐쇄성과 단일성으로 인해 공동체 내부와 외부의 타자들에 대한 배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영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도시의 삶을 ‘공동체의 이념 나아가서는 기존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규범적 이상’으로 제시했다. 그녀가 제시한 이상적인 도시의 삶에서 사람들은 단지 고립된 개인이 아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배제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공존한다.[255]

도시의 삶은 과거 전근대적 삶과 달리 다양성을 존중하고 많은 질문을 허용한다. 도시는 이방인들로 가득하다. 다른 매력들로 가득한 도시에서 우리는

253) 지그문트 바우먼, 『리퀴드 러브』, 250쪽.
254) 지그문트 바우먼, 『리퀴드 러브』, 249쪽.
255) 연구모임 사회 비판과 대안, 『현대 페미니즘의 테제들』,사월의 책, 2016, 203-4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마주하게 된다. 누구나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도시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방인을 환대하고 다양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해야 한다.

본 논문은 도시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 속에서 도시인의 환대와 우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아직은 연구 성과가 미미한 2010년대 소설을 그 대상으로 시의성 있는 문제점을 고찰했다는 점 역시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주로 도시 여성의 일상을 탐구한 작품으로 연구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장편소설이 포함되지 않은 연구범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도시성은 이제 현대 소설을 분석할 때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다. 기 드보르는 “인간은 자기 조상들을 닮은 것보다 자신의 시대를 더욱 닮는다”고 말했다.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행동양식과 정신적 삶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문학에 나타난 도시성의 특성들을 보다 광범위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포괄하여 논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추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1. 기초자료

구병모,『단 하나의 문장』, 문학동네, 2018.
김유담,『돌보는 마음』, 민음사, 2022.
김애란,「숲 속 작은 집」,『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현대문학, 2020.
김세희,「가만한 나날」,『젊은작가상 2018』, 문학동네, 2018.
백수린,「아직 집에는 가지 않을래요」,『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현대문학, 2020.
손보미,「임시교사」,『젊은작가상 2015』, 문학동네, 2015.
윤이형,『이상문학상 43회 수상집』, 문학사상, 2019.
장류진,『일의 기쁨과 슬픔』, 창작과비평, 2018.
장은진,『당신의 외진 곳』, 문학동네, 2020.
장희원,「우리의 환대」,『젊은작가상 2020』, 문학동네, 2020.
정한아,『술과 바닐라』, 문학동네, 2021.
최은미,『목련정전』, 문학과지성사, 2015.
최은미,『눈으로 만든 사람』, 문학동네, 2021.
최정화,『지극히 내성적인』, 창비, 2016.

2. 단행본

강남순,『데리다와의 데이트』, 행성B, 2022.
게오르그 짐멜,『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윤미애 옮김, 새물결, 200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게오르그 짐멜,『돈의 철학』, 김덕영 옮김, 길, 2013.
김욱진,『공동체』, 한국학술정보, 2020.
김인·박수진,『도시해석』, 푸른길, 2006.
김현경,『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나카마사 마사키,『자크 데리다를 읽는 시간』, 김상운 옮김, arte, 2017.
데이비드 하비,『도시의 정치경제학』, 초의수 옮김, 한울, 1996.
린다 맥도웰,『젠더, 정체성, 장소』 ,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0.
마이크 새비지·알랜 와드,『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김왕배·박세훈 옮김, 한울아카데미, 1996.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 연구회,『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 박정자 옮김, 한울아카데미, 2008, 한울아카데미, 2008.
앙리 르페브르,『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옮김, 기파랑, 2005.
알랭 드 보통,『불안』, 정영목 옮김, 이레, 2004.
연구모임 사회 비판과 대안,『현대 페미니즘의 테제들』, 사월의 책, 2016.
오르한 파묵,『소설과 소설가』, 이난아 옮김, 민음사, 2012.
자크 데리다·마우리치오 페라리스,『비밀의 취향』, 김민호 옮김, 이학사, 2022.
정찬일,『삼순이, 시대가 만들고 역사가 잊은 이름』, 책과함께, 2019.
조앤 W 스콧·루이스 A 틸리,『여성 노동 가족』, 김영 옮김, 앨피, 2021.
존 레니에 쇼트,『문화와 권력으로 본 도시탐구』, 이현욱·이부귀 옮김, 한울아카데미, 2001.
지그문트 바우먼,『액체근대』, 이일수 옮김, 강, 2009.
지그문트 바우먼,『유동하는 공포』, 웅진씽크빅, 함규진 옮김, 2009.
지그문트 바우먼,『리퀴드 러브』, 권태우·조형준 옮김, 새물결, 2013.
페넬로페 도이처,『How to read 데리다』, 웅진지식하우스, 변성찬 옮김, 2007.
캐슬린 린치 외,『정동적 평등-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강순원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6.
케네스 레이너드·에릭L.샌트너·슬라보예 지젝,『이웃』, 정혁현 옮김, 도서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판b, 2010
콜린 데이비스,『처음 읽는 레비나스』, 주완식 옮김, 동녘, 2014.
후지다 히로오,『도시의 논리』, 이정형 옮김, 도서출판국제, 1995.
F.엥겔스,『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김대웅 옮김, 도서출판 아침, 2002.

3. 논문 및 평론

강유진,「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집과 도시의 공간성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 55권, 2017.
김수지, 김미영,「젠더지리학을 통해 본 소설의 공간과 장소 -최은미의「근린」,「백 일 동안」을 중심으로-」,『동아시아문화연구』제 83집, 2020.
김아영,「최인호 소설의 도시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김지예,「박경리 도시소설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김한배, 조윤승,「도시문학을 통해 본 서울 도시경관의 인식 - '소설가 구보' 계열의 소설들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제20권 제 4호, 2019.
류연미,「표백된 천국에서 살아남는 법-2010년대 청년 소설과 몰락의 세계감」,『실천문학』116호, 실천문학사, 2014.
연남경,「포노 사피엔스의 '워라밸'과 자본주의 횡단하기 - 장류진의『일의 기쁨과 슬픔』을 중심으로」,『이화어문논집』제 53집, 2021.
오길영,「노동소설에서 사회소설로-장류진『일의 기쁨과 슬픔』과 김혜진『9번의 일』」,『황해문화』, 2020 여름호.
이광민,「박완서 소설 연구 - 도시체험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이슬아,「어디로 가나요? - 김유담의 소설들을 중심으로」,『황해문화』2022년 봄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신조,「199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도시성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이희경,「도시 문명에 갇힌 인간 소와와 상실감 : 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동서언론』 제 15권, 동서언론학회, 2012.

임정민,「윤흥길 도시소설에 나타난 사회현실과 인물의 대응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1.

신성환,「2010년대 후반 한국형 회사원 소설에 나타난 청년 의식 연구 -김세희와 장류진 소설을 중심으로-」,『어문총론』제83호, 2020.

마상룡,「오늘날 이웃사랑은 어떻게 가능한가」, 『문학과 종교』 제 24권 3호, 2019.

홍준기,「믿음, 감사, 이웃사랑 : 짐멜의 문화 및 도시철학에 관한 정신분석적 성찰」,
『현대정신분석』 제14권, 2012.